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 북녘 땅 고향 이야기

김석향  
지음

첫 번째 이야기 : 두고 온 고향 마을 인민반 돌아보기



Konrad  
Adenauer  
Stiftung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녘 땅 고향 이야기



# Contents

---

## Part. 1

---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005
--------------------	-----

## Part. 2

---

“우리 동네 인민반” 이야기	025
2-1: 우리 동네 인민반장	030
2-2: 인민반의 임무와 역할	050
2-3: 인민반의 구조	125
2-4: 인민반 내 사회적 소수자	138
2-5: 인민반 내 탈북 양상	202

## Part. 3

---

인민반의 이중성: 감시와 관심의 변주곡	209
3-1: 사생활 공유 공동체	212
3-2: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놀이문화 공동체	215
3-3: 악어와 악어새의 공동체: 감시체계의 무력화	218

## Part. 4

---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해야 하는 이야기	223
----------------------	-----

---



Part. 1

---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

북한이탈주민을 만나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은 사실상 그들이 두고 온 북녘 땅 고향 이야기를 듣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태를 묻은 고향” 이야기로 귀결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이런저런 의문점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때때로 거침없이, 또 때때로 머뭇머뭇 망설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 분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사람마다 고향의 의미는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른가? 연구자의 위치에서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나에게 고향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연구자로서 나는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지 그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일을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노력을 쉬어 본 일이 없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태를 묻은 고향” 이야기 속에는 연구자로서 내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점이 서로 얽혀서 나타나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상상의 범주를 초월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인생역정을 들려주는 순간에도 내내 답답하고 초연하던 면담 대상자가 유독 “태를 묻은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꺾꺾 눌러 놓은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

그렇게 참으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워요?

풀죽을 먹더라도 제 땅에서 살아야지,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 정권이 날 밀어낸 것이나 같아요.

”

실제로 탈북할 때까지 북한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던 사람이 자신은 “(어찌다 보니/어쩔 수없이)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나다니” 사는 일 자체가 불행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만나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향을 떠난 자신은 “여기 이곳에 터를 두고 있는” 나 같은 사람과 처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속내를 불쑥불쑥 드러낼 때에는 새삼 북한이탈주민에게 고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반추해 볼 수 있었다.

사실상 고향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지도 않거니와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나는 “고생고생 열두 가지 고생을 하다가”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아 어쩔 수없이 떠났다고 하소연을 하면서도 “태를 묻은” 그 곳이 못내 그립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쉽게 이해

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무작정 고향이 그림다고 토로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들이 어린 시절 추억을 그리워하는 심정 정도는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라도 마음껏 표출할 만큼 우리 사회가 이들의 행동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돌이켜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는 나에게도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쩌다 한 번씩 고향이 어디냐 하는 질문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멈칫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잠시 멈칫하는 이유는 나 자신도 고향이 어디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나는 고향이 어디냐 하고 누군가 물어보는 순간에 간단명료하게 특정 지명을 언급하는 대신 비교적 긴 서술문을 시작하게 된다. 집안의 막내아들인 내 아버지는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으로 1951년 1·4 후퇴 당시 가족 전체를 뒤로 한 채 혼자 피난길에 나섰고 어머니는 경상북도 안동이 고향이었는데 두 분은 대구에서 만난 뒤 큰 딸인 나를 그 곳에서 낳으셨으며 내가 두 살 때 식구들 모두 대구에서 서울로 옮겨 와서 살았다는 것이 내 고향을 설명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알아서 내 고향을 결정해 준다는 점이다. 두 살 이후로 서울에 살았으니 고향이 서울이라 하거나 대구에서 출생했으니 그 곳이 고향이라고 판정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평안북도 출신이니 진짜 고향은 평안북도라고 규정해 주기도

한다. 나름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는 왜 당신들 마음대로 내 고향을 결정하느냐, 왜 아버지 고향은 생각하면서 어머니 고향은 감안하지 않느냐 등등 기분에 따라 내 나름의 의견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복잡한” 고향 이야기 때문에 스스로 삶이 불행하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었던 나는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났다” 하는 사실이 북한이탈주민을 그렇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쏟아내는 북한이탈주민의 발언을 되도록 많이 수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의 발언이 문법 규범에 맞지 않고 주어와 술어가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적 어법에 어긋나는 사례도 많을 뿐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해도 애써 고치려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제시해 보려 했다. 이들이 했던 말을 날 것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말을 하는 순간, 그 표정에 감출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드러났던 진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이른바 북한학 연구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표정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안타까움이 절박하고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표정이야말로 오랫동안 꺾꺾 눌러 두었던 속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의 표정은 연구자의 위치에서 그동

안 들었던 이야기를 물어둔 채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준 원동력이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좋은 기회를 만나면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태를 묻은” 고향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기억해야 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과 강박 관념에 떠밀려 마음이 바빠질 때가 많았다.

연구자로서 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면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유형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새롭게 이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미공급” 시기를 보냈다고 하소연 하면서도 그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렇게 절절하게 남아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북한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긋지긋하다고 고개를 가로 저으면서도 “태를 묻은 고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 얼굴에 진한 그리움과 향수가 묻어나는 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고향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게 간절한 “태를 묻은” 고향의 의미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무작정 고향이 그리다는 사람이 꽤 많았다. 이들은 지금 당장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곳에 돌아가 살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한다. 고향이 왜 그리운지, 왜 굳이 그 곳에 돌아가 살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아도 이들은 별다른 이

유를 말하지도 않는다. 그저 “나서 자란 곳이니까” 가고 싶다고 하거나 여기서 사는데 별로 아쉬운 것은 없지만 “그래도 고향은 그림다” 하는 정도의 대답이 나올 뿐이다. 특히 탈북하기 직전에 이른바 “도망강이라고 부르는 두만강을 건널 때” 이미 자신이 떠나 온 고향이 그림다고 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들의 처지를 더욱 애잔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기도 한다.



자기 고향 나쁘다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사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았던 곳이니까, 내가 나서 자란 곳이니까 정이 너무 들었죠. 지금이라도 고향에 가라고 그러면 나는 000동 가서 살겠어요. 그래도 제가 살던 고향, 태어나서 살던 고장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좋아요. 거기는 지금도 가고 싶고 그냥 그래요. 살라고 하면 그냥 000동 가서...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와 가지고 막 고향에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리비아처럼...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리비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엄청 기대를 가졌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여기 와서는 일한 만큼 돈 주고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고향은 그리워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북한체제는 나빠요.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내가 두고 떠나 온 고향이나 형제나 무슨 죄가 있어요? 그 무슨...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데... 저는 뭐 오늘이라도 통일이 된다면 고향에 가겠어요.

모르니까 떠났지, 고향 떠난다는 게... 도무지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강을 건너기 전에 두고 온 고향이 그림다고 막 우는 애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라고 막 두들겨 패 놓기도 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은 간혹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물건을 볼 때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인공기로 부르는 상징물인 남홍색 공화국기<sup>1</sup> 펄럭이는 영상을 보거나 붉은 넥타이<sup>2</sup> 매고 지나가는 소년단 아이들 사진을 볼 때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저절로 쏟아내게 된다는 경험담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실체는 북한이탈주민도 스스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서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면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 준 주변 남쪽 사람에게 공연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 후시라도 간첩으로 몰리게 될까봐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당혹스럽다고 말해 주기도 했다.

다음으로 젊을 때 떠난다면 몰라도 나이든 사람은 고향을 떠나면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견을 들려주는 사람도 많았다. 나이든 사람은 탈북을 결심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옳게 온 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고향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편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말은 곧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에 남겨 둔 가족에게 탈북을 권유해야 하는지 망설이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족과 만나고 싶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부모님이나 손위 형제자매를 하루라도 빨리 탈북해서 오라고 권유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분이 오셨다가 친구도 한 사람 없는 이곳에서 향수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에서 지독한

**1**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남홍색 공화국기로 부르는 인공기는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분단 초기에는 북한당국이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당시 젊은 김일성이 등장하는 사진 몇 장을 살펴보면 인공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태극기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태극기와 소련기를 배경으로 당시 30대의 젊은 김일성이 연단에서 있는데 이른바 공화국기로 부르는 인공기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장면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소학교 2학년이 끝나는 무렵부터 시작하는 조선소년단 입단부터 시작한다. 조선소년단 입단식은 매년 세 차례 진행한다.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인 6월 6일에 입단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년단에 입단하는 날부터 아이들은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자신은 소년단원으로서 “무조직 군중” 신분을 벗어나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생활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매년 2월 16일 이후 6월 6일까지 대략 4개월 동안 같은 인민반에 살면서 매일 학교에 같이 가는 친구 중에서 어떤 아이는 붉은 넥타이를 매고 “뽀내면서” 다니는 반면 소년단에 입단하지 못해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아이도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향수병에 걸린 사람을 지켜보다 보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탈북민 동료들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만큼 “평생을 살아 온 땅을 한 번 밟아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처지는 애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이들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많이 뛰지만 나이든 사람은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추억도 있고 또 가족이랑 애뜻한 정도 있기 때문에 조만해서 뛰기가 힘듭니다.<sup>3</sup>

아마 오라고 그래도 안 올 걸요. 거기서 뭐 살기 좋은데... 저도 그 데려오는 거를 나름대로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나이 드신 분 쪽 봤잖아요? 그 다시 북한으로 갔다고 하는 분...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 있을 때에는 노래... 그 고향 노래도 많고 그렇잖아요? 뭐 죽어서도 가고 싶은 게 고향이다... 뭐 이런 게 진짜 감이 안 왔어요. 뭐 고향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 살다가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별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고향 생각이 갑자기 확 오는데... 갈 수 있으면... 아무 탈 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이제 향수병 같은 게 확 오는데... 야... 내가 이런 데 나이 드신 분은 오죽 하겠냐? 내가 아버지랑 데려 왔다가 여기 친구도 한 명 없는데... 내가 평생을 살아온 땅을 한 번 밟아보고 싶어도 갈 수 없다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없다... 내가 그러다 부모한테

한을 남기겠다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다 이해가 되더라구요.

거기서 오신 분들... 그 정도 나이 드신 분은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진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좋겠다. 뭐 여기 친척이라도 와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러니까 돈 좀 있으면 거기서 뭐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면서 조금 더 살다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탈북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결국 고향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람도 자주 만났다. “이미 오래 전에 그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난다는 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 탈북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회한을 쏟아내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나서 자란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과정은 사실상 객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연구자에게도 그다지 쉬운 일이

**3**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같은 의미로 조만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부분에서 조만해서 뛰기가 어렵다 하는 표현은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탈북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니었다. 다만 옥수수밥이라도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더라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하면서 고향 마을에 이런저런 특징을 서술해주는 사람의 심정은 그나마 납득할만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을 따름이었다.



웬만하면 밥을 어기지 않고, 그 땅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부모형제도 있고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니까, 그 땅에서 남들처럼 크게 고생 안하고 살았으니까, 그 땅에서 살려고 했어요.

참 오면서 생각한 게... 북한 사람이 옥수수라도, 옥수수밥이래도 먹을 수 있다면 누가 고향을 떠나서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먹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난 것이죠.

우리 마을에는 향교 자리가 있었어. 건물도 다 있고 재개발 안 해가지고, 그냥 폐쇄되어 있고 거기는 말하자면 조각상도 지지분하게 다 있고 집이 옛날 기와집이었어요. 시뻘겋고 시퍼렇고, 그림 그리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인민학교 다닐 때까지 있었어요. 이 향교마을은 지금도 재개발이 다 안됐어. 우리는 다 향교마을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고 싶죠... 내 눈으로 보고...

북한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옥수수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오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 고향

만의 문화가 있고 다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도 함경북도를 벗어나서, 내 고향을 벗어나게 되면 일단 어려워요. 다 정착이라는 게 사실 다 어려운데 그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그냥 배고파서 막 오는 사람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부모님들 있는 나서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게 진짜 싫은 거예요.



한편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고향 산천을 떠나 탈북을 한 것이 반역인지 애국인지 갈등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의견도 꽤 많이 나왔다. 처음에는 이들이 고향을 떠났다고 해서 왜 자신을 반역자나 변절자라고 자책을 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정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신이 바로 북한에 살 때 충성을 다하면서 “절대로 나라에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하는 부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이 북한에서 살 때 어찌 다 길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오는 죄수들” 행렬을 만나면 “배신자-변절자”로 비난하며 마주 보고 돌을 던지거나 돌아서서 침을 뱉을 정도로 경멸했던 사람이라고 예전 행적을 들려주었다.<sup>4</sup> 어찌다 도 집결소 마당에서 탈북했다가 잡혀 온 뒤 줄을 맞추어 기어 다니면서 그 줄이 흠어질 때마다 사정없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경험도 들려주는 사

람이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의 위치가 바로 그렇게 돌 던지고 침 뱉으며 경멸했던 “배신자-변절자”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고백이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탈북이 이른바 “조국을 배신하거나 변절한” 행위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것 같다... 저녁에 잠 잘 때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내가 반역이냐, 애국이냐? 이런 점에서 갈등이 많이 옵니다. 물론 지금은 애국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자랐던 고향 산천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그쪽에 남은 사람들 생각이 나서 그런지...



그 반면에 탈북 이후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야 안도감이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중국에 꽤 오래 살면서도 공안에 잡히거나 복송을 당할 위험을 느꼈던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인천공항에 내려 자신을 맞이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난 다음에 “휴, 이제 살았다” 하는 탄식이 저

4 탈북의 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누구나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자-변절자로 타하는 증상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만났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탈북을 선택한 자신의 행위를 가리켜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 같은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절로 터져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중국-라오스-베트남 등 몇 개 국가를 거쳐 들어오다 보니 “산천이 하나로 이어진 이 땅이 바로 내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사람도 심층면담 과정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물 안 개구리 처럼” 갇혀 사느라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었는데 막상 탈북한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 여러 나라를 거쳐 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에는 “돌고 돌아서 결국 고향에 온 것 같아 눈물이 저절로” 날 정도로 특별한 감정에 휩싸이고 말았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근데 이렇게 인천공항 내려다보니까 북쪽하고 남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도 아... 이게 내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우리 조국은 정말 깨끗하고 알뜰하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 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처럼 북한에 가만히 있을 땐 못 느꼈는데 중국이나 라오스, 태국까지 거쳐서 오다니니까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인천공항에 들어 올 때 야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내 고향에 온 그런 감정이 돼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건 자기가 직접 느껴봐야 그런 감정이 나오지요.



북한이탈주민이 “태를 묻은” 고향을 두고 떠났다고 말을 하면서 저렇게 깊은 회한을 쏟아 내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

이 겪어 온 삶의 과정을 비교적 평온하게 들려주다가도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저렇게 깊은 감정의 진폭을 드러내는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향의 산과 들, 골목 앞 풍경을 넘어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마을 뒤 골짜기 안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이들의 표현 능력은 어디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경험담으로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도 좋을까? 두고 온 고향을 한 번이라도 다시 밟아 보고 싶다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쏟아내는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로 기록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사실상 이런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하는 생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녘 땅 고향 이야기의 일부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해 온 나에게 그 결과로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기록물로 남았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아낌없이 들려주었던 약 100명의 여성과 약 50명의 남성은 이 글을 쓰는 나에게 그대로 영웅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 엄혹한 시절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렇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며 연구자로 다가서는 나에게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서술해 주는 이들의 모습이 또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연구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걸어 온 고통의 흔적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영웅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기회를 누렸으니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약 100명의 여성 영웅과 약 50명의 남성 영웅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만큼 그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역사자료로 기록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종의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덕분에 이 자료를 책으로 정리하여 출판할 기회를 만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 온 삶의 역정을 아낌없이 들려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나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고향 땅을 찾으면서 한반도 곳곳을 누비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들과 전화해서 일정을 정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메모를 하면서 녹취 자료로 준비해 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실무진과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학생들의 노력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었

던 이들의 노력 덕분에 이 책의 내용이 햇빛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통일학연구원 실무진과 북한학과 학생들 역시 이 책의 출간에 기여한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낼 기회를 만들어 준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잠제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한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책의 내용은 지금도 어둠 속에 깊이 묻혀 있었을 것이다.





## Part.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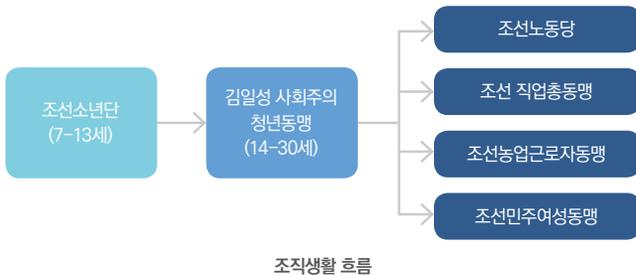
“우리 동네 인민반” 이야기

---

북한당국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에 들어가 규칙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5</sup> 소학교<sup>6</sup> 2학년을 마무리하는 무렵부터 소년단에 입단하여 이른바 “무조직 균중”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 각자의 조건에 따라 청년동맹-직맹-농근맹-여맹에

**5**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조선소년단 입단과 함께 시작한다. 일단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소학교 2학년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3학년을 거치는 동안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조선소년단 입단식은 매년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 등 세 차례에 나누어 진행한다. 같은 학년에서 제일 먼저 입단식을 하는 아이들은 2학년이 끝나가는 2월 16일에 요란한 행사를 하면서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자랑스럽게 교실에 나타난다고 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4월부터 새 학년을 시작하는 만큼 같은 학년에서 두 번째로 소년단에 입단하는 아이들은 3학년이 진급한 뒤 4월 15일에 입단식을 진행한다. 그래도 이 때 소년단에 입단하고 붉은 넥타이를 매는 건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같은 교실에 아직도 붉은 넥타이를 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6월 6일에는 별다른 행사도 없고 나머지 친구들이 대충 붉은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소년단 입단을 마무리한다고 했다.

이렇게 시작한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사실상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맹원으로 가맹을 하면서 붉은 넥타이를 풀고 맹원증을 받아든다고 했다. 그 뒤에 토대가 좋고 운도 좋은 사람은 조선노동당 당원으로 입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업에 따라 조선직업총동맹이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가맹해야 한다. 조선민주여성동맹은 기혼여성으로 별도의 직업 배치를 받지 않은 “가두녀성” 모두 반드시 가맹해야 하는 조직이다. 말하자면 북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는 모두 조선민주여성동맹 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들어가거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한 집안 식구라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각자의 나이와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소년단원/ 청년동맹 맹원/ 직맹-농근맹 맹원/ 여맹원/ 당원 등으로 소속이 다른 상태에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북한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감당해야 하는 운명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출생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망라되는” 조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민반이다.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인민반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곳의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통

6 북한당국은 정권 수립 초창기부터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흐름은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로동신문』, 2014년 9월 5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던 북한당국은 2002년 9월을 계기로 소학교와 중학교로 바꾼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김정은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인 것과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 사업임을 밝혔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북한당국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6년제 고등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분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이후 북한당국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했으며 2014년 1월 27일과 2017년 4월 1일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조선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체 106(2017)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다” 하는 소식을 내보기도 했다. (북한정보 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해 드러나는 평범한 사람들 일상생활 모습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민반 조직과 얽혀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는 정도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 중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인민반 조직의 통제를 합법적으로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고향 마을을 떠나 멀리 떨어진 대학에 합격한 뒤 그곳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거나 다른 지역 직장에 배치 받아 “독신자 합숙” 생활을 하는 경우 정도이며 그 이외에는 모두 인민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절대 다수의 북한주민은 인민반 소속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나이와 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중적인 조직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

북한에 살면서 인민반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순 없죠. 일단은 누구나 다 인민반에 소속해 있어야 합니다.

”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인민반이야말로 북한 특유의 행정조직으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행정조직 역시 동(리) 사무소 산하에 통/반 조직을 두고 각 반에는 반장, 각 통에는 통장을 맡은 사람이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 사회의 통장이나 반장은 북한의 인민반장과 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부각시킬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런 조직의 실체를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하겠다.

어쨌거나 이런 차이에 따라 탈북 이후 국내에 입국한 뒤 일상생활에서 가장 해방감을 느끼는 일 가운데 하나로 매일 새벽 집 앞 청소를 하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인민반장의 목소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았다. 북한에 사는 동안 동네 인민반장이 이것저것 내라 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자주 동원을 나오라고 “들볶아대는 일이 많은지 없는 살림에 정말 힘들었다” 하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하소연이었다. 어쩌다가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며칠 집을 떠나 장사를 하러 나가려 할 때 마다 감시하는 인민반장의 눈길을 피해야 하고 혹시 “재수가 없어서” 걸린다고 해도 자신의 사정을 봐주도록 여건을 만들어 두려면 미리미리 그 사람 마음을 달래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북한주민은 누구나 인민반장한테 늘 “뭐라도 가져다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심초사 하면서 살게 된다고 했다.

인민반장과 얽힌 사연을 들려주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은 많고 또 많았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인민반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로 구분해 놓고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1

# 우리 동네 인민반장

### 2-1-1 | 인민반장의 역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자신이 살던 동네의 인민반장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하는 사례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반면에 대놓고 “인민반장은 다 밀정이나 스파이”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꽤 많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인민반장이란 “남의 피를 빨아서 동사무소 시키는 거 달성하느라고” 사람을 괴롭히는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특히 가족 중에 탈북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꼬리가 붙어서” 그 집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인민반장의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

그렇지만 인민반장은 다 스파이라 말입니다. 아차, 너 어디... 우리도 식구 중에서 중국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언제부터인가 OO 엄마도 중국에 갔다고 소문났다 말입니다. 저 집도 엄마하고 동생이 중국에 가서 행불이 됐으니까 감시대상이 되는 것이죠. 감시대상 만났으니까...

”

실제로 인민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려주는 이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지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드살이 센”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분배 물품을 나눠 주지도 않은 채 “수표부터 하라고” 중이장만 들어밀고” 다그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다” 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릴 때 최대한 저항한다고 해 보더라도 그저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집에 사람이 없는 척 하고” 숨어 지내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인민반장이 매일 와요. 대체로 집안에까지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반장이 와도 다 시끄러우니까 대답 안 해줄 때가 많죠. 문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고 뭐 저 필요할 때는 뭐 문 열어 주고 반장이 오는 거는 돈 모으러 오지 않으면...

장마당 장사에 밑바닥에 놓인 사람들은 시장 단속대에 뜯겨, 보안원에 뜯겨, 보위원에 뜯겨, 무슨... 무슨 하다못해 동네 누구 인민반장한테 뜯겨...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이 먹이사슬의 밑에서 도저히 헤어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장사가 될 리가 없어.

7 북한에서는 서명을 한다는 말을 수표한다는 표현으로 쓴다. 그런데 인민반장이 주민세대에 배정하는 물건은 주지 않은 채 종이에 서명을 하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할머니가 인민반장이었는데 4월 15일 같은 때 비누 반으로 잘라 두 집이 나누어서 가지고 성냥도 나누어 가졌다고 하라고... 인민반장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받았다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인민반장도 위에서 내라고 하니깐 그렇게 하겠죠. 주민들 동태도 감시하고... 안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찍어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인민반장을 만나지 않고 무조건 피해 다니려고 해도 끝까지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차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인민반장을 만나야 할 일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들은 힘주어서 강조했다. 북한에서 살다 보면 어차피 인민반장의 감시를 피할 길도 없거니와 또 인민반장의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평소에 사이가 틀어지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인민반장들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어딜 가는 것도 증명서 떼려면 인민반장 수표가 있어야 해요.

인민반에서 반장 권한이라는 게 보위부, 보안서가 늘 그 사람들하고 지껄이니까... 막 해코지하는 것도... 이게 인민반장들이 사실 밀정이죠. 결국은 인민반장들이 다 밀정인 것이죠. 그니까 그 집이, 인민반장들 권한은 아무

때나 문 두드리고 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인민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있는가 하고 확인하죠. 그래서 30원씩 월급 주는기죠. 그니까 수시로 그 집이 비었는가 그 다음에 보위부나 보안서가 니 어느 집이 이상한데 그 집에 자주 가봐라. 움직이는 동태가 보이지 않나 봐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니까 중국으로 갈 기회가 보이거나 이런 집은 자꾸 이렇게 자기네 집 재산을 장마당에 팔아요.

또 세대별로 주민들 동원시키는 것도 인민반장 역할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인민반에서 생활총화 할 때도 그렇고 재판받을 때도 인민반장 역할이 커요. 동네에 검사라든가 변호사가 내려가서 만나요 반장을... 그 사람하고 틀리게 지내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인민반장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양하고 특수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그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황이 그런 만큼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평범한 옆집 사람이 말리면 듣지 않아도 인민반장이 찾아와서 한 마디 하면 “내심 속으로 싫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듣는 척이라도” 해야 후환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 인민반장이 찾아오면 누구나 나중에 벌어진 일을 생각해서 그나마 문이라도 열고 어느 정도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면서 성의는 보인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옆집 사람이 반장한테 말하거든요. 그럼 반장이 와요. 반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세대주라도 일단 응하거든요. 반장하고 잘 못 싸우기라도 하면 분주소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이 오면 그나마 문이라도 열어주고... 반장이 말리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죠.

”

그렇지만 인민반장의 역할이 주민세대를 감시하고 동원하는 일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말해 주었다. 북한당국은 인민반장을 통하여 각종 배정표를 주민세대에 나눠 주기도 하고 인구통계를 “장악하는” 일도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2002년 들어 북한당국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sup>8</sup> 시행에 돌입하면서 인민반장을 통해 개략적인 수준의 인구통계를 산출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배정표를 발급하는 기관은 인민위원회 상업과인데 실제 세대에 주는 건 인민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70년대 당시에도 양복기지나 이런 거는 매

<sup>8</sup>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1일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에 돌입하였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량, 생필품 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② 식량 및 생필품 가격의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의 변화 ③ 직종,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성과 등에 따른 임금현실화 ④ 암시장 가격에 근접한 수준으로의 환율 변화 ⑤ 기업의 자율성 확대 ⑥ 실질적 시스템을 강화.

세대에 무조건 공급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 달에는 몇 세대, 4달 있다가 나오는 건 몇 세대. 이렇게 회전하죠. 몇 세대씩 나오는 기준이 매달 다 다르고 그때마다 물건이 나오는 숫자가 같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는 방직공장이 팡팡 돌아간다고 선전하기는 했어도 북한은 경공업이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 했었어요. 김일성시대나 김정일시대에도... 그때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데트론이나 뭐 이런 거 들어왔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해서 들어오는 양에 한해서 배정표가 달라져요.

인구통계를 자주 냈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우리가 맘대로 인구통계를 낼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통계국이 아니니깐. 근데는 위에서부터, 상업부는 인민위원회 상업부는 공급량만큼 받았으니까 그걸 재로 공급하는데 책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한테다가 우리는 우리대로 통계를 내라 또 이렇게 지시를 주는 것이죠.

2002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인구통계를... 자주 안 했어요. 그거는 그저 정말 인민반장들을 믿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동사무소가 여기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까지는 최첨단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단위가 많아요. 인구통계 가지고... 그니까는 동사무소, 구사무소, 동사무소, 리사무소 이렇게 사무소들이 있죠. 그니까 통계도 순 사무통계만 가지고 통계 장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소 통계해라 그 다음에 상업통계해라...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각 단위에 배급

소, 식량 공급하는 배급소. 식량 공급단위. 그 다음에 양전단위, 양전단위라는 게 이렇게 각 배급단위, 공급단위의 식량을 내보내는, 예 거기죠. 그 단위에 일체 인구통계를 다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평균 때리죠. 다 그게 딱 일치하게 맞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균 때려서 현재 유동인원이 이렇게 되겠다 추정하는 것이죠.



### 2-1-2 | 인민반장의 유형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민반장이 모두 똑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어려운 세대의 형편을 배려하느라 어디 동원을 나가거나 뭘 내라고 할 때 나름대로 여지를 두고 인민반 내에서 형편이 딱한 사람들 사정을 어느 정도 봐주는 인민반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렇지만 대다수 면담 대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인민반장 일을 하려면 그야말로 사람이 “교활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본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시키는 과업을 다 감당하려면 인민반장이 교활하고 악랄해지지 않으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인민반장이 “교활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돈을 갈취해 내지 않으면” 그만한 과업을 다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회상하는 인민반장 유형을 구분해 보면 온순한 인민반장, 밋상 인민반장, “사람 잡아먹는 인민반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심층면담 과정에서 인민반장이 온순하다거나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유난히 강조했던 분이 몇 사람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관계인 경우가 많아서 그다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서도 인민반장을 옹호하거나 칭찬하는 사례는 사실상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

우리 엄마 인민반만 천리마인민반 마지막까지 못 타는 거 봤어요. 그때 천리마인민반 그런 운동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온순해가지고... 인민반 동원이랑 잘 나가고 그래야 천리마인민반을 타죠?

”

기본적으로 인민반장이 주민들 속에서 “몹상을 당하는” 이유는 끝없이 이어지는 동원 때문이라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강조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뭘 내라고 하거나 아침 일찍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청소하러 나오라고 강요하는 인민반장의 모습은 누구도 달갑게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

그 다음에는 인민반장 자체는 또 인민반에서 거두라는 게 많단 말입니다. 무슨 뭐 혁명역사길이라고 그런 거 만든다고 거기 필요한 지원품이요, 무슨 어디메 연구실 무슨 품이요 하면서리 지원품 내라는 게 뭐 많습니다. 그 거 다 반장이 걷는단 말입니다.

인민반장이 젊은 애기 엄마였는데 밭상을 당하는 게 자꾸 국가에서 뭘 내라고 하고 아침마다 청소하라고 종을 두드리고 도로를 깨끗이 쓸어야 하고, 심지어 군부대 건설하는 것도 인민반에서 동원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여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신고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집 사모님이 인민반장을 하셨죠. 되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교양이 있으셨어요. 다른 분은 오면 사투리로 막 이야기 하는데 이 분은 집을 댁이라고 했어요. 되게 인상이 깊어요. 그 할머니가 항상 한복을 입으시고 인민반을 돌아다니셨는데 교양 있게 말씀하시지만 만날 뭘 물어 내라는 얘기죠.



게다가 인민반장은 동사무소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척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내야 할 몫은 내지 않고 다른 집에 다 떠넘기는 일이 많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었다. 인민반장이 뭔가 주민세대를 속이면서 자신만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막상 그 실상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더 밭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실제로 인민반장이 주민세대에 공급이 돌아가는 것을 대신 받아다 주겠다고 먼저 “수표를 받아간 뒤” 그 몫을 자기가 착복했다가 들통이 나는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많았다. 물론 예전에는 인민반장이 하는 일에 의혹이 있더라도 평민/ 평백성/ 하바닥 사람<sup>9</sup> 처지에서 감히 나서서 그 배경을 확인해 보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없었으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간혹 이런저런 의혹을 내세워 항의하

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 인민반장도 맞서 동사무소 찾아가 확인해 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맡지도 않은 평민/ 평백성/ 하바닥 사람 처지에서는 “동사무소 문턱을 넘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인민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어떤 때는 아... 맨날 인민반에 참가 하라지... 그러니까 어떤 땐 돈을 가지고 나를 좀 참가시키지 말고 나를 좀 어떻게 좀 빼놓소. 응, 응, 알았어, 알았어 하고 또 한 달도 못가서 또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구실이 꼭 있대구요. 무슨 지역구, 무슨 지역구, 무슨 어디메 아이들 선물 달라 오는데 무슨, 디젤유 2병 내는데, 이 값이 얼마다, 얼마다 해서. 다 긁어가지고 또 돈 내라는 거야. 이미 전에 돈 낸 건 모자란다는 거지. 그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거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게 맞단 말입니다.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내 이렇게 떼먹었던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동에 가서 우리 요렇게, 요

9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북한에서 간부와 평민/ 평백성/ 하바닥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구분해 주었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이들이 누리는 사회적 위치에 이르기까지 간부와 다른 사람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입학 추천을 받는 것부터 직장 배치, 직장 내 승진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간부와 간부집 자제는 평범한 인민과 다르게” 일상동안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들려주는 면담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비록 공식적으로 “간부는 아니지만 어떤 간부도 자신을 일반 평민처럼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계층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렇게 냈습니다. 체크 못한단 말입니다. 반장이 조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내가 확인 좀 해보겠다 이럴 순 없어요. 내가 뭐 반장 아니고 내가  
책임자 아닌 이상 가서 뭐 내가 낸 거 이거 확인해보겠다는 말 못하지.

그래 인민반장한테다 돈을 줬는지, 떡을 줬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아  
무개 엄마는 인민반 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라는 거 뭐 강냉이를 한 킬로씩 내라, 그러면 그 인민반이 다 잘 살 순 없  
단 말입니다. 한 50%는 못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냈다 하면, 다 한  
킬로씩 걸어 가지고 절반 그거 보태야 된단 말입니다. 아, 요렇게 산단 말  
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 꽤빚하더라고. 난 인민반장 하래도 그건 사람들  
다루기 힘들어서 못 하는데...

인민반장이 마지막에 국가배급 못 들어가고 하니까 도장, 여기서 도장이  
라 해요? 그걸 가져와서 공급대장에 자기 딱 도장을 찍고 기름 타간다 무  
슨 뭐 사탕가루 타간다, 뭐 돼지고기 타간다 이렇게 공급을 받아간다 이렇  
게 했어요. 어떤 때는 반장이 자기가 타다 준다면서 오거든요. 빈 세대 집  
들 꺼. 그래 그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보거든요. 그 후에 나  
타나서 우리는 왜 안주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장이 싸인 받  
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책임을 우리 그때는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가 골탕 먹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타먹었다 하면 그저  
장마당 나가 사자고 100원 주고 사는데 여기는 10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걸 값 싼걸 먹자지 왜 안 그걸 안 찾아 먹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오  
거든요. 와서 달라고. 이미 받아갔어. 누가 받아갔냐. 그러면 반장이, 방법

있어요? 반장이 잘못했다 자기 사서라도 먹을 거래도 줘야죠. 그런 부정이 있기 때문에 막 삼각으로 막 이렇게 들입다 끊게 만들어 놔거든요.

인민반장이 와서 내라고 하면, ‘전에도 냈는데 왜 또 내나요’ 그렇게 야단 하면 ‘아이, 그거 내가 우리 집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나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걸 의심스러우면 동사무소 가보세요’ 하고 또 야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람 잡아먹는” 인민반장이라는 표현이 드물지 않게 등장했다. 이 표현의 의미는 평소에 인민반장이 주로 하는 역할은 주민 세대 사정을 계속 감시하는 일인데 그러다가 “작은 꼬투리를 잡기라도 하면”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원에게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게 한다는 뜻이었다.



인민반장이 제 친구 엄마였는데 다 알죠. 한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을 참 많이 잡아먹었어요. 신고를 해요 누구네 집에 낫선 사람이 왔다 하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오면 어떻게 아는지... 신고할 것 없을 때에는 신고할 꾀리를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그 여자가 옷을 잘 차려입고 보안소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벌써 뭘 하러 가는지 다 알아요. 보위원하고 친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민반장을 미워했어요.



### 2-1-3 | 인민반장의 위세

대다수 면담 대상자는 북한 사회에서 인민반장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아무리 인민반장부터 비법을 해야 먹고 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지만<sup>10</sup> 이들은 “요란스럽게 법관한테 단속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잡혀가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모를까 그 이전에는 인민반장 정도 된다면 비법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바닥 사람처럼 법에서 취급하는” 꼴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상적 특권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사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접견자<sup>11</sup>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잘못을 하더라도 인민반장 자리 정도는 맡게 해주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저희 때 인민반장은 할머니였어요. 김일성 접견자였어요. 원래 접견자는 그렇게 안 사는데 아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패싸움을 하다가... 그럼 접견자 지위... 그거를 박탈을 해요. 그 대신 죄를 어느 정도 사면을 해주죠. 같이

**10**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북한에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비법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일상적으로 비법 수단을 동원하거나 비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살아 남을 사람이 없다고 이들은 강조하였다.

**11** 북한당국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최고지도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접견자” 호칭을 부여하고 이들의 생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일단 접견자 호칭을 부여 받은 사람은 대학 진학과 직장 배치는 물론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특권을 누린다. 한편 이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를 가법게 조정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죽인 두 명은 사형을 당했지만 그 사람은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도 접견자 아들이니까. 그 때부터 선물은 안 내려왔지만 접견자니까... 인민반장은 했어요.



결국 북한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늘 인민반장에 게 “아침을 하면서” 지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어쨌거나 평범한 사람이 북한에서 “숨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살려면 인민반에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인민반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평소에 뭐라도 받아 먹은” 인민반장은 대체로 그 값은 하는 편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그러니까 인민반장한테 항상 아침하지 뭐. 먹을 거 생겨도 그래, 어디 갔다 오기라도 하면 인민반장 올라오라 그러죠. 또 올라오면 이걸 오늘 저기서 누가 주는데 먹으라고 건네기도 하고... 우리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먹자, 이거 반장네 아버지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러면 또 자기네 아버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반장네 입을 막게 해두어야...

인민반장이 전화 해주거든요. 검열 다닌다고 그러면 그 씨디알을 그냥 다 치우면 되요. 그냥 다 감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인민반장을 대접한다고 해서 “도에 넘치게 잘 해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하는 면담 대상자도 많았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늘 걱정한 선을 “예술적으로 잘 지키면서” 인민반장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생각하며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2</sup> 자칫 집안에 너무 값이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실을 인민반장한테 들켜거나 비싸고 좋은 음식만 먹는 집으로 소문이 나기라도 나면 이른바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명목으로 “비판무대에 세우기도 하고” 불시에 검열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예술적으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잘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장마당에 한 번 갔다 오려고 해도 벌써 산다는 축에 속하니까 산다 하는 표시를 못해요, 인민반에서도...

**12**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북한에 사는 동안 뇌물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던 행위를 가리켜 “예술적으로 선을 지킨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다. “비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북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힘을 가진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필수적인데 누구에게, 언제, 어떤 유형의 물품을 주어야 하는지, 달려나 위안화 중에 어느 유형의 외화로 얼마쯤 가져다 바쳐야 하는지 결정하는 행위는 따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늘 “예술적으로 선을 지켜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예술적으로 선을 지키지 않으면 자칫 뇌물을 바쳐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자칫 큰 손해를 입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었다.

인민반장이 찾아오면 먹을 걸 좀 내놓기도 하고... 그저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벌써 인민반장이 문 두드리면 문 열기 전에 잘 해 먹던 거 있으면 그거 좀 적당히 치우고서는 좋은 표정을 짓고 먹던 상이니까 “같이 먹자” 하고 권하지만은 아주 좋은 거는 못 내놔요. 주고 싶어도 못줘요. 인민반장한테 꼬투리 잡혀서 혼나게 될까봐... 북한에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 2-1-4 | 인민반장 위세의 하락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인민반장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위세도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은 북한사회도 달라져서 예전처럼 인민반장이라는 지위 자체만 가지고 사회적 위세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인민반장을 우습게 보는가 하면 반장이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적당히 무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인민반장네 집이 되게 못살았는데... 자꾸 망가지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근데 그 집은 좀 살림살이가 형편이 좀 어려웠죠. 남편이 없었고, 딸 데리고 혼자서 인민반장 해서 먹고 살고... 별면 죽쳐먹고 애는 어떻든지 간에... 담배 피고 조금 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집은 조금 안 좋았었어요.

80년대, 90년대, 96년도 이전에.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인민반장 별 볼일 없어요. 인민반장은 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정도...? 그냥 뭐 인민반장을 내가 먹여 살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인민반장이 너 장사하지 마라. 통제하는 것 아니고. 아침동원이나 청소는 자기 구간이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서 하고 내가 불가피하게 뭐 일이 있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런 사회적 흐름에도 예외는 있었다. “인민반장이라고 해도 똑같은 인민반장은 아니라서” 평양시 인민반장은 아직도 그 권위가 대단하다고 했다. 자칫 “인민반장 눈 밖에 나는 날에는 평양시 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평양을 벗어난 지방에서는 인민반장의 권위가 아무래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이었다. 말하자면 똑같은 인민반장이라고 해도 직위가 높은 간부를 남편으로 둔 인민반장은 더 대접을 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예전처럼 인민반장이 동원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대신 “세대주가 힘 있는 기관에 다니는 집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누구네 집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 나가지 않는다고 뭘 그렇게 난리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나름대로 협상을 시도하는 추세가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만약에 인민반장이 경제력이 있고 뭔가 남편이 직위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좀 차원이 다르게 대상을 하겠죠. 근데 저희 인민반장은... 인민반장이 어... 니 그래 어쭙 좀 말 잘 안 듣는구나... 북한은 코걸이 귀걸이 그냥 걸면 거는 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 뭐 검찰소다. 이러면 나가서 한 톱 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민반장 자체가... 시장에 나가서 독초를 판매했어요.<sup>13</sup> 시장 나가서... 그거를 팔고 막 이랬으니까.

반장 자체가... 우습게 보이고... 근데 드살은 썼어요. 막 어떨 때 보면 동원 나오라 했는데 안 나갔고 그러면 안 나간 세대를 찾아서 꼭 아침에 문 두드리고 찾아다니거든요. 왜 안 나왔냐. 그럼 그냥 얘기를 하죠. 이래이래서 못나갔다. 그러면 어... 다른 세대는 이렇게 그랬는데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서로에게 북한은 감시를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말하면 이게 내가 진단 말이죠. 그니까 아침동원 이렇게 좀 나가면 어느 세대 나오고... 주로 간부집 아줌마들 잘 보죠. 어... 시 당 아줌마 나왔나? 검찰소 운전수 아줌마 나왔나? 이렇게 보고... 보통

**13** 북한에서 독초라는 용어는 독한 담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주민은 독한 담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초라고 하면 공장에서 정식 제품으로 만들어진 껍련형 담배가 아니라 농가에서 재배한 잎담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마당에 나가면 담배장사 하는 여자들이 잎담배를 쌓아 놓고 팔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번 피워보라고 마라초 형태로 만들어 건네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흑시나 해서 안 나갔고 뭐 아무개 세대도 누가 이렇게 몇 번 안 나오고 했던데, 우리가 한 번 안 나갔다 무슨 큰 일 나는 것처럼 그러냐고. 그 집은 그렇게 안 나오는 대신에 인민반을 위해서 뭘 크게 이렇게 한다. 그럼 나도 다 빼 달라. 내가 돈 벌고 사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할게. 한 번 빼달라고. 어느 세대나 다 그렇게 해주면 이거 아침동원 누가 안 나가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인민반을 위해서 크게 할게. 일 년에 한두 번만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인민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북한당국도 적절하게 “돈이나 식량을 조금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역할을 해 줄 인물을 찾아나서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뭘 챙겨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인민반장을 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서 유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회 분위기가 변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돈을 조금 주니까 하지 인민반장하기 다 싫어해요. 그 사람들을 동원시키려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안주면 너 저가 김매라 뭐해라 좋을 택 있어요? 안하지. 사람들이 인민반장 말을 그저 억지로 듣는 편이지. 가서 돌아왔으면 모두 다 미워하지.

인민반장은 다 교활하죠. 그저 동(사무소) 지시에 충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동에서는 그래도 인민반장한테 하루에 200그램이라는 그런 식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타는 것보단 낫단 말이에요. 그래 인민반장이 또 그렇게 살죠.

원래 반장도 다 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반장들은 제대로 안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의 행군 지나고 나서 반장은 뭐 좀 별도로 줘요. 배급이랑 반장비용이랑 좀 주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죠. 반장한테 주는 쌀도 타고 인민반에 곤란한 세대한테 배당하는 식량도 조금씩이지만 나오기는 하죠. 그걸 반장들한테 포치를 하는데 그럼 반장들이... 여러 사람들은 그게 나오는 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돈을 내는 것도 안 내는지 내는지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고. 반장 너도나도 다 안하겠다. 그러니까 반장을 하계끔 만드느라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 2-1-5 | 인민반장의 임기와 은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반장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동사무소에서 말을 잘 듣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별다른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무소 관점에서는 인민반장을 바꾸면 한동안 적응해야 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동안 귀찮은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문제를 만들려 하지 않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그 반면에 인민반장 역할을 계속 맡으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가 자신에게 맡겨 준 임무를 “지나칠 정도로”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충성심을 겉으로 표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

인민반장? 은퇴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은퇴라는 게 뭐 정해진 거 없고 능력 없고 나이 먹었고 그러면 그만 뒤야 되는데 등에서 그냥 시켜주니까. 그 할마니가 또 동지도원들한테 또 뭐 딸이 결혼식하면 뭐 무슨 뭐 3천원짜리를 바치고 하니까 어찌고 하니까. 우리 인민반에서 그 마이 충실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

## 2-2

### 인민반의 임무와 역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인민반이 감당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은 그야말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 경험담을 종합해 보면 인민반의 역할을 크게 분배/검열 및 감시/동원/문건 만들기/회의와 조직생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 2-2-1 | 분배

먼저 각 세대별로 과일이나 남새(채소), 생선 등 다양한 생필품을 분배해 주는 마지막 단위가 인민반이라서 결국 인민반장이 그런 물품을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동사무소나 상업공급망에서 인민반장을 통해서 배정표를 분배하면 각 세대는 그 배정표와 돈을 가지고 해당 상점을 찾아가서 미리 정해놓은 분량만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사회가 움직인다는 것이었다.<sup>14</sup> 간혹 무료로 배정해 주는 물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배급체계는 항상 배정표와 함께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야 미리 정해 놓은 분량의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식량공급소

급수별 1일 식량 공급량

급수	공급량	대상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 운반공, 중장비 운전사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 근로자, 환자
5급	500g	중학생
6급	400g	소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 유치원생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1일 식량 공급량 기준

<sup>14</sup> 식량공급소 + 1일 식량 공급량 기준



이렇게 상점에서 배정표로 나와요. 인민반별로. 그 인민반별로 나오는 배정표를 인민반장이 세대별로 나눠주면 그걸 상점에 가져가서 배정하는 물건을 사고...

인민반에서 세대 당 얼마씩 나눠주라는 딱지가 내려와요. 그걸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가져다 주면 그 딱지를 가지고 과일-남새 상점에 가서 자기네 식구 수만큼 배정한 몫을 받아오는 것이죠.

인민반에 말하지. “오늘 된장 공급 있으니까 식구별로 500 그램씩 주니까 타가라” 그러면 인민반장한테 가서 타고... 김장때는 “소금도 매 세대에 한 사람당 500씩 주니까 식구별로 나와서 타가라” 하면 그만큼 타가지고 온 다음에 모자른 건 장마당가서 사고. 그렇게 했었는데... 상점에는 기본 파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양복감 이런 거 몇 개 인민반에 나왔다 하면 그 인민반장한테다가 그 인민반에 3세대를 이 양복 기지를 배정한다. 그러면 인민반 회의를 소집하고 인민반 생활에 제일 잘 참가한 세대부터 그걸 또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배정표를 가지고 상업에 와서 돈 내고 받아가지요. 상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동사무소는 또 배정표 내보낼 때 모든 인민반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인민반장 생활을 잘 하는 곳에다가 우선권을 주는 원칙을 내 뒀어요. 그렇게 해야 그 상품을 배정받기 위해서 또 인민반장이 잘 움직이니까 국가적으로 잘 통제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각 세대별로 “표를 골고루 배정해 주어도” 그나마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의 배를 불러 주는 통로가 될 뿐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표는 배정을 받았어도 그 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당국이 인민반을 통해 주민세대에 분배하는 표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sup>15</sup> 값으로” 물건을 살 권리를 보여주는 증명서일 따름이다. 막상 원하는 물건을 각자의 손에 넣으려면 배정을 받은 그 표와 함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국정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같이 준비해서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 집에서는 “훨씬 낮은 가격이라고 해도” 국정가격을 부담하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배정해 주어도 그 물건을 살 권리를 포기하거나 싼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 한다고 했다. 당연히 그런 표를 싼 값으로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또 언제나 “때를 맞추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요즘 북한에서는 이른바 돈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여러 사람이 주장했다.<sup>16</sup> 이들이 다루는 돈의 규모는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돈주가 “척 나서서” 가난한 사람이 포기했던 배정표를 다시 사들인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이윤을 붙여서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현상이 늘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돈주가 그 차액으로 막대한 규모

**15** 값이 높다 하는 표현은 값이 싸다, 값이 낮다 하는 의미로 북한사회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용어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값이 높다 하는 표현은 자주 등장했다.

의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로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장이었다.

“

평양시도 옥류관, 청류관, 국수집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평민이 옥류관 국수 못 먹습니다. 일반 사람들. 이 표가 인민반 별로 배정되어 나오기는 합니다. 원료가 적기 때문에 옥류관에서 국수 많이 만들지 못하고, 하루에 1000 그릇만 나갑니다. 그 표 가진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표를... 어떤 사람들은 배정되어 있는 표도 아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비싸서 그거 사 먹을 돈 없으니깐. 그런 걸 낼 수 있는 사람은 10장이라도 사서 10배를 붙어 팔아먹는 거. 한 그릇에 천원짜리라고 하면 만원까지 그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그걸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깐 부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식당... 옥류관 그 국수 먹어 못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

면담 대상자 중에는 1990년대 중반 “미공급” 시기<sup>17</sup> 이전에 인민반 공급을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예전에 물자가 풍족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시절이 좋았다고 회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민반을 통해서 각 세대에 전달해 주는 분배의 유형이 정말 다양해져서 단순히 물품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었다. 인민반장을 통해서 분배해 주는 내용물이 생필품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 몇

사람을 들이고 며칠 동안 숙식을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이었다.



생산해가지고 또 인민반 공급으로 월에 기름 한 사람당 250그램이다, 200그램이다 이렇게 공급은 했습니다. 인민반 공급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순순하게 열심히 그저 공장기업소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일한 거만큼 보수를 받는 거는 그 시절이 쟈 좋았다. 그랬습니다.

80년대 당시에는 아빠 직장에서도 공급해줬고 인민반에서도 공급해줬는데, 그 동태를 너무 쥐가지고 엄마가 그 다듬어야되는데 이렇게 블록 이렇게 큰 덩어리, 딱딱하게 얼은 블록 모양 크기의 이만한 거 한 짹씩 주

**16**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북한사회에서 돈주라는 용어는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장마당에서 활동하던 상인을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돈주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1992년에 발행한 『조선말대사전』 해당 부분을 찾아봐도 돈주라는 단어는 올림말에 나오지 않는다. 반면 2006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1권 1126쪽을 보면 돈주라는 명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설명해 놓았다: ① 돈의 주인 ② (여럿이 하는 장사에서) 돈을 틀어쥐고 있는 주되는 사람.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단어가 2010년에 발간한 사전에서는 다시 사라진다는 점이었다. 돈주라는 단어가 북한당국이 발간해 내는 사전에서 왜 없었다가 나타나고 또 다시 사라지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7**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유독 미공급 시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기간을 가리킬 때 이들은 집요하게 미공급 시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방식의 용어 사용 습관은 이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당국의 공급망에 의존하여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구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거든요. 그럼 거기 한 50-60마리가 붙어있는데 그걸 뜯고 막 다듬으면 손이 막 시리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그걸 엄청 싫어하셨던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그렇게 하셔도 입쌀밥은 못 먹었어요. 그냥 옥수수밥을 막 먹었고. 그거를 명절 때면 또 그 동태를 또 말려서 기름에다 막 튀워서 그 인민반 공급이라고 주고 2월 16일, 4월 15일 이대면 뭐 사탕 1kg, 과자 1kg 이렇게 해서 한 집에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이런 벽시계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목시계를... 그 무슨 몰도바, 무슨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본인이... 그 다음에 세이코, 이런 시계를 막 여러 개 인민반에서 나오면 한 집에 하나씩. 나는 스위스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다 이렇게 적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그거를 개수를 가져오면 나눠주고 그다음에 양복지라고 하는데 옷 만들 수 있는 옷감... 네 그것도 나눠주고 운동복도 위아래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답사 숙영소라는 게<sup>18</sup>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리가 없으니까 여관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고, 그 자리도 모자르면 어디다 놓냐 하면, 개인 집에 넣어요. 우리 집도 그 때, 답사생 들어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 애들 몇 명 들인다 해가지고 준비하느라... 그때 3명인지 4명이 들어와서 한 2-3일 자고 가더라고... 그런 걸 이제 뭐 인민반 통해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간부집을 중심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를 1-2명씩 각 세대에 받아들여 양육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는 풍조가 한동안 퍼졌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고등중학교 졸업을 6개월 정도 남았던 시점이었고 졸업하면 엄마가 일하던 곳에 직장 배치를 받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굳이 꼭 남의 집 입양을 갈 필요가 없었는데” 재산을 노린 친척과 출세를 위해 “장군님의 친필편지를 받아야” 하는 간부가 공모해서 이미 다 성장한 형제자매를 모두 그 간부의 집으로 입양을 보냈다고 하는 면담 대상자도 나타났다.<sup>19</sup>

## 2-2-2 | 감시와 검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관점에서 볼 때 인민반장의 주요 임무는 물품을 분배하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주민세대를 감시하고 그 동향을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 동사무소에 수시로 보고하는 일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한 마디로 인민반장은 모든 주민세대를 감시하

**18**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행적을 배울 것을 강조하면서 모범 학생과 청년을 선발하여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명목으로 그가 일제 강점기 만주로 떠났다는 길을 그대로 따라 행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이외에도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흔적을 찾아다니거나 김정일이 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답사하는 기회도 모범 시민과 학생에게 제공할 따름이다. 개인적인 여행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이런 답사나 행군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이런 답사 행렬에 참여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숙식을 하는 장소가 바로 숙영소라는 곳이다.

**19** 이런 흐름은 아마도 “미공급” 시기로 부르기도 하는 고난의 행군 무렵 더욱 극성을 부렸던 것 같다. 당시 북한당국은 이른바 “장군님 식솔” 같은 명분을 내세워 여러 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돌보는 여성의 행위야말로 “모든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하는 아름다운 소행으로 적극 장려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 내 유일한 여성 조직인 조선민주녀성동맹에서 발간하는 북한 내 유일한 여성잡지인 『조선녀성』 1996년 3호는 “장군님 식솔: 25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는 중앙은행 평안남도 총지점 지도원 리복동 동무와 그의 안해 김채분 동무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소개하며 이들의 행위를 따라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주민세대를 감시하는 방법은 많고 또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민반장을 앞세워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숙박검열<sup>20</sup> 한다는 사실은 북한사회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는 관행이라고 하겠다.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거 같아요. 인민반장이 갑자기 집집마다 다니면서 숙박검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숙박검열 한다고 사전에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네... 그렇게 숙박검열 할 때 집안 식구 외에 다른 사람이 있나 보고 이상한 물건이 있는가? 네. 그런 거 다 찾아봅니다. 우리 집은 아무래도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무슨 그런 역사문화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골동품.<sup>21</sup> 네. 네. 근데 주로... 그렇게 갑자기 숙박검열 하는 이유도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는 집이 있거든요? 그 숙박검열이라고 할 때 재빨리 움직여야 되죠. 딱 문을 두드리면서 숙박검열 왔습니다 하면서 인민반장이 검열성원 앞세워서 들어오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되게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떠나지 않고 북한 사회에서 잘 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규칙 같은 게 많죠.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는데 막... 막 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인민반장이 막 “빨리 청소하러 나오세요” 이러거든요? 인민반장이? 그래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인민반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저희 숙

박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때 “저 집부터 들춰” 이러거든요? 그런 말 있  
 잿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평범한 인민은  
 되게 불리해요. 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떤 죄를 뒤집어쓸지 모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사형 당하는 애들이, 이런  
 집에서 걸리는 일이 많잖아요. 실제로 뭐, “많은 돈을 받고 여자들을 중국  
 에 팔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뭐 중국돈으로 2~300원 밖에 못 받  
 은 사람들이 재수 없으니까 걸려서 죽는 거예요.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면  
 서 그냥 기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대개 안 죽어요. 근데 그... 내가 말했  
 잿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장기적인 보장은 없다 이랬잖아요. 그런 사람도  
 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이죠.



**20** 북한주민은 누구나 숙박검열 관행에 익숙해져 있다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대다  
 수가 말해 주었다. 면담 대상자가 지적한 것처럼 숙박검열은 사전통보 없이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불쑥 들이닥쳐” 그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이외에 누가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당연  
 히 검열단이 나오는데 주로 외지인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외  
 지인으로 이루어진 검열단 성원들이 개별가구에 누가 사는지,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파악하  
 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민반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 주민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주 숙박검열을 당한다고 했다. 특히  
 평양주민은 숙박검열이 나오는 날은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기운을 느낄 정  
 도로 단련이 되어 있다”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21**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골동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일이 북한주  
 민에게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떠올랐다. 당시 개성 인근에 살던 사람은 물론이고 북한 전역에  
 서 몰려든 장사꾼 무리는 이른바 “골동” 장사에 몰입했다. 그동안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  
 았던 옛날 그릇이나 그림, 병풍 같은 물건을 넘겨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  
 은 골동 장사꾼이 수없이 개성 인근으로 몰려들어 끝을 날카롭게 다듬은 긴 막대기로 고분 근  
 처 지역을 넓게 찌르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골동품을 발견하면 국경지역으로 옮  
 겨와 중국에 넘기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당시 북한 전역에 널리 유행했다고 증언하는 사  
 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민반장이 유능하거나 지독하다고 해도 구역 내 모든 주민세대의 집안 사정을 다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인민반장은 성분이 나쁜 사람이나 국군포로,<sup>22</sup> 북송재일동포,<sup>23</sup> 포로귀환병,<sup>24</sup> 화교의 가족은 물론이고 식구들 중에 탈북한 사람이 있는 집 등 이른바 “꼬리가 붙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동향을 늘 주시해서 감시하는 업무를 늘 철저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감시해서 주민세대의 동향을 보고하는 한편 “위에서 검열단이 나왔을 때” 앞장서서 “검열단 성원들을 안내하면서” 주민세대의 실정을 촘촘하게 파악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인민반장의 임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일 안 나가는 사람은 인민반, 일 나가는 사람은 또 직맹... 이렇게 다 그렇게 자기가 속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저희가 그 조직에서 뭐 하나라도 잘못을 하면, 저희 부모님 직장으로 바로 통보가 들어가거든요. 뭐 하나라도, 뭐 행실거지가 이상하다든가, 옷차림이 이상하다든가 하면, 바로 엄마 아빠의 직장으로 통보가 가고. 그 다음에 배급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배급표 한 눈깔을 자른다든지...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 갔다 오기라도 하면 인민반장이 곧바로 중국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일 동향보고를 하니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인민반장이고 인민반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늘 조심하고 그런... 먹는 것도 남 먹지 않는 거 너무 잘 먹는 거 조심해야 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인민반장 눈치 보느라 먹는 것도 조심스럽게 먹었어요. 90년대 대아사 하고 난 다음에는 간부집은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북한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장이 늘 “꼬리가 붙은” 집을 감시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인물은 대체로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면담에

**22** 국군포로는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괴뢰군포로라고 불렀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 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다가 북한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이들은 원래 정전협정 이후 포로교환을 통해 남쪽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 주로 탄광에서 채탄공으로 일하면서 힘들게 지냈고 그 자손들 역시 성분의 굴레에서 묶여 제대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세월을 보냈다.

**23** 북송재일동포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해방 이후 1959년부터 198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0만 여 명 정도 북한으로 이주해 간 재일조선인 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처음 북한으로 갈 때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떠났지만 현실은 누구도 돌아올 수 없었다. 또한 북한에 가면 대학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북송 이후에는 성분이 낮은 계급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늘 주변사람의 감사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다.

**24** 포로귀환병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으로 참전했다가 한국군과 연합군 포로로 잡혔는데 정전 이후 포로교환 과정을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을 가리킨다. 오랫동안 북한사회를 연구해 온 나도 포로귀환병이 왜 북한에서 성분이 나쁘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이른바 남조선에서 간첩 임무를 받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하는 의혹을 내세워 가장 낮은 성분을 부여하고 평생 탄광 노동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감시해 왔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말해 주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같은 인민반 내에 “꼬리가 붙은” 집이 있다고 하면 굳이 자신은 그런 집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주변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칫 “꼬리가 붙은” 사람과 어울린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거니와 쓸데없이 자신의 행동도 인민반장의 감시를 당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삼촌 통해 보낸다는 것은 인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 돈 받았을 때도 옷도 좋은 거 입고 못 다니죠. 다른 애들 입을 것 만큼밖에 못 입죠. 다른 애들하고 특별하게 입으면요, 집에 혼자 사는데 엄마도 할머니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괜찮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개신민 대상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특별하게 입고 다녀도 저희는 보안원이 다 쳐다봤죠.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국군포로 자녀 만나는 걸 꺼리는 안합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기는 하지만 항상 보위원이 장사하는 그 옆집이라든가 앞집이라든가 인민반장을 통해서 그 집 동향을 수시로 보고 받죠. 그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건 없는가. 이상한 행동 하는 건 없는가. 계속 감시하고 있죠.

화교에는 감시가 붙거든요? 보안서에서 인민반에 특별 감시를 하라고 과업을 줘요.

같은 인민반이라고 해도 남의 집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인민반 사람하고 휩쓸려 다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니가 탈북하고 그때 당시에 없을 때니까요. 늘 주변 눈치를 보면서...

아파트 두 현관이 한 개 인민반이에요. 벌써 한 층에 손님이 왔다 하면 좋은 말로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도... “어디서 왔나,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벌써 과업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와서 어디서 왔나?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게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인민반장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혼자 힘으로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당국은 이른바 “그루빠” 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인민반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생활을 더욱 촘촘하게 감시하는 조치를 수시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sup>25</sup> 그 중에서도 109 그루빠와 1118 그루빠 성원의 활동은 특별히 더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 것이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25** 그루빠라는 용어는 영어의 group이라는 단어가 일본에 들어와 그루빠라는 발음으로 표기하던 것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말에 편입해 들어온 것이다. 분단 이후 초창기에는 남북한이 모두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생활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언어생활을 정리해 나간 반면 북한사회에는 일제 강점기에 사용하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루빠나 고뿌(컵<-cup) 같은 용어가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대다수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어 나왔는지 잘 모르고 순수한 우리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인민반별로 북한은 109그루빠라는 걸 모든 동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109그루빠하구 1118그루빠... 불의에 가택수색을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면 먼저 그 아파트에 먼저 불을 죽입니다. 계속 정전이 되면 불 오자마자 너도나도 먼저 TV부터 튼니다. 녹화기부터... 그리구 그걸 가서 그 아파트 달려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걸 뺏니다. 때면 녹화기에서 CD알을 뽑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밧데리도 많이 쓰는데 밧데리 충전을 못하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자체가 걸리는 일입니다. 밧데리 충전해서 쓰는 집들은 돈이라던가 간부가 돼서 쓰는 사람들은 용서받아도 북한자체 내에서 밧데리 충전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 거는 전기를 주지 못하는데 밧데리를 충전해서 등만 보라. TV를 보고, 녹화기를 보고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런단 말입니다. 불을 24시간 못주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통제하진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가려쓰라... 하면서 강하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영화보다 들키게 되는 그런 경우는 밧데리까지 전부 회수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엄중한” 수단을 동원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인민반장이 주민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누구나 이런 점을 강조하였다.

수시로 아무 집이나 들어가 숙박검열도 하는데 어떻게 인민반장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들은 아무리 촌촌하게 감시망을 작동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민세대의 비밀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

인민반장이 어느 집에서 밖에서 온 사람들이 투숙한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숙박하는 사람이 어두워서 가만히 들어온다던지, 그렇다고 인민반장이 매 집을 다 도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아마... 북한은 누가 스파인줄 모르니까. 뭐 분주소 스파이들이 있고, 보위부도 스파이드 있고 뭐, 인민반장 어쨌든 뭐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떤 경우, 그렇다고 인민반장이 하룻밤 가만히 자고 나가는 데 다 알 순 없거든요. 뭐 밤에 왔다가 밤에 나가고 뭐 새벽에 일찍 가면 인민반장도 모르죠.

이제처럼 인민반장이 모른다는 거는 예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집에서 어찌다 한 번쯤 무단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인민반장이 다 알 수 없죠. 물론 늘 대기잡하면서 외부사람 데려다 재우는 집이 어디인지 하는 건 다 알죠. 그렇지만 어찌다 한 번 어두워진 다음에 살짝 들어와서 누가 자고 가는 것까지야 뭐...

”

그렇지만 일상적인 감시에 더하여 “위에서” 검열이 내려올 때마다 앞장서서 주민세대를 살살이 뒤지는 것이야말로 인민반장이 늘 맡아서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과업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평소에 주민세대의 동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민반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검열 일꾼”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단기간에 그 지역 사정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위에서도” 인민반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북한주민은 누구나 평소에 늘 인민반장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이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

그게 000사건이라고 해요. 99년 2000년쯤... 네, 그때예요. 보위사령부 검열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중국 다니는 집 좀 잘 산다’ 인민반에서 이런 집 골라서 쪽 들어왔어요. 심술 있는 사람들은 또 짹짹아요~ 그렇게 해서 시야에 든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

한 걸음 더 나아가 외부에서 지원해 준 물품을 주민세대에 제대로 분배하는지 확인하려고 국제기구 검열이 들어올 때에도 인민반장의 역할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면담 대상자가 많았다. 사실상 인민반장의 역할로 북한당국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

주민들 의견이었다. 아마도 이렇게 정권의 약점을 감추면서 “외부인의 눈과 귀를 가리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인민반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나름대로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제 사찰단이 어떻게까지도 했는가. 그럼 그 고기 진짜 먹는가? 가정으로 방문해보겠다. 그거 참 머리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들한테 통보했죠. 통보해서 딱 사찰 받을 집만 사람 있게 하고 나머지 다 자물쇠 잠가놔요. 다 자물쇠 잠그고 집이 빈 걸로. 집이 사람 없기 때문에 사찰 받을 수 없게. 그래 그런 집이다, 그때 당시엔 가마에 솥에서 고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렇게도 해봤어요.

”

### 2-2-3 | 동원

어떤 의미에서는 인민반장의 제1임무는 감시와 검열보다 주민세대를 동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도 많았다. 도대체 인민반에서 뭘 내라고 하느냐, 무슨 일에 동원을 하느냐 같은 질문을 연구자가 쏟아낼 때마다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인민반장의 활약상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져 나갔다. 놀랍게도 철로를 보수하거나 관리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직업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일도 인민반의 주민세대를 동원하여 처리하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노력을 동원하는” 인민반장의 역할은 절

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방식의 동원 양상은 북한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회령산원이나 인민도서관 지을 때에도 그랬죠. 외부에서 돌격대가 한 번 오기는 왔어요. 정말 기술적인 거 이런 뭐 그런 거는 다 돌격대 사람들이 했지만 그 다음 나머지 그 지지부리한 그런 작업은 네... 오늘은 기업소 오늘은 학교 막 이렇게 하면서 청소하고 뭔가 또 옮기고 이런 건 다 회령시 사람들이 다 하죠. 큰 건물 짓는다고 해도 그거 다 사람들이 다 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니깐 한 90년대... 93년쯤 되려나? 아무튼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산원건설장에 막 일하러가고 그랬었거든요. 바케스 들고 막... 산원이 그랬고, 또 사람들 동원해서 인민도서관이 생겨났고요. 산원이 건설된 바로 이후에 그 전 아니면 그렇게 착착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 회령시당 책임비서 림옥봉이란 사람이 책임비서 할 때 그 때 그 인민도서관이랑 산원을, 회령산원 건설을 했어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인민반에서 파고철, 파지, 해바라기씨, 줄단콩, 피마주씨, 살구씨 무슨 백그램씩 내라, 파철내라, 파동내라.<sup>26</sup> 인민군대 지원내라. 그거 딱 내면 또 인민반 동원 나가야지. 우선 봄에부터 시작하면 모내기철이면 인민반에서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돈을 몇 천 원씩 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죠. 가서 모내기 끝날 때까지 모내기해야 돼요. 일단 위에서 내라고 한 다음부터는 인민반별로 과제가 떨어져요. “너네 농장가서 한 인민반에서 하나씩 맡아라” 이걸 인민반에서 김매줘야 돼요. 가을이면 가을걷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중간에 퇴비할 시기에 퇴비 과업 줘요. 과제가 있잖아요. 모래밭 표시해라, 콩알 일 년에 자그마치 백 킬로씩 해라, 낫엔 또 그런 말 안하고 강변 나가요. 강변 나가서 처음에 콩자락도 바치고, 건설장에 바치고 이름 올리고. 인민반장한테 바쳐야 합니다.

인민반 생활은 만날 뭘 내라는 것 밖에는 기억이 안나요.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걷어가셨어요. 인민반 회의를 하고 나면 또 동원이죠. 늘 인민반 지원물자 걷었어요. 아침 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동원이라든지. 심지어 나무도 불을 댈 수 있는 나무도 화목을 바친 적도 있고 별의 별것을 다 바쳤어요. 군대에 보내나 봐요. 작업장갑, 파철, 파동, 파지 수매... 수매를 해서 수매증을 갖다 바치고 하여튼 돈 되는 건 다 걷어가는 것 같아요. 인민반적으로 쓰레기장을 만든다 해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비용을 인민반원들이 내고. 얼마씩 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 벽돌도 내고 하여튼 인민반

**26** 북한당국은 폐품을 활용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리나 철 조각 및 못 쓰는 제품들을 모아서 수매상점에 내라고 한다. 못 쓰는 구리 조각을 파동이라고 부르며 철 조각을 파철이라고 부른다. 또한 폐알루미늄은 파눔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북한 전역 어느 지역이든 어디서든 동사무소와 리사무소는 인민반장을 통해 주민세대가 집집마다 일정한 분량 이상의 구리나 철, 알루미늄 조각이나 폐휴지를 모아 수매상점에 내고 확인증을 받아서 다시 인민반장에게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다. 면담 과정에서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해 보았다. 그 때마다 이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한 마디로 그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살아날 재간이 없다” 하는 것이 이들의 대답이었다.

장이 오면 뭘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걸어서 다 군대에 보내고 인민반에서 쓸 것도 쓰고 동사무소에 모아서 어디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철도에 인민반 별로 다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청소한다 하면은 새벽에 다 나와서 그거 다 청소해요.

인민반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에 철길을 다 맡고 그 다음부터 ‘너네는 어느 공장 이만큼 해라’ 해요. 철도 관료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맡은 구간 더 해야 돼요. 다 돌 골라내서 채에 채어서 채워넣고 흙은 버리고, 큰 돌도 처리해주고 그렇게 해야 해요. 인민반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야 돼요.



이렇게 아침마다 인민반장이 뭘 내라고 하거나 어디 동원에 나오라고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담은 정말 다양하게 이어져 나갔다. 새해 첫 날부터 인분을 말려 퇴비로 만들어 “바쳐야” 하고 공개처형 장소에도 불려 나가 “피가 될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도록 인민반의 주민세대를 총동원할 때 “반장의 매서운 눈길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사형수를 총살하는 현장에 다 참석해서 그 처형 장면을 직접 보도록 사람들을 동원할 때 인민반별로 포치해서<sup>27</sup>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일도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관행은 오늘날 북한주민이 얼마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민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동하게” 전달해 준다고 하겠다.



자기가 퍼서 하지. 밭에 있는 사람은 퍼서 말려서 밭에 올려놓는 집도 있고. 그리고 인민반에서 퇴비 한 톤 이상씩 무조건 바쳐야 돼요. 도시에서도 퇴비를 바쳐야 돼요. 인민반에 한 톤 바쳐야 되고. 직장에도 한 톤 바쳐야 되고. 애들은 또 학교에도 바쳐야 되고... 겨울에는 공동변소에서 인분을 싹싹 긁어가요.

그때 12명 사형할 때 나와서 무조건 보라고 해요. 안가면 왜 안가나 하고... 인민반적으로 총동원해서 올라가니까 안가도 수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지.

96년도부터, 막 끌어내다가 하루에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21명이면 21명 다 세워놓고 총살을 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 번씩... 시장 옆에다 말뚝을 세워 놓고. 이삼일에 한 번씩 끌려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27**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포치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물건이나 비용이 얼마인지 추산을 하고 난 뒤 각각의 인민반이나 학교, 직장 단위별로 어느 정도 분량을 제출해야 하는지 할당량을 정해 주는 것을 포치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포치를 하고 나면 각 단위 책임자가 그 구성원에게 얼마씩 부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것이었다. 인민반에서는 반장이 각 세대별로 얼마씩 언제까지 부담할 것을 통보한 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리 내라고 독촉한다고 했다.

면 사상투쟁의 무대에다가 세워놓고 조직별로 두드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놓고서 한 10미터 밖에다가, 제일 앞에 그것도 대열 편성이 있어요. 이렇게 3명이면 이렇게 말뚝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하고 사격수들 앞에 놓고 그 뒤에, 사격수 뒤에다 단련대생<sup>28</sup> 쪽 앉혀요. 그걸 직접 보고 너네는 그런 범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단련대생들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인민반 전체를 몽땅 다 모여 놓고 죽이는데, 세상에 이게 가슴이 막 떨리고 가족을 다 세워놓고 죽이니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동생한테 깊이 들어가라. 넌 그 땅에서 죽지 들어와 죽지 마라. 그 꼴 못 본다. 죽어도 그 땅에서 죽어라.



사람들이 순순히 그런 말을 다 듣느냐, 인민반장이 동원을 나오라고 할 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민반장이 고래고래 소리치고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동원에 못나간다, 반장이 우리 집 식구들 다 먹여 살릴 것이냐, 나라에서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조건 나와서 일하라고 하느냐” 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인민반장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점에서는 이들의 반응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 간혹 동원 현장에 안 나가고 그 대가로 돈을 내고 무마하거나 인민반장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잠시 숨어 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방침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운다면 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

인민반 동원 나갈 때 우리 같은 경우는 못나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못나가는 집에서 받아가지요. 한 집에 2만원이다 3만원이다 5천원이다 그렇게 정해 주거든요. 그럼 5천원 내고 동원은 안나가고 빠지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먹을 걸 이렇게 싸줘. 빵이랑 이렇게 싸주면 그 사람들 그거 가져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동원에 만나가고 같이 일 안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별로 불평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일하러 나가서 먹을 거 다 싸주고 자기네 놀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주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 인민반은 아파트는 조금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운전기재를 동원해 줘요.

2003년 독립채산제<sup>29</sup> 할 때쯤 되면 인민반장이 와서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치고 해도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못나가겠다고, 반장이 돈 주겠냐고 내가

**28** 북한당국은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 이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사람을 수용하고 모부수 노동을 시키는 노동단련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 사람은 최대 수용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1-2개월 동안 간혹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했다.

**29** 북한당국은 200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각 단위별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였다. 독립채산제란 기업체의 생산결과를 평가할 때 예전처럼 정치적 평가도 하지만 물질적 평가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독립채산제의 의미는 기업체가 국가계획을 초과 수행했을 때 물질적 이익을 보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물질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만들어 둔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 집 식구 먹여 살릴 수 있게 돈 줄 거냐고 이러면서리 사람들이 버텨요. 그럼 뭐 반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동원 안나가겠다는 사람을 때려서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야 돈 다 뭐 화폐교환 하고 해서, 뭐 주는 게 있냐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뭐 주는 게 있냐고 사람들이 공기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냐고? 막 사람들이 이랬어요. 전기 누가 달라냐, 그렇다고 물 달라냐, 쌀 달라냐, 시장만 열어라, 우리 장사만 하게 해 달라, 청진시, 수납장으로 해서 이런 추세가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함흥 삼일시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균중적으로 집회라기 보답도... 막 인민반장이 찾아갔는데 안 나가고 막 반항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은 당에서 떨어진 과업은 많은데 인민반 단위에서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업을 수행할 노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원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따낸 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을 보게 한다. 그렇게 다르고 어르고... 얼래서 사람들이 조금 동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장마당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낮에는 장마당 아마 안 열거예요. 다른 날에는 오후 1시나 7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사람들이 국가에다 손 안내 밀어요.

요즘 들어 뭐 말 안 듣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글썄 인민반 동원 같은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 안 듣는 사람은 거의나 다 있기는 하겠죠. 그래도 자기 집 앞 청소 같은 건 무조건 해야 되요. 그거는 응당 당연한 건가 하죠. 누가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제 집 앞마당 청소도 해야 되지만 기본 큰 도로부터 시작해서 마을에 들어오는 도로까지 다 해야 되요.

거기는 청소 같은 건 직업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건 다 인민반에서 해요. 그러니까 인민반장 해야 하는 일이 많죠. 청소에 동원되면 동원된다, 나무 심으라 하면 나무심기 또 데리고 가, 그런 건 다 우리 직장 나가는 사람들은 안 해요. 집에서 노는 가정부인은 다 맡아서 해야 되요. 또 모내기철이 되면 사람들 다 모내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반에서 해야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또 내라는 것도 많고.

안 나가면 다 얼마씩 내라고 하는데, 자기 손에 돈 없으니까 할 수없이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힘들어요. 여성들이 브리크 있잖아요~ 브리크,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들고 나가고 강에 가서 막 모래파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과업을 주거든요. 그러면 인민반장한테 갔다 줘야 해요. 그거 못하면 돈 내라고 계속 문 두드린단 말이에요. 돈은 신화폐로 3000원씩... 그게 약차한 돈인데... 그 정도 돈은 대단하거든요. 그니깐 할 수 없이 깔깔이 국수 만들어서 바치고 하루일당 인민반에 주고... 또 새벽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새벽에 늦잠 잘 수가 없어요. 매일 동원하니까. 와서 계속 문 두드리지, 돈 내라, 3000원 내라 하면서. 안내면 압이 가해지고 나중에는 인민회의 때 앞에 내세워 비판하기도 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방침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그다음부터 압이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대문 잘 열지 않습니다. 반장. 인민반장이 와서 오늘은 어디 동원이라지... 어디 동원? 나는 이거 한 자리 나니까 내가 신경통, 신장질환 있어서... 그리고 이 신장 때문에 나는 노동을 못 하겠다 말입니다. 못 하니까 그러면 대문만 트면 좀 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대문 넘으면 안 되니

까... 새벽에 딱 온다 말입니다. 새벽에는 니가 못 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  
 까 새벽에는 내 없어도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을 거니까 반장하고  
 여맹인사, 딱 세 명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대답 안 하면 옆  
 집에서 저기 있어가지고 그런다 해서 다 대답 안 한다 말입니다. 우리 이게  
 하모니카 집<sup>30</sup>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집 구조가 그러니까 내 부르면... 야,  
 저게 없어서 내가 대답 안 하겠는데 이쪽 것도 야... 내 옆집에서도 대답 안  
 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또 싸움할 때는 서로 또 물고 늘어  
 질까봐... 잉? 그러니까 오전에는 너무나 매일 작업 희생이 되니까 나는 아  
 프오 하면 옆에 거가 바주는 것도 정도라 말입니다 잉? 맨날 아프다하면  
 너는 어찌... 이렇게 하면서리... 그러니까 오전에는 아무데나 전국 각지 다  
 갔습니다. 이게 다 들어와서 물어보면 전국 각지 다 일치한 게... 자, 오늘은  
 제방둑 공사 간다. 다 옆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어디 간다 말입니다.  
 제방둑 공사한다. 그러니까 못 가면 이만원이다. 저를 이렇게 척 집는다 말  
 입니다. 하... 그러니까 반장하고 여맹회장은 달라 그렇습니다. 맨날 돈 달라  
 고 찾아오는 거니까.



**30** 일반적으로 한 줄에 6~10가구가 쭉 이어져 있어서 그 모양이 하모니카 같다고 해서 하모니카 주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잘 사는 집은 한 줄에 두 세대도 살지만 대체로 4세대 정도 사는 집 이라면 형편이 좀 나은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형편이 더 나쁜 지역에서는 한 줄에 20세대가 넘는 집이 산다는 것이었다. 이런 하모니카 주택에서는 양쪽 끝 집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양쪽 끝에 자리를 잡은 집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창고를 짓기도 쉽고 또 주변의 땅을 한 뼘이라도 더 개간해서 텃밭을 넓게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양쪽 끝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한 쪽 벽면에서 들리는 소음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점이라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지적해 주었다. 가운데 집은 양쪽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다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생활 영역을 존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누구나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은 이런 동원이 모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사회 노동” 명목으로 “무보수 노동”을 주민세대에 강요하는 공동 작업이 많다고 했다. 누가 돈 한 푼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노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가 먹을 점심 도시락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루 벌어야 하루 먹을 수 있는” 처지였을 때 인민반장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강제로 무보수 노동을 시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었다고 이들은 토로한다.

“

인민반에서 뭘 내라는 거 많아요. 뭐 무슨 뭐 어디메 뭐 지원 간다. 어디메 또 농촌 동원 간다. 이런 데를 가는 데는 보수가 없죠. 주는 보수가 없이 그런 데 일할라 가야 되는 데는, 내가 거기를 안가겠다 하면 인민반장한테 다 뭘 줘요. 뇌물을. 그래 뇌물을 주고는 난 거기서 빠지거든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나가서 일하는 것도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다 한 삽 떠도 돈 주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있는 데는 이런 공동 작업이 많아요. 사회적인 노동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오늘 너네 인민반이 철도 구간을 돌 다 치워내고, 밑에 흙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돌을 넣어라 하면 우리 인민반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돈 주는 것도 없고.

”

## 2-2-4 | 강연

인민반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주민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안의 배경이나 원인을 설명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이런 저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입을 모아 강조하였다. 강연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니 사소하게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등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좀 더 넓은 범주에서 북한 밖에서 외부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는 북한 당국이 인민반 단위로 강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주제가 아마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일의 정당성을 설명하거나 고난의 행군이나 화폐개혁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당국의 방침은 무엇인지 해설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느낌이 강하다. 예전부터 북한당국은 이런저런 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해설 담화 같은 강연 자료와 강연 제강” 등을 만들어 각 단위별로 강연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민반 강연은 빠질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때 대대적으로 강연이 진행됐거든요. 강연이라는 게 인민반 별로 이렇게 긴 강연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주위 인민반별

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진행돼요. 그 회의 때, 이제 화폐개혁 이후에  
상점 계통, 모든 상업 계통들의 상품이 다 들어온다 했거든요. 배급소에서  
도 배급이 다 들어오지만은 식량 가격은 100대 1로...



어쨌거나 한 가지 주제로 학교와 직장, 사회단체를 통해서 강연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인민반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강연회를 개최  
하고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는 꼭 참여해야 한  
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인민반 강  
연과 관련하여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었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2-4-1 | 강연을 하는 사람

인민반 강연을 할 때 누가 강사로 나서는지 질문하자 소소한 문제  
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인민반장이 맡아서 강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군 당이나 도 당  
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간부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주  
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가 하면 “포고문이 나와서 이런저런 비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할 때”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원이 강연을 하는 경  
우도 있다고 했다. 간혹 당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거나 “수령님이나  
장군님 노작이나 말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에는<sup>31</sup> 그 지역의  
학교 교원이 인민반마다 찾아다니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는 것이 이들의 증언이었다.



강연은 인민반장이 할 때도 있고 군당 간부가 직접 나와서 하거나 인민위원회, 행정위원회 지도원들이 나와서 하고, 직접 나와서 합니다. 이런저런 포고문이 떨어지면 가끔 보안원이 직접 나와서 강연하기도 하고...

아들이 군대 나갔다 제대해오면 그 장가 갈 준비 해주겠다고. 고이고이 모아둔 돈이 300만원인가 있었답니다. 할머니네. 60살 됐던가... 300만원이 못 쓰는 돈이 됐으니까 막 기절하고 시장가서 막 거기 가서 책임비서한테 통곡하고 했는데, 책임비서도 어떻게 합니까? 국가조치인데. 그러니까 이 일대 그런 실례들이 많으니까 강연회를, 도당 뭐 직위 높은 사람들 나와서... 강사라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몽땅 강연했습니다. 인민반, 기관, 기업소, 학교 다니면서 박남기<sup>32</sup> 잘못이라고. 박남기는 반당반혁명 분자라고. 처형했다고. 이놈들이 우리에게 끼친 모독이 강성대국에 가는 장군님의 의도나 전략을 방해시키는 데...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근데 주민들이 그걸 뒤에서 코웃음...

5호 담당제<sup>33</sup> 이게 어떻게 되는가하면요. 그 당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게 학교 선생들 위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각 인민반에서 나가서 5호 담당 선원들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내에서 내려오는 지시물이라든가 이런 노작들 이런 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인민반에 나가서 학교 선생들이 나가서 하게 해요. 그래 그런 이런 분교로 나와 가지고 또 이렇게 병신인 애들도 더러 이렇게 교육 시키고... 근데 부모들이 써도 못 먹을 거 그런 애한테 배워주면 뭐 하냐고...



## 2-2-4-2 | 강연 주제의 유형

인민반 강연 주제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의 유형은 청바지를 입지 말라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지 말라고 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유형의 인민반 강연 주제를 살펴보면 유독 남성보다 여성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키고 동방예의지국에 맞는” 차림새를 하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은 출근할 때 바지를 입지 말고 치마를 꼭 갖추어 입어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하는 방침을 주제로 강연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주장이었다.



수정주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또 그런 강연회를 해 제끼며, 제 나라 것만 먹고 제 나라 거 입고 특히 청바지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가위로 다 베어 버려라. 이래서 못 입게 하고 그랬어요.

**31** 북한당국은 김일성 발언을 언급할 때 노작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김정일 발언은 말씀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부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32** 박남기는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관료로 알려진 인물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성택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경제개발단이 한국의 산업시설 곳곳을 탐방하러 왔을 때 박남기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 북한당국이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지고 총살형에 처해진 인물이기도 했다.

**33** 5호 담당제는 북한당국이 5세대마다 담당선전원 1명을 배치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당적 지도를 한다는 구실 하에 주민의 일상생활을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청바지 입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강연에 나와서 청바지의 유래, 디스크의 유래. 북한에서 강연 어떤 식으로 하는 지 아십니까? 청바지는 식민지의 상징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인디언들을 학살을 할 때 입은 게 청바지라고, 청바지는 북한에서 입으면 안 된다.

강연회 때 말을 해요. 머리 기르지 말라. 왜 머리 기르지 말라 하는가. 이건 우리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생활 풍습이라는 거. 우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여자는 치마를 입고 출근해야 하고 머리는 간편하게, 간편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옷차림이다...

저희 강연회에서 들은 건데, 평양에서 무슨 어느 간부 집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어, 이게 차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죽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이유로 여자는 자전거를 타면 안된다는 방침이 나왔다고 들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옷차림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생활문화를 주제로 인민반 강연을 진행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했다. 한동안 북한당국은 자녀를 둘 이상 낳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산아제한 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기도 했고<sup>34</sup> 미신을 믿지 말라거나 마약업자를 없애고 모여서 술을 마시지 말며 가정폭력을 근절하라는 등 인민반 강연에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포치를 내리는” 일도 많았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이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는 둘 이상. 그러니까 둘 이상 가능하면 낳지 말고 모든 힘을 나라건설, 그러니까 경제건설하라고... 그때 그 시기에는 그저 모든 강연회가 첫판에 위대한 수령님 교시, 또 두 번째 당의 방침.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조선 정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맞는 소리다. 애나 자꾸 낳아서 언제 경제건설, 국방건설하겠는가... 그 68년도에 푸에블로호 사건<sup>35</sup>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때 도발할지 모르니까 이거 전쟁준비 합당하다. 그래서 너도나도 산아 제한하는 운동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게 어디서 생겨났는지 막 생기면서, 점집도 막 늘어나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강연회도 하고 했는데... 인민반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불러놓고 이 미신 행위는 범죄 행위다 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직성(별자리)에다가 비교할 수 있냐.....

**34** 우연한 일이지는 하겠지만 남북한 당국이 이른바 산아제한 운동을 추진하던 시기는 신기할 만큼 비슷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한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같은 구호를 내세워서 가족계획 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무렵 북한에서는 “떠오르는 차세대 지도자”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하나를 낳는 것은 좋고 둘을 낳는 것도 괜찮지만 셋을 낳은 것은 미욱하다, 양심이 없다” 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35** 1968년 1월 21일에는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까부수러” 왔던 일이 일어났고 그 이를 뒤인 23일에는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가 북한 인근 해역에서 나포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북한당국은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를 평양 대동강 유역에 전시해 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차관장사<sup>36</sup> 없애자는 게 강연요강으로 나오기도 하고... 2007년도 2008년도 8월에 포고가 나왔는데 그 포고에는 고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지 말라... 그 포고에 대한 강연회 했거든요. 그땐 2-3명 이상 모여서 술도 마시지 말라. 근데 2-3명 이상 모이면 할 게 뭐 있습니까. 국가를 비난하고 못 살겠다. 살겠다. 하니깐 2-3명 이상 모이면 술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당적으로부터 사법검찰 쪽으로 많은 포치가 내려가서 가정폭력을... 사상교양사업을 잘해서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많이 내려갑니다. 강연회를 많이 하고 또 개별적 담화도 많이 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들...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많이 나아져서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직업자들을 없애라. 마약업자 없애라’ 강연 이런 거 계속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참 먹을 것이 부족하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옥수수 송치나 벼 뿌리를 가루 내어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운 진흙인 니탄을 어떻게 식량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는지 인민반 강연에서 전달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고 했다.<sup>37</sup> 문제는 북한당국이 인민반을 비롯하여 각 단위에서 열심히 강연하면서 이런 대응식량을 만들어 먹으라고 선전활동을 한 결과 사람들이 그대로 따

라했는데 심각한 수준의 변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이 많아졌다는 점이였다.

“

송치는 딱딱하게 말라도 그 가운데 흰 줄기는 안 말라요. 고거 싹 갈고리로 파내서 말려요. 말려서 도끼로 막 두드리다가 요만하게 다 절단해 가지고 그거 방앗간에 가지고 가요. 그래, 분쇄해가지고 채 채가지고 낱알가루하고 섞어요. 낱알 가루 70% 넣으라고 강연회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넣을 식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70%, 80% 그 송치가루, 콩가루, 두부콩 깍대기 같은 거 가루내요. 두부콩 가루, 옥수수 송치가루, 벼 뿌리 가루, 그 다음에 찹가루. 이렇게 네 가지를 섞으라고 다 알려 줬어요. 사정이 너무나 바쁘니까 강연을 했어요. 식량은 없고 자체 해결방법은 없고. 오죽했으면 니탄까지 다 먹으라고 강연에서...

95년 96년 97년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 돌고 학교도 안되고 병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송기떡, 니탄떡 먹고... 티비에 니탄떡이 좋다고

**36** 차량을 통째로 빌려서 큰 규모로 장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 이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 차판장사는 드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차량을 통째로 빌려 물건을 대량으로 수송하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증언이 많았다.

**37** 옥수수 송치는 옥수수 알갱이를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가운데 거친 부분을 말한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옥수수 송치나 벼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남는 뿌리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곡식 한 줌 정도와 섞어서 대체 식량품을 만드는 방법을 강연시간에 알려주곤 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었다.

계속 나오니깐. 병원에 있으니깐 먼저 먹어보라고 줘서 먹어봤어요. 송기떡도 먹어봤고 니탄떡도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봤더니 사카린 있잖아요. 사카린하고 소금 넣거든요. 사카린은 달잖아요. 단 맛에 먹죠. 단 맛에 먹어요.

그 때 00식당에서도 풀국수, 풀떡이 나왔어요. 그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한입도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이런 생 풀냄새가 나니까. 이런 냄새가 나니까 그거를 저는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은 그거라도 먹었대요. 또 어떤 때는 수수, 중국 꼬랑미라고 있는데, 중국말로 꼬랑미인데, 그게 찰수수가 아니라 매수수니까. 원래 그건 사람이 못 먹습니다. 말 사료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뭘 해줬어요. 밥을 조금씩 해주거나 국수를 해주는데, 그거를 먹으니까 애들이 변비가 오더라고요. 그것을 먹으면 변을 못봐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봐서 다리가 막 부어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강의시간에 우는 거예요. 처녀애들이니까 변을 봐야 하는데, 나가지 않고 하니까, 진짜 그때 대학에 화장실이 다 밖에 화장실이 있고, 숙사 안에 화장실 있고 하니까. 숙사 안에는 우리 00 000이 따로 있는데 밖에 이런 공동화장실은 없습니다. 같이 쓰고. 보통 가까운 화장실 쓰기 위해서 숙사로 안가고 밖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막 피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울어요. 울어서 대학에서 대책을 만들었어요. 변을 보려고 하니까 피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일 되었을 때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못 본 애들이 대부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애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00시 병원에 몇 명 사람들이 올라 왔더라고요. 관장기라고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변비도 심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대다수 50-60%라 변

을 못 봤어요. 그래서 관장을 거의 다 했죠. 그 다음에 변을 보는데, 수수밥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걸 먹으면 또 그걸 대니까 못 먹죠. 그런데 그거를 안 먹으면 빈혈이 오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유형은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중대 사안의 배경이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 이탈주민이 인민반 강연에서 직접 들었던 주제로 거론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고난의 행군과 화폐개혁, 후계자 김정은의 등장과 같은 이른바 “국가적 사안” 뿐만 아니라 “전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군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고난의 행군이 지나가면 강성대국...<sup>38</sup> 밝은 세상이 오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런 교육만 하거든요. 일단 고난의 행군만 넘기고 보자. 그걸 속여서 고난의 행군도 넘겨왔고. 고난의 행군이 지

**38** 북한당국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언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몇 년 전부터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막상 2012년에 이르자 더 이상 강성대국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조용히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는 점차 강성국가라는 표현도 더 이상 쓰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 볼 수 있었다.

나가니깐 또 무슨 행군이 시작되겠는가 해서 그러면, 또 이래요. 강성대국의 길을 가자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허리띠를 한 코더 졸라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력갱생,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남의 나라 쳐다보지 말고. 자력갱생해서 우리는 강성대국을 건설해야한다. 당에서 요구하고 그런 강연제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사상을 계속 주입받으니깐, 우린 또 강성대국의 길을 위해서 힘들게 전진해야겠구나, 또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화폐개혁의 책임을 박남기한테 넘기면서 그 사람을 총살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강연제강이 나오면서 사죄. 사죄강연이 같이 나왔거든. 사죄 강연제강이 나와서 박남기... 이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그 사람한테 안 된 거지.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걸 믿지 않지.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그 사람 독단으로 했겠나. 그래 뭔가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수표해 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실행한 사업일 게 뻔한데 그 사람한테 왜 책임을 떠미나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부호 가지고 있지.

2009년 6월에. 강연회랑 다 했다는 거, 후계자 추천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했죠.

2009년도 중반기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막 떠들었어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다는 강연이 막 나오면서 세계 떠들었어요. 2009년도 중반기부터 강연 자료를 많이 받아서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정치가 또 안 끝나는구나.

그 화력발전소가 섰다는 말 들었어요. 석탄이 없어가지고... 그 때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이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탄광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 안하고 장사 다니니까 탄광 관리를 못 해가지고 갭 안에 다 물이 차가지고 석탄을 캐지 못해서 전기가... 화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다... 이렇게 들었어요. 사람들이 중얼중얼하죠.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전기가 없는 건 이래서 없다... 이러죠. ‘장군님이 곧 해결 한단다.’ 뭐 이런 얘기... 애긴 있었죠. 언제라는 건 없었죠. 처음에는 전기가 풀린다고, 조금 있으면... 근데 뭐 점점 더 전기가 더 없고 그러니깐 그런 말이 안 나왔죠. 실지 현 시기가 전기 점점 풀린다 하고는 점점 더 안 오니깐 말해도 사람들 믿지도 않으니깐... 말은 점점 더 없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인민반 강연에서 이른바 “남조선이나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북한주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북한사회가 겪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의 원인은 모두 “남조선 괴뢰도당” 탓이라고 강조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면담에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지적해 주었다. 마치 한때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을 맡은 배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극 중에서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떠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인민반 강연에서는 “잇을만하면 한 번씩 남조선이나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등장했었다고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강조했다. 이들이 직접 들었던 인민반

강연에서는 누구누구는 잘 알려진 “남산 지하실” 끌려가서 고문을 받아 죽었다거나<sup>39</sup> “남조선 괴뢰도당” 음모에 걸려 큰돈을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고 했다. 위조지폐 달러를 유포하고<sup>40</sup> 북한주민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온갖 나쁜 일을 하는 등 “남조선 괴뢰도당” 때문에 “편하게 살지 못한다”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곤 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남조선 괴뢰도당이나 미국놈들이” 북한에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는 이유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무릎 꿇고 진상품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고 인민반 강연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들은 말했다.



그게 북한에서 가달러 문제가 많이 도니까 인민반으로 포치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달러를 보내는데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가달러를 보냈다고 강연하고...

좌우간 90년대 초부터 남조선이 잘 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지만 감히 우리 남조선에 가서 산다는 거는 상상 못 했지 뭐. 상상 못했어요. 그저 이 남산 지하실, 국정원. 남산 지하실 가면 무조건 죽이는 줄 알았지...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왜, 왜냐. 김대중이 납치 돼서 남산 지하실에서 고문 받았다는 그걸 강연회를 했기 때문에...

범죄가 없다고 강연하는 건 아니에요. 범죄가 있는 걸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걸 말을 하지. 강연제강에는 넘어 간다고 하지 않고, 인신매매 걸려 들

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런데 환상 가지지 말자는 거. 그러면서 남조선이 유괴한 거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족이 넘어 간 것들 그런 것들도 때리고, 북쪽에서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 그게 다 불량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데 끌려 들어가 가지고 팔려간다. 그러면 짐승 취급을 받는다. 이걸 강연한단 말이에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남조선 괴뢰도당이나 미국 놈들이랑 무릎 꿇고 갖다 바치는 진상품이라고 할까 그렇게 교육합니다. 강연회 때 다 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 대내외적으로 장군님한테 이래서 적군이 제발 전쟁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 먹고 살라고 주면 싸움할라고. 군대들 먹이고, 백성들한테는 그나마나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말도 모르고, 평양이니까 조금 UN에서 들어왔다는 거 안다 말입니다. 유엔 쌀이랑 다릅니다. 주면서 그렇게 선전하거든요. 한국에서 갖다 바친다고.



**39**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북한에 있을 때 “북조선 사람이 남산 지하실에 끌려 가지만 하면” 온 몸의 피를 다 뺏히고 나서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해 주었다. 강연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남산 지하실이란 한국의 국가정보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예전에 서울의 남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한 용어로 보면 될 것 같다.

**40** 북한당국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해 왔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 결과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북한 내 장마당에서 널리 유통이 되기도 했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장마당에서 돈주를 중심으로 가달러를 진짜 달러 가격의 70~80% 수준으로 거래를 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했다.

### 2-2-4-3 | 강연의 효과

이렇게 강연을 하면 북한당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  
는지 질문해 보았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  
주민의 의견은 몇 가지로 갈라졌다. 먼저 예전에는 다 믿었는지 모르  
겠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강연 내용을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 “앞에  
서 뭐라고 떠들어도” 결국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  
다. 벌써 몇 번이나 “얼리우는데” 속다 보니<sup>41</sup> 이제는 북한주민들 의  
식도 발전했거니와 심지어 강연을 하는 사람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말을 하는 처지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이들의 의견이었다.



90년도에 와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97년돈가 그때 배급 준다고 옛  
날처럼 다 되돌아가서 준다 하고 인민반에서 강연까지 하게 했던 말입니  
다. 앞으로 다시 배급 주니까 믿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배급 어디 줍니까?  
준다 하던 배급을 아니 준단 말입니다.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도 안주니  
까, 반년 지나도 안주니까 거짓말이 됐죠. 사람들을 얼리웠단 말입니다. 사  
람들을 다 얼리웠죠. 첫 번째 그랬는데 한 2,3년 후에 두 번째 또 그랬단  
말입니다. 이번엔 정말 준다. 그런데 또 안주더라 말입니다. 2010년도 준다  
고 하더니... 그때도 꼭 준다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화폐개혁 하면서부터  
또 준다 하고 지금도 아니 주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않  
습니까. 거짓말하고, 몇 번을 속이는가.

강연회 때 지금 법에서 이런 게 있는데, 하지 말라.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 말해 주고 이런 비법이 나오는데 너네 하지 말라 이렇게 선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 그 전에 다 알아요. 핸드폰을 통해서 중국하고 연결 가지니까 그 전에 다 알죠. 그러면 또 법에서는 선전하죠. 지금이야 너희 실컷 지껄여라, 회의 가서도 강연회 해도 너희 실컷 지껄여라, 무슨 돈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면서 말만 많고 내래는 것만 많고.

이제는 배급을 준다고 해서 이제 풀립니다. 하는 거 한번 강연회를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한 일 년 몇 월 달쯤에 돼서 우리 생활이 풀립니다. 이랬는데 슯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웃으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강연하는 사람이 뭐하나 했거든요. 아니 왜 웃어요? 이러더라고요. 왜 웃느냐고. 근데 모두 돌아서서 다 키득거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그걸 강연하는 사람은 몰라서 강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요. 그렇게 가서 강연하라고 했는데 별 수 있습니까?

**41**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북한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북한당국이 발간해 낸 각종 서적과 신문 자료를 볼 때마다 북한 특유의 수동태 표현이 널리 쓰인다는 점이 상당히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현상을 보고 금방 알겠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는 “척 보면 알겠다” 하는 반면 이들은 “척 보면 다 알린다” 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또한 선생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표현에 익숙한 한국식 어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선생이 학생을 배워준다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곤 했다. 남을 속인다 하는 의미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얼리우다” 하는 단어도 북한 특유의 수동태 표현이라 하겠다.

이젠 이 정도로 사람들 의식이 발달했던 말입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이 전에는 당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호, 강연 자료가 어 진짜 그러겠다. 한국에 간 탈북자들이 뭐 80프로가 범죄를 저지르고 집도 안 주고 아주 뭐 일자리도 없고 탈세하고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거 그 전에는 고지식하게 믿었는데 지금은 현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한다고, 부정한다고. 그렇지 않다. 저건 거짓말이다. 우릴 기만하는 말이다. 인식을 하는 데



반면에 아무리 쓸모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마음대로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상황인 만큼 계속 강연에 참가하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해 듣다 보면” 어느덧 “또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어차피 강연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계속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또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이 박힌다” 하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이렇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결국 북한당국은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백 번 짚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심정으로 이런 방식의 강연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평을 못해요. 불평하면 그냥 반동되고 하니깐... 뭐 토요일마다 학습 강연회 하면 뭐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인

민 생활 어떻게 하고 뭐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사상 교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다 보면 머리가 완전 딱... 그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살면서 계속 그런 말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 강연에서 들은 것이 있었으니까, 화폐개혁 한 이후에 그 천 원짜리 쓰지도 않고 한 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서리 상점에 10전까지 물건이 들어오겠지, 배급소에 20원 짜리 쌀이 들어오겠지, 배급소에 뭐 8원짜리 강냉이가 들어오겠지 이러면서리 그 한 달 동안 쓰지도 않고 기다렸어요.<sup>42</sup> 근데 쌀이 2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300원, 400원, 500원 넘어버리니까, 그냥 쌀가격은 장마당 가격은 그냥 올라가면서 천 원 짜리가 쌀 두 킬로 밖에 못 살 정도로... 뭘 살 수 없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사상이 변할까봐 자꾸 그런 강연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웃어대고 소용없어도 백 번 찍어 넘어 안가는 나무 없다고 사상이 변할까봐 나라를 배반할까봐. 사상을 계속 주입 줘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

**42**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북한당국은 식량공급소를 통해서 쌀 1킬로그램을 공급할 때 당시 북한 돈 8전에, 옥수수 6전으로 가격을 책정해 두었다. 당시 북한주민의 월급여가 대략 100원 정도라고 하면 쌀 1킬로그램 공급가격은 8/1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쌀 1킬로그램 가격은 당시 장마당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수준에 맞추어 44원 정도로 올려놓았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올려놓아도 시장 가격은 금방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 공식가격과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 이후 2009년 11월 30일 제5차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북한당국은 이제 곧 물건 가격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니까 새로 받은 신권을 쓰지 말고 간직해 두어야 한다고 인민반 강연을 통해 강조했다는 것이었다.

똥게 살겠냐 하면 사람들이 더 희망을 안 가지거든요? 그러나 거짓말이든 진짜든 옳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가지게끔 자꾸 큰소리를 쳐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이 있는가 하고 바란단 말이야요.



### 2-2-5 | 인민반 회의

인민반 생활은 일상적인 분배와 검열, 감시, 동원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이 강조했다. 수시로 인민반 회의가 열리는데 그런 자리에도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공급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인민반 회의가 더 자주 열린다는 말도 나왔다. 세대별로 뭘 내라고 하거나 동원을 하려면 “결국 인민반에서 뜯어내야 하니깐” 사람들을 더 자주 모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만날 인민반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자주 했어요. 때로는 무슨 대피훈련을 언제 한다. 대피훈련을 하는데 어디로 대피를 한다. 이런 포기도 하고 인민반이 위생사업 하는데 매일 마당 쓸기, 회가루 칠하기, 뽕끼칠 하기, 무슨 울바자 세우기...<sup>43</sup> 한때는 울바자를 집체적으로 다 같은 모양으로 해라 해서 또 난리가 나고... 시시한 일이죠. 인민반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그래도 해야죠. 반장이 하라고 하는 일을 안하면 와서 계속 해라 하니깐.

지금도 그냥, 인민반 회의랑 더 자주 하고, 인민반 사업이 더 활성화 됐죠.  
왜 활성화 됐냐면, 위에서부터 공급이 안 되니까.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아무리 바쁘거나 귀찮아도 인민반 회의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민반 회의가 열릴 때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대신 보내거나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실하게 전해 듣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평소에는 어디 동원 나오라고 할 때 나갈 형편이 아니면 돈이라도 몇 푼 내면 무마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날 “임의의 시간에” 인민반 회의를 통해서 화폐개혁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sup>44</sup> 직접 참석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꼭 파악해 두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렇게 정보를 파악해 두지 않았다가는 언제 곤란한 일을 겪거나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43** 울바자: [명] 울타리로 쓰는 바자 또는 바자로 만든 울타리.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 3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1574.

**44**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와 같은 표현도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점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이런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 왜 쉬운 우리말로 아무 때/아무 장소라고 하지 않고 꼭 임의의 시간이나 임의의 장소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할 때마다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지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거기는 인민반 집들이 다 컸어요. 많았잖아 한 덩이에 두 집<sup>45</sup> 좀 사는 집은 한 집... 그런 집이 넓게 짝 널려 있어요. 드문드문 있으니깐 인민반 회의를 그렇게 자주 한 거 같지는 않아요. 회의를 하긴 하는데 부양들이<sup>46</sup> 많이 모여서 해요. 일 안하고 노는 사람들... 우리 엄마도 일하고, 우리 아빠도 일 하시니깐... 부모가 둘 다 일하니까 인민반회의 갈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도 회의는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친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오늘 인민반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다 하고 들려주는 거예요. 어딜 가야 하는데 안 가는 사람도 돈을 내야 한다고 전해 두면 돈을 내고... 돈을 내면 넘어가요.

어머니가... 인민반 회의해서 알고 오고... 한 세대에 10만원 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은 그때 엄청 더 났거든요 10만원 보다 많았는데... 온데 아는 지인들 통해서 엄청 힘들게 바꿨죠 그때... 100만원 정도는 바꾼 것 같아요. 또 그 사람들에게 몇 십 프로씩 돈을 준 거예요. 사례도 해 주고 돈도 더 주고... 10프로 인가... 못 바꾼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집은 초기에 대응해서 많이 바꿨죠



인민반 회의를 하다보면 이해관계의 충돌로 서로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간혹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의 탈북 행위를 어느 정도 수위를 처벌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사례도 있다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경험한 일을 들려주었다.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탈북했다가 며칠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잘못 짚어

서 자수했다가” 감옥에 갈 뻔 했던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자수도 했는데”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이 터뜨리는 일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급기야 담당보위원이 인민반 회의를 소집해서 여론을 듣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주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인민반 회의할 때마다 싸움을 한다고... 주로는 인민반장한테 아침을 한다고 고자질한대요. 어느 날 어떤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서 들통 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회의가 파토되는데 몸싸움까지 간대요. 엄마들끼리 몸싸움 된대요. 회의 갔다 오서서는 몇 호하고 몇 호가 싸움 붙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별로 회의가 될 건 없는데도 인민반회를

**45** 이 표현은 이른바 하모니카 주택이나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집단주택에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은 하모니카 주택에 산다는 표현을 한 줄에 몇 집, 한 덩어리에 몇 집 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대체로 한 줄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많은 하모니카 주택에 산다는 것은 그 집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그다지 높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느낌이 들었다.

**46**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별다른 설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저 사람은 부양이다” 한다면 그 사람이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는 일 이외에 북한사회를 위해서 생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 해당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양에 해당하는 전업주부가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만약 전업주부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식구들은 대체로 굶주릴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곧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산나물을 캐고 나무를 해서 집안 식구들 식량을 책임지고 조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이런 활동은 다 “가정일”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난의 행군 시절, 여자가 똑똑하고 눈이 돌아가는 집안은 식구들 하나도 굶어죽지 않았다, 그 집 식구들 굶어 죽었다고 하면 여자가 똑똑치 못하니까 그렇다”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계속하는 건 포치... 이번에 이런 포치인데 뭐 이러면서 당에서 무슨 포치가 내려왔는데.

제가 감옥에 잡혀가니까 여론이 왜 개를 그렇게 자수를 했는데도 감옥에 넣었느냐.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인민반 회의를 했어요.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제가 3개월 만에 풀려 난거예요. 사회주의 교양처리라는 게 법에 있어 가지고... 다행인 게 이중처벌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수많은 사건에 중앙비사가 들어왔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명천군 검사가 도비사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중앙비사들이 들어와서 추방시켰을 때도... 저만 혼자 살아남은 거죠.



인민반 회의를 거치고 나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주민총회를 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인민반 회의로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당국의 처리방식이 얼마나 정당한지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그건 당연하게 뭐,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총회라는 게 있어요. 일명의 누구 하나를 범죄자를 잡아서, 마약 건을 잡았다. 이제 이 사람 놓고서 다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재판하는 것 처럼. 그런데서 많이 그렇게 통제를 하죠. 동 단위로.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 운동장에 내 놓고서리. 재판, 재판

이죠. 형기를 떨구고 이렇게 대대적 주민총회까지 나오게 된 건 2007년도 중반부터나 될 거예요. 이게 2006년 전에 온 아들은 아마 이 마약에 대해서 크게 모를 거예요. 그 때까지 크게 안 했으니깐. 근데 어쨌든 좀 문세를 좀 하던 놈들은<sup>47</sup> 다 알아요.



### 2-2-6 | 힘 있는 인민반과 힘 없는 인민반

인민반이라고 해서 그 위세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북한처럼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 살다 보면 그 인민반 구성원 중에서 얼마나 힘 있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많은가 하는 점에 따라 해당 인민반의 위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원 현장에 나가면 힘 있는 인민반과 힘 없는 인민반의 처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증언이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간부와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들 사이의 위계가 뚜렷하게 작동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힘 있는 누군가 같은 인민반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반장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힘을 활용하여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그 의미를 짚어 주었다.

**47**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문세를 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문세를 한다는 말은 밀수를 하거나 탈북하는 사람을 안내하면서 중국으로 넘겨주는 일을 할 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이들은 말해 주었다. 북한에서 문세를 하는 사람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위법이나 탈법을 한다는 책망의 시선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동원 나오라고 해서 도로에 딱 나가면 힘 있는 인민반이 어디인지 금방 알게 되요. 그 인민반은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구간을 딱 맡아가지고 하고 계속 놀아. 땡깡치고. 그러니까 힘없는 인민반은 그 빼돌어지게 등짐으로 그 거 다 과제를 시행해야지. 한번은 저도 인민반 나갔거든요. 그때는 왜 나갔냐면 12월 31일날 있잖아요. 12월31일 날이 내일이면 설날이거든요. 근데 내일이면 설은 1월 1일, 오늘 31일 날이 총동원, 1호 도로 나갔어요. 1호 도로 공사 나갔거든요. 근데 그 1호 도로 공사 제 남편이 아무래도 교원이니깐 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구요. 만약 여기에 안가면 꼬리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꼬리 붙기 싫어서 가기 싫은 걸음도 가야죠. 빠지지 않고. 그제 사람이 사람이더라고요. 일하는 장소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개미더라고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러니까 사고도 많지.

간부아파트라고 하면 그 동네에 28세대가 한 인민반인데 지배인, 당비서, 지사장, 직장장 이런 사람들,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라 하면 보위부장, 안전부장, 감찰과장, 구역당지도원 그런 사람들이 다 간부죠.



실제로 “영리한” 인민반장은 주민세대에 “각종 세 부담을 시키는” 대신 간부집에 다 내라고 해서 인민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인민반장의 행동이 영리하다거나 현명하다고 평가할 따름이며 이들의 행위를 부정부패의 범주에 속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였다. 한 마디로 이들은 북한에서 간부야 말로 “자기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공급하는 자원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인민반에 간부 세대가 한 대여섯 세대 있었어요. 그런 집은 다 잘 살죠. 그런 집은 동원 일체 안 참가해요. 그 대신 시에서 큰 공사를 한다 하면 인민반별로 휘발유 열 키로 내라, 뭐 얼마 내라 그래요. 우리 인민반장 할머니가 영리했어요. 평양에서 나온 노친네인데 똑똑했어요. 그 사람들은 인민반 동원에 원래 참가도 안 하지만 그래도 말은 잘 들어요. 말 안 들으면, 잘못되면 소문이라도 나면 안 좋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위에서 큰 게 제 기뻐할 때, 많이 내야 될 때는 그 집 가서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줘요, 그런 집은... 간부들은 다 국가에서 나오는 거 자기네 돈 주고 사지 않잖아요. 다 국가에서 배정되는 거, 공급되는 거 쓰니까. 제 돈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안내면 인민반에서는 세 부담 다 시키죠. 돈으로 얼마, 10원이면 10원씩 내라 해서 모아서 휘발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번에 기름내라는데 내라 하면 무조건 내죠. 그런 건 우리 세 부담 안하고... 그런 집은 인민반 동원 일체 안 참가하고 내고 이런 건 다 내요.

잘 사는 동네는 인민반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못 사는 동네는 인민반장이 안 내는 정도랍니다. 너무 보이니까 못 사는 동네는 인민반장이 막 못하겠다

고 그래서 너 한 달 하고, 다음번에는 이쪽 집에서 한 달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인민반장이 ‘못 낼 것 같으면 이사가세요’ 해요.

평양은 인민반 생활도 세요. 평성은 막 살기 좋아요. 외지 사람들이 돈 벌러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평성 인구가 60만 정도 될 걸... 그 중에 외지 사람이 한 40만, 절반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역전이나 경기장 같은 데는 와글와글 해요. 음식점사요. 뭐요. 대기집들이랑 없어서 못 들 정도로 타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같은 곳은 함흥도 큰 도시인데 함흥에는 빙두라고, 빙두<sup>48</sup> 생산지가 되면 서리 거기에 단속이, 숙박검열이 단속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인민반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서 간부는 아니지만 간부도 부러워할 정도로 능력을 갖춘 세대주를 간혹 볼 수 있다는 점이였다. 예를 들어 운전수가 바로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였다. 모든 일을 다 사람의 힘으로 해야 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운전수는 분명히 지위가 높은 간부는 아니지만 차량을 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위세가 대단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48** 빙두-얼음-아이스는 북한에서 생산하는 필로폰을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0년 이전에는 북한주민 사이에서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필로폰이 2005년 이후에는 넓게 퍼져 나갔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다 익숙하게 잘 아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Andrei Lankov and Seok-hynag Kim, "A New Face of North Korean Drug Use", North Korean Review, Vol. 9 No.1, 2013.



운전수들은 정말 잘 삽니다. 내가 장사하는 여자다. 남편이 운전수면 어느 때든 차를 아무 때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잘되고 그리고 또 학부모 자식들 키우는 사람들은 또 아버지가 운전수다 하면 우리 학교 운동장에 지금 모래, 속 비료 깔아야 되는데 아버지 차 한 번만 쓸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버지가 딱 위신 좋게 그 운동장에 차 끌고 가서 거기서 속 비료, 자동차 돈도 하나도 안 받고 딱 해주고 아이 인기가 대단하죠. 선생님들 그냥 개한테 그냥 잘 뵈어주고 이러죠. 그럼 다른 애들은 또 막 부러워서 막 그러죠. 인민반에서도 그래요. 인민반장이 한 번 부탁할 때 어느 집 세대주가 운전수인데 차를 한 번 쓸 수 있게 해주면 뭐...



### 2-2-7 | 인민반의 생활 정형 파악

굳이 인민반장을 맡지 않았다 아니라도 같은 인민반에 살다보면 이웃집 생활 형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었다. 북한 전역에 걸쳐 평범한 노동자나 농민계층의 주민은 한 동 7세대, 한 동 8세대 형태의 하모니카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웃집 사정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해서 벌어들여 먹고 사는지, 누구네 집은 언제 부부싸움을 했는지,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은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었다.



2013년 2월 중국 산해(삼합)에서 본 함경북도 회령시 전망

하모니카 주택은 건축구조의 특성상 이웃집하고 벽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벽체도 얇을 뿐 아니라 남의 집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거처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현실인 만큼 이런 곳에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져서 도무지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자신은 관심을 두지 않아 이웃집 사정을 잘 모르고 지냈다는 사람도 있었다.

“

우리 인민반은 각계각층인데, 제가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와이프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느 집은 어떻게 장사하고, 어느 집은 어떻게 농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물고기 팔아 사는 집. 그러니깐 전문 물고기 파는 집. 전문 두부만 파는 집. 전문적으로 또 농사만 하는 집. 다 제각기 사는 방식이 다 있죠.

하모니카 주택에서 살았는데, 인민반은 그런 하모니카 주택이 세 개 있으면 한 인민반이에요. 한 줄이 6집이니깐 18집... 같은 인민반에는 우리 옆집은 배 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발전소에서 배를 또 청진이 가까우니깐 고기 잡아다가 사람들 먹이고 이쪽 옆집은 건설하는 노동자, 두 번째 집도 노동자. 세 번째 집도 노동자. 네 번째 집은 농장을 다녔나? 우리 거기는 농민세대가 별로 없어요. 다 발전소 마을이거든요.

내 생활하고 친구하고 짝꿍이니까 생활하는 거 비슷한 줄 알았어요. 하늘하고 땅 차이 나는 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몰랐었죠. 같은 대학생이니깐 수준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개네집 가니까 탄광 막, 거기는 막 잉꾸락<sup>49</sup> 집들 지었더라고요. 잉꾸락 모르세요? 탄광, 광산같은데 가면 사선으로 올라가는 차 있잖아요. 그 차들처럼 촘촘히 집이 있어요. 마당도 없고 째도 없어요, 집만 촘촘히 있는데 한 집 같아요. 뒷집 아이보고 ‘야, 뭘 먹냐?’ 그래요. 뒷집 아이들 밥상 다 보여요. 윗집에서 아랫집은 모르겠는데, 아랫집에서 윗집은 못 봐요. 그러니까 재미난 건, 뒷창문들이 우리가 없어요. 어느

**49**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유형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면담 대상자 중에서는 간혹 아무리 앞뒤 맥락을 연결해서 파악해 보려고 해도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이나 상황을 거론하면서도 왜 모르느냐, 북한학과 교수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면서 힐난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면담하며 연구해 온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런 형식의 태도는 아마도 상대방의 관점이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교육해 온 북한사회에서 살아 온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지 않는 한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이나 거기를 다 벽들로 막지 않으면 그거 안 보이게 하죠. 뒷집에선 아랫 집 고대로 다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사람이 특별히 말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여기 아파트처럼 높은 게 아니고 다 단층집이잖아요.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면 양쪽 집에서 소리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한 사람만 소리치면 소문 다 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줄사택에 살았거든요. 저희 인민반이 줄사택이었어요. 벌써 어느 집이 싸움 났다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밤에 잠을 못자고 저 어느 집 가보자 하면 순간 소문이 짝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집 가정불화가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인민반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끼리 어느 집 살림살이는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사는지 서로 훤히 알게 된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였다. 이른바 줄사택 이라고도 부르는 하모니카 주택이 많은 북한의 특성상 같은 인민반에 사는 이웃사람이라면 누구네 집에는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정도 갖추고 사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인민반이 그저... 50세대, 작은 데가 한 27세대, 시내는 대체로 50세대예요. 잘사는 동네는 한 인민반에 40세대라고 볼 때 잘사는 사람이 3,4% 되던

말이에요 그럼 3,40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집은 예전에 전화를 다 놓은 것처럼 컴퓨터도 하나씩 다 놓자고 하거든요. 비트수가 떨어지고 해도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 팬티엄 4인가, 3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인민반에 구두수리 하는 사람 있었어요. 그 집도 딸이 한 명은 중국 갔는데 그 집에서는 아줌마가 술 해서 돼지 거두고 남자는 집에서 구두수리 해요. 원래 남자들 그렇게 직장 안 다니면 안돼요.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자라고 이름 걸고 하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다녀야 하는 직장에다 한 달에 얼마씩 수입금 들어 놓고... 그 다음 한 집은 집에서 자전거수리해요. 그 사람도 환자 얼굴 해 가지고... 그 서방은 크게 나이도 있고 60이 지났으니까 집에서 사랑살랑 자전거 수리해서 벌어먹고 살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집은 남편이 집에서 의사 노릇 했어요. 사람들 치료해 주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냉장고 있는 집이 50% 안돼요. 인민반이 20세대인데, 좀 재산 있고 중국에서 돈 나오는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은 10% 못될까. 없는 집이 더 많아요. 냉장고는.

인민반 31세대 중에서 2003년 정도가 되면 집집마다 다 TV가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 채색 TV가 있었어요. 아마 TV없는 집이 한 3집정도? 4집정도? 옥수수밥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냉장고는 없었고요. 2003년도에 TV, 오장육기<sup>50</sup> 다 있으면 잘 산다고 그랬죠. 2004, 2005, 2006 되면서 뭐 오토바이도 사고 자전거도 좀 사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먼저 선두를 치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그거 따라 가고.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탈북하던 2003년만 해도 입쌀밥을 먹는 집이 꽤 있었어요.<sup>51</sup> 그 24세대 중에... 15세대? 절반쯤?

인민반 20세대 중 김일성 김정일 전집 다 가지고 있는 집은 못 봤어요. 김일성전집 부러워했어요. 사실 좀 없기도 하고 옛날에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이 책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남들이 와서 보면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있는 집 정말 없어요.

그 인민반 세대 중에서 닭이나 돼지 이런 거 기르는 사람은 많아. 돼지 기르는 집은 무조건 술장사하고. 술감 제하고 두부 그 비지... 돼지 먹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집에선 돼지 기르기 위해서 두부하고 술 팔아요. 그러니까 몇 집 건너씩 두부하고 술하고... 어쨌든 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는 돼지 먹이로~ 북한돼지가 제일 잘 자라는 게 술찌꺼기 먹어서 키운 돼지예요.

컴퓨터가 인민반장 집에 딱 한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혼하고 남편이 가져갔어요. 남편이 자기가 텔레비전이랑 전기 수리하면서 번 돈으로 샀으니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민반에 컴퓨터 한 집도 없었어요. 컴퓨터 보러 갈 때에는... 화교네 집에서 봤어요. 그 집에서 컴퓨터로 점쳐준다고 하면서 점치더라 말이에요.

2006년 그 때 쯤 되면 우리 인민반에가 26세대였거든요. 근데 전화가 있는 집이 고저 6집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이렇게 많이 놓는 시기가 2009년?

우리 인민반에서는 그때 누가 장사하는지도 잘 몰랐고, 장사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좀 지나서 어느 땐가 평양이랑 다니면서 평양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지방에다 팔고 이렇게 하는 장사는 있었어요. 지금처럼 다 내놓고 장마당에다 펼쳐놓고 파는 건 아니겠는데 평양 가서 물건 가져다가 인민반에서 아는 사람끼리 돈 받고 팔고 이런 건 있었어요.



심지어 어느 집 아들이 돈 받고 대학 졸업장을 팔아먹었는지 누구네 집 딸이 언제, 어디에 가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어느 집 아내가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성매매 현장에 나서는지 이웃사람 사정을 다 파악할 정도라고 했다. 한참 고난의 행군 기간을 겪었던 시절에는 어느 집에서 사람이 굶어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인민반과 동사무소에 서 처리반을 모아서 시체를 치워주는 일도 자주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 모두 그 집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밖에

**50** 북한에서 오장육기란 이불장, 옷장, (반찬을 넣어두는) 찬장, 신발장 등 5개 유형의 장롱과 아울러 녹음기, 선풍기, 텔레비전 수상기 등 6개 종류의 가전제품을 의미한다. 오장육기는 북한에서 여성이 결혼을 준비할 때 갖추어야 할 혼수품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사는 집에서는 목화솜 이불 3채 이상 준비하면서 오장육기를 다 준비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산 비단에 수를 놓은 이불 등을 몇 장 준비하면 완벽한 혼수를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반면 살림이 어려우면 이불은 한 채 마련하고 일장이기 정도 갖추어 결혼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1-2개 유형의 다른 제품을 포함하여 오장칠기를 갖추어야 제대로 혼수준비를 하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이 증폭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51** 입쌀밥은 하얀 쌀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의 생활형편을 표현하는 상징물과 같다.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옥수수밥이라고 굶지 않고 먹는다고 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사는 집이라는 의미인 반면 입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에 없다고 했다. 물론 처음부터 “특별히 어떤 집을 찍어놓고” 그 집안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민세대 관련 정보를 저절로 알 수 있을 만큼 인민반 안에서는 사생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강조하였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먹을 게 없으니깐. 그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도 그런 처지 환경에 처해 있다 보면 무감각해서,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굶어죽으면 인민반과 동사무소에서 사람을 모아서 시체를 치워줘요

우리 인민반장네 집 아이는 대학을 졸업 했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팔았어. 돈 많은 사람한테 팔았지. 그런데 또 걸려서 “왜 팔았나?” 해서 돈 있는 것 다 수금해버리고. 그 사람 교화소는 안 갔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95년도겠다. 우리 한 인민반에 있는 여자애가 이렇게 안대를 낀 거예요. 야, 너 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쌍꺼풀 했다는 게지. 어디서 했니? 그러니까 OO병원에서 했다는 게지. 그래 말했으니까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탈북자들이 많이 한 거는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우리 딸아이도 보니까 이거 눈썹 했던데<sup>52</sup> 야, 너 눈썹 예뻐졌다 하니까 중국 와서 했다는 게지. 하니까 한번 애가 잡혀갔다 왔거든. 2001년도에. 그러니까 또 잡힐까 봐 무서워서 자기 눈을 크게 하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집에는 딸내미라는 게 둘 있는데 하나 죽고 하나 있는데 이 딸내미 직장 다니면서리 아저씨들하고 세계 친하다 말입니다. 그 집은 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도 본래는 그 여자가 교원을 했는데 중학교 교원 했는데 장사는 할 줄 모르고 생활은 어렵고 하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잘 차려 입고 길 거리에 나가서 남자들 맞아들이고 그런 거 하는 여자도 있어요. 남자도 이해를 해주죠. 밥을 먹지 못하니까 자기 밥이라도 먹여주면 된다 하고... 인민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디 회의 갔다 오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너무 그런 차림으로 매일 어디 갔다 들어오는구나 생각하다가... 그거 뭐 오래가지 못하니까 매번 들어올 때마다 다른 남자 앞세우고 하는 거 보니까...



### 2-2-8 | 인민반 생활의 고단함과 회피하는 비결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누구나 북한에 있을 때 인민반 생활이 귀찮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 인민반장 “드살이 심해지고” 뭘 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사는 형편이 점점 더

**52** 면담 대상자 중에서 여성들은 북한에서도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해 주었다. 눈썹을 한다/ 눈썹 짙는다 같은 표현은 눈썹 문신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한편 입술을 한다/ 입술 짙는다 하는 표현은 입술선을 따라 문신을 한다는 말이었다. 문신 도구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물어보면 장마당에 나가 중국에서 들어 온 문신 도구를 찾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북한에서 다 불법이고 또 이른바 그루빠가 나서서 단속을 하면 잡혀서 노동단련대로 끌려가거나 형기를 받고 교화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 만큼 뇌물을 주고 비밀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달리 보상이나 수습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도시와 농촌 지역 인민반 생활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고 같다” 하고 이들은 주장했다.

“

시내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도... 인민반 생활은 농촌에도 있긴 있어요. 뭐도 조금씩 거둬내고 이러는데 도시처럼 그러진 않아요. 농촌에서는 뭐 크게 도로 청소라는 것도 없고... 그저 제 집 앞에만 쓸면 되는 거지. 무슨 농촌 길에 도로가 있거나 해요? 큰 길 하나 있어도 그거 다 흙 도룬데 뭐. 별로 크게 하지도 않아요. 농장에서 약간 좀 하고 시내처럼 그런 청소는 안 하던데 인민반이...

농촌에는 실상 인민반 생활을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농촌은 어떤가. 농촌 구성이 다 농장원이잖아요. 기껏해야 교원, 사무원이라 하면 교원하고, 안전원도 한 둘씩, 보위원도 한 둘씩, 요런 사람 몇 치고는 공무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농장원이거든요. 인민반 생활 하는 건 노인들 뿐 이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민반이라고 하면 집에서 노는 사람들로 운영되는 게 인민반이거든요. 사회생활 하는 건 제외니까. 맨 노인들이니까... 농촌은 인민반 생활이 그런 면에서 힘들죠.

”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 생활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이유는 이론적으로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지만 실제로 인민

반장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른바 “가두녀성” 집단인 30-40대 전업주부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up>53</sup> 이들은 인민반 생활을 하면서 또 여맹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인력집단이라서 인민반 생활이 더욱 고단한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몇 사람 남지도 않는 여자들 동원해서 날마다 떨어지는” 각종 과제를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반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30-40대 여성 중에는 직장에 이름만 걸어 놓고<sup>54</sup> 한 달에 얼마씩 8·3돈을 내면서<sup>55</sup> 여맹과 인민반 동원을 피하는 편법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53** 북한에서는 큰 공장이나 기업소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몰려 있는데 이 곳을 가두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두에 머무르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전업주부를 가리켜 가두녀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두녀성이라는 표현 역시 부양과 마찬가지로 전업주부를 가리키는 북한 특유의 용어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54** 면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직장에 이름만 걸어 놓았다거나 직장에 적만 붙여 두었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은 곧 직장의 구성원으로 출근하는 것처럼 문서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직장에 나가지 않고 개인적인 장사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문서상 어느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꾸며 놓으면 인민반 동원을 피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자신이 알아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런 일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게 마련이다. 이름만 걸어두고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 직장에 출근하고 조직 생활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주는 대신 매달 자신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만큼 직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이들은 말해 주었다. 이 돈을 대체로 8·3돈으로 부른다는 것이었다.

**55** 8·3돈이라는 명칭은 그 유래가 다소 복잡하다. 원래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경공업제품 전시현장을 둘러보던 김정일이 소비품 생산을 늘리라고 독려하면서 공장마다 남은 원료를 활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판매할 것을 지시하면서 8·3제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공장에서 남은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다 보니 정품보다 하자가 많은 물건이 나왔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8·3제품이라는 명칭은 점차 어딘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가 장사를 다니면서 만난 남녀가 마치 부부처럼 같이 어울리는 현상을 8·3부부라고 부르기는 등 이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퍼져 나가다가 마침내 직장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는 현상을 가리켜 8·3돈으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8:3제품 만드는 일 했습니다. 저도 교사로 일하던 학교에는 그냥 적을 걸어두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학교에 나가는 대신 따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장사가 아니니까 저도 원료공장에 돈을 좀 들여 놓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낸 건 아니었어요. 일 년에 12,000원 정도 냈었나... 했습니다.

그래 인민반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는, 그리고 또 인민반 생활 하면 여맹도 있잖아요. 여맹 조직 있지, 인민반 있지, 그러니까 이중생활 해야 되잖아요. 뭐 또 한 주에 한 번씩 연구실에 가서 학습을 꼭 해야 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민반에도 보면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인민반에서 내라는 거 몇 천 원씩 홀 내고. 나한테는 그저 인민반 생활 총화에도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고 나는 이제 장사 갑니다 하고 집에 있어도 참가 안 한단 말입니다. 시끄러우니까.

인민반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민반 생활 힘들어 가지고 그냥 직장에다가 내가 이름이라도 걸어놓잖아요. 그럼 직장에 다니긴 다녀요. 지금은 직장도 이름만 걸어놓고 8:3돈으로 한 달에 만 오천 원 내면 직장에 출근한 걸로 쳐주거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부인들이라도 직장에다 이름만 걸어 놓으면 인민반 생활 안 하거든요. 직장에 가서 직맹 생활 하면 여맹이고 인민반 생활은 빠지잖아요. 그래서 인민반 생활 시끄

러워서 직장이다 이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걸기도 험하진 않아요. 그 것도 또 다 그렇게 안 시켜 주잖아요.



### 2-2-9 | 인민반의 비공식 기능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반 내부에서는 공식적 기능이나 역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다나모시” 관행은 한때 한국사회의 중년여성들 사이에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던 계모임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다나모시는 여기서 계모임 하는 것처럼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첫 달에 너가 가지고 두 번째 달에는 너가 가지고 계랑 같죠. 그걸 옛날에는 다나모시라고 했어요. 인민반이 20집이라면 가까운 열집이 모여서 약속을 한다 말 이야. 오늘 우리 집에 열다섯키로라면 내가 한되박씩 모으는거야. 열이 모이면 열되박 되잖아. 다음 달에는 니가 가지고 그렇게 다나모시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에 친척이 있어야 장사할 때 유리해지니까 인민반을 중심으로 가짜 친척 만들어 내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고 증언해 준 북한이탈주민도 많았다. 모든 서류에 인민반장 서명이 있

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반 내에서 “서로 말을 잘 맞추고 현실을 조작해 놓은 뒤 그 내용에 맞게 문서를 꾸며서” 가짜 친척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에 인민반장은 물론이고 같은 인민반에 사는 이웃주민에게도 “예술적으로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도덕”이라고 면담 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말해 주었다. “성의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해 보았더니 “도덕이 없다” 하는 비판을 받는다는 대답이 나왔다.



가짜 친척 만드는 거... 그저 보위부하고 안전부, 그 뭐 인민반에도 안전원도 살고 무슨 뭐 보위원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무슨 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는 친척이 있는데 무슨 또 엮어가지고 우리 친척이 있다하면 우리 친척의 이름을 저기해서 그, 저 쪽 중국 쪽에 그 지대를 좀 알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어떻게 이러면 그런가 하고, 음 뻔히 알면서도 속는 척하면서 해줘가지고 그래야 먹을 알이 있잖아요.<sup>56</sup> 그 사람들도 살 구멍이 있으니까. 솔직히 안전원이나 보위원들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속는 척하고 그렇게 문건을 만들어 쥐가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2-2-10 |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인민반의 역할

북한당국은 2009년 11월 30일 이른바 제3방송을 통해<sup>57</sup> 제5차 화폐개혁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sup>58</sup> 당시 세대 당 구화폐 100,000만 원을 신화폐 1,000원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이 북한당국이 발표한 내

용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은행이나 저금소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구화폐를 거두어들이고 신화폐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이들이 들려주는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화폐교환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인민반으로 회의하러, 인민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인민반 가서.

**56**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먹을 일이 있다/없다” 하는 표현을 들을 수 있다. 북한에서 직장을 배치할 때에도 먹을 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분해서 뇌물액수를 다르게 요구하기도 하고 장마당 매대를 차지할 때 먹을 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장세를 다르게 받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막상 이 표현을 언제부터 널리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57** 북한에서 제3방송이란 일종의 유선방송 시설로 주민들 집 안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평소에는 조선중앙방송 라디오를 내보내다 당국이 특별히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당시 북한당국이 운영하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공식 매체에는 관련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3방송을 통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2009년 화폐개혁 시행을 앞두고 북한의 공식매체에는 관련 소식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제3방송을 통해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58** 북한당국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1차 화폐개혁(1947년 12월)에서는 일제 강점기 발행, 통용된 화폐 중 보조 화폐를 제외한 모든 화폐를 1대 1 비율로 교환하였다. 제 2차 화폐개혁(1959년 2월 13일)에서는 신규화폐를 100대 1로 교환하였으며 제 3차 화폐개혁(1979년 4월 7일)에서는 신규화폐를 1대 1로 교환하였다. 제 4차 화폐개혁(1992년 7월 15일)에서는 신규화폐를 1대 1로 교환하였으며 가구당 교환액수 제한을 두었다. 가장 최근인 제5차 화폐개혁(2009년 11월 30일)에서는 신규화폐 100대 1교환, 가구당 교환액수 제한을 두었다.

인민반 회의는 29일 날 저녁에 했어요. 30일에 화폐개혁 하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 모아 놓고, 돈 걷고 천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인민반장한테 가서 10만원주고 천원 받고 해요. 일단 다 돈 걷으라고 해서 언제 내일 모레까지 바치라고 며칠 있다가 돈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인민반 회의 때 다 나누어 준거죠. 10만원 바치면 5일 기다려서 그때도 배려금 500원인지 하고... 배려금은 사람 당 500원씩 나오고 그해년도 몇 시까지 태어난 아이한테도...

인민반장이 바뀌죠. 10만원을 바꿔주고, 10만원을 천원에 바꿔줬어요. 새로 나온 돈 천원짜리로 인민반장이 갖다 준 건 다음, 다음 날인가 줬어요. 왜냐면 그 돈이 도착하는 기가, 인민반 별로 이렇게 주는 데, 우리는 28반이니까 그게 1반부터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들이 가서 돈 날짜가 계산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든 통신망들이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하니깐.

인민반 회의도 하고 돈 나눠줬는데 닷새 동안... 백대일로... 그러니까 오천원 있다고 하면 50원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했는데 한 15일 지나매 쌀이 천 원 했으면 12원, 13원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돈 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뭐 방침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인민 반에서 회의를 해서 돈 쓰지 마세요. 1월 달 상품 푸니깐 내 복은 1원짜리이다. 그렇게 푼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1500원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중국 돈 못 쓰고, 300원 정도 그때 못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화폐 개혁하는 거 5만 5천원 하는데 중국 돈 못쓴다. 400원에 바꿨어요. 아빠가 돈쓰지 말라 돈 받자마자 친구하고 갈

이 시장 8백 원에 동복 사고 1원에 진짜 희귀했어요. 1원짜리 돈 다 써버렸어요. 집에 갔는데 엄청 욕먹었어요. 제가 친구같이 친구 돈 500원 장사한 거예요. 물엿. 농촌에 가지고 엿 하는 게 없어요. 거기 가서 파는데 새끼 돼지 2마리 50원씩 샀는데 집에 가져왔는데 1월 달 되니깐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선 하여간 그렇게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바뀌줘요 안 바뀌주지. 그러니까 은행사람들하고 사업하고 또 인민반에도 좀 친근한 사람들에게 돈 십만원이면 십만원 주면서 야 이거 바뀌서 가져라 그러면 또 바뀌 가져오면 그 다음엔 또 그 가져온데서 한 3% 떼어 주고. 그래도 아깝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화교들은 중국에서 온 화교들은 완전히 불태웠다잖아요. 별이 나서...<sup>59</sup>

화폐개혁 한 이후에 우리 그 돈이 몽땅 물이 되었어요. 한 집에 딱 10만원 씩밖에 안 바뀌주었어요. 10만원 가져다주면... 아, 인민반 별로 돈을 걷었었어요. 인민반별로... 인민반장이 한 집에 10만원 씩 든 봉투를 다 걷어 가지고 간 다음에... 인민반장이 정부에서 준 돈 천 원을 한 장씩 나눠 주었거든요. 은행에 그 술한 인구가 몰려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울고불고. 은행도 여기처럼 많은 게 아니라 읍에 은행이 하나 있고 저금소가 하

**59** 별은 내장 기관 중에서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예전에는 남복의 구분이 없이 널리 사용하던 표현이었다. 그런데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화가 몹시 났다는 의미로 별이 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나 있었어요. 군 저금소 하나 있고 군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술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아우성을 쳐도 뭐...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인민반별로 조직 사업해 가지고 인민반장이 매 세대에서 10만 원짜리 든 봉투를 다... 세대주들 이름을 적은 봉투를 다 걸어 가면 봉투 한 장에 새 돈 천 원짜리 한 장 들어간 봉투를 한 집에 하나씩 나누었어요.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사회 전체를 지배했던 충격과 혼란상을 걱정적으로 토로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아주 많았다. “하루라도 빨리 그 내막을 알고” 미리미리 “위안화나 달러로 바꿔두거나”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전 날부터 물건을 마구 사들여 놓은” 사람은 모를까 뒤늦게 화폐개혁 소식을 들은 북한주민들 반응은 그야말로 “세상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리뛰고 내리뛰고” 온통 아우성이었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당국은 인민반 단위로 강연을 하면서 “이제 곧 사회주의가 다시 찾아오고 물건 값이 예전처럼 천분의 일이나 백분의 일로 툭 떨어질 것이니까 신화폐를 쓰지 말고 돈을 꼭 쥐고 있으라” 하고 강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만 했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가족 전체가 집단자살을 감행하는 집안도 많았고 “돈을 다 불태우거나 강물에 흘려 버리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결국 “이 놈의 나라는 인민이 아글타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물로 만들어 버리고” 못살게 굴기만 한다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이었다.



화폐개혁 이후 제가 2월달에 나왔는데 그 때 가족단위로 막 죽고... 돈이 다 하루아침에 물을 만들었으니깐.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반항심이나 같죠.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한꺼번에 온 집안 식구가 집단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1월 13일인가 그 때 평양시 당책임비서가 평양시 인민반장들을 다 모여놓고 사과했어요. 그게 평양에서 전화왔더라고요. 그 날 바로 그렇게 사과했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간부들이 화폐개혁 이후에, 아직 백성들이 지금, 아직 한 달이 지나도록 2009년 12월은 한 달 동안 인민반에서 돈을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면서... 인민반에서 돈 쓰지 말라고. 그 돈이 100원이면 나중에 얼마든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어쨌든 강성대국의 문이 다시 열린다고<sup>60</sup> 그랬으니깐... 신화폐 100원만 있으면 가산을 다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속았다고... 이 놈의 나라는 백성이 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보는구나 하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높았어요.

**60** 북한당국은 1912년 4월 15일에 출생한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2012년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이 시기가 되면 강성대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막상 2012년에 들어섰을 때 전체적인 여건은 북한당국의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도 않은 채 조용히 강성대국 구호를 버리고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다가 그나마도 쓰지 않는 방식으로 곤란한 위기를 넘기려 했다. 2018년 현재 북한의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는 더 이상 강성대국이나 강성국가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배급도 없고 가격도 안 떨어지고 상품은 없고 하니까는 먹고는 살아야 겠지, 아이들도 학용품 준비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야 되겠지. 북한도 그 해 2009년도 12월 달에 조류독감 때문에, 신종플루, 독감기 때문에 학생들 방학을 일찍 시작했어요. 1월 달 본래 방학인데 그 때 당시 11월 달부터 방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 본래 방학인데 1월부터 개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화폐개혁 했으니깐 지금 돈 1전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개교 시작되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학용품을 못 샀어요. 학교 가서 쓸 연필조차 없어요. 장마당에 가서 사자고 보니깐 새 돈 천 원짜리 한 장 달랑 가지고 아이들 학용품 준비하려고 저도 장마당 갔어요. 갔는데, 가격은 엄청 뛰어 오르고 그나마 장마당에서 팔지를 않아요. 왜. 또 오를 거니깐. 또 부동켜안고. 그래서 아이들 개교를 시작해야겠는데, 학습장도 없고. 그 때 저는 아이를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학용품 준비 못해가지고 엄마들이 장마당에 나와서 울상이 되가지고, 언제 장마당에 상품이 들어오는가 한탄하는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그 때 당시 그래도 간부들이 말씀하는 건, 그 때 당시도 그래도 갖고 있어라. 그래도 들어오겠지. 계속 쓰지 말라 했거든요. 새 돈을 쓰지 말라고. 사람들 자꾸 장마당 나가서 상품 가격 더 오를까봐, 그나마 자꾸 사니까, 쓰지 말라 했거든요. 결국에는 1월 달이 지나가고 2월 됐는데도 상품이 안들어오니까는, 쓰지 말란 사람들이 그저 원망하면서 그 때 당시 믿지 않고 썼으면 그 때 당시 가격은 그나마 싼거든요. 그 때 당시 용감하게 쓴 사람들은 그래도 또 살았고 그나마 안 쓴 사람들은 이 천 원짜리 한 장가지고 쌀 1킬로 밖에 못 샀어요.



## 2-3

# 인민반의 구조

### 2-3-1 | 인민반의 구성원

인민반의 구성원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해당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민반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이른바 “가두녀성”으로 부르는 30-40대 전업주부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직장에 배치를 받지 않고 세대주인 남편 명의 아래 “부양을 받는 가두녀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맹에 들어가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인민반에서도 조직생활을 하고 여맹에서도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인민반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는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또 인민반 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 아이 엄마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여맹 활동도 해야 하잖아요. 여맹 조직 있지, 인민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조직생활을 이중생활 해야 되잖아요. 뭐 또 한 주에 한 번씩 연구실에 가서 학습을 꼭 해야 되요. 여맹에서 학습해야 되지. 인민반 해야 되지. 여맹에서 여맹대로 내려오는 뭐가 또 있어요. 여맹에서 내려오는 동원도 해야 되지. 여맹에서 돈을 내라 하면 돈을 내야 되지. 인민반에

서 걸레 내라 하면 걸레 만들어 내야지. 방석 만들어 내라면 또 만들어 내야지. 뭐 장갑, 어쨌든 이런 사소한 세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인민반에 명단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그 직장을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민반장이 이들을 동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직장에서도 당원의 조직생활과 “당에 들지 못한” 사람이 직맹이나 농근맹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방식은完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어쨌거나 매일 출근하는 사람을 인민반에서 동원하는 일도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년단이나 청년동맹 소속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인민반에서 쉽게 동원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인민반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로 30-40대 연령층의 전업주부를 의미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면담 과정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노인은 그 사람이 당원인지 여부에 따라 인민반 활동에서도 여러모로 다른 점이 많다고 했다. 인민반의 노당원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당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 연로보장<sup>51</sup> 받고 난 이후에도 비당원과 다르게 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모범을 보인다는 것인지 질문했을 때 이들은 남보

다 앞장서서 인민반 동원에도 나가야 하고 인민반장이 뭘 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신속하게,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져다 바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에서 은퇴하고 연로보장 상태로 들어간 “노당원” 입장에서는 당원이 된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요즘은 연로보장 받은 사람은 내가 당원이 된 게 후회스럽다고 도리어 한탄이에요. 연로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인민반 조직을 통해서 당에서 뭐 해오라, 뭐 내라 하면 계속 시달려야 하니까... 당원 아닌 사람은 그렇게 시달리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당원 아닌 사람은 연로보장 딱 하고 나면 인민반에 소속돼서 조직생활이라고 하기는 해도 인민반 회의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는 것, 그것만 하면 다른 건 뭐 굳이 더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별 거 없죠.



**61** 북한에서 연로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정년퇴직을 의미한다.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연로보장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엄격하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본인이 원하고 직장에서 허용하면 해당 연령이 지나도 계속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한참 식량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연로보장 연령이 지나도 직장에 계속 출근하겠다는 사람이 드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 이유는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하루 식량 배급량이 700그램인 반면 특별한 공로가 없이 연로보장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분량이 300그램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에 있을 때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은 하루 식량 공급량을 600그램으로 정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 2-3-2 | 인민반 세대수

한 개 인민반은 몇 세대 정도로 구성하는지 질문했을 때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답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보통 한 인민반은 70세대나 80세대 정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20세대 미만이라는 대답도 나왔다. 몇 세대를 하나의 인민반으로 묶는가 하는 기준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차이도 크지만 시간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가까운 국경지역의 중소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개 현관을 하나의 인민반으로 묶어둔다거나 원래 40세대 수준이었는데 인민반 내에 탈북을 목적으로 도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감시체계를 촘촘하게 하려고 세대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서 인민반장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24세대가 저희 인민반이었어요. 아파트 두 개를 합쳐서 한 인민반 거기도 어떻게 보면 24세대.

2008년도에 보위지도원이가 각 인민반에서 장악해야 되겠는데 못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대로 줄였어요. 그 전에는 40세대. 기본적으로 4,50세대.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30세대도 됐다가 40세대가 이랬는데요. 기본적으로 4,50세대예요. 나중에 20세대로 다 고쳤어요. 2008년도에 그랬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인민반당 보위지도원이 스파이래요. 동향이 어떤가 늘 살피고...장사는 안하는 데 돈이 어디서 나나. 동향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민반이 저희가 좀 기준이 작은 축입니다. 한 70세대. 70세대 인민반이면 서로 잘 모르죠. 뭐 솔직히 지금 인민반이 30세대, 25세대 있어도 다 먹고 살겠다고... 대충, 우리 인민반 사람이라는 건 동원 나가고 하니까 알지만 구체적으론 잘 모르죠. 대개 인민반에서 ‘우리 동네에서 누가 누구네 가고 없다’ 이런 건 알고 있죠.

2006년도에 내가 도매소 마을에 옮겨 왔거든. 그런데 와보니까 그 7세대...<sup>62</sup> 우리는 그걸 7세대라고 불렀는데... 우리 인민반에 있었어요. 회령에는 상표도매소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도매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매소랑 같지. 그걸 도매소 마을이라고 했거든. 한 인민반이 70세대 되는데 거기 7세대가 살았거든

인민반에서도 도강하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도강하는 사람 많아지면서 인민반장이라는 사람이 힘들어진 거예요. 매집마다 탈북하는 사람이 있는지 다 단속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마 숫자를 줄인 것 같아요. 세대수를...

**62** 회령 출신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간혹 7세대 관련 내용을 거론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회령은 별다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경지대 지역이었는데 김정일이 그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떠오르면서 생모 김정숙의 위치가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고향으로 알려진 회령을 전격적으로 꾸미는 작업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김정일의 지시로 북한당국이 회령 중심가에 집을 마련해 놓고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김정숙의 일가친척을 “모셔다가” 거주지를 제공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는 데 불편하지 않게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셔 온” 김정숙의 일가친척이 살던 집을 회령에서는 7세대라는 명칭으로 구분해 놓고 특별히 대접해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머니가 반장하시던 그 때 한 인민반에 스물다섯, 서른 세대 그 어간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국경지대라 인민반 인원수를 다 줄였어요, 가구 세대수를, 20세대 정도로... 그래야 인민반장이 통제하기가 그나마 쉽잖아요. 인민반장도 감시해야 하는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이래저래 걸리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저래 인민반 가구 수를 다 줄였다고 들었어요.



### 2-3-3 | 인민반장-위생반장-세대주 반장

행정조직의 말단 단위인 인민반은 그 내부에 나름의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하나의 인민반 안에는 대표 자리에 해당하는 인민반장을 필두로 위생반장과 세대주 반장이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생반장은 비교적 젊은 사람에게 맡겨서 인민반장 일을 도와주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세대주 반장은 인민반 내에서 제일 힘 있는 직장에 다니는 남성 세대주가 맡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야 인민반에서 “평백성” 수준에 불과한 주민들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떨어졌을 때 인민반장이 세대주 반장을 동원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세대주 반장이 별로 힘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주민들 부담이 한층 더 심해져서 힘들다고 했다.



인민반장은 위에 집 할머니가 하던데요. 난 그때는 집에서 놀았어요. 가니까 인민반장이 도매소 지배인 하다가 은퇴한 할아버지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배인 할 때 집을 멋있게 지어서 살더라 말이에요, 독집을...<sup>63</sup> 그 집 할머니가 인민반장 하데요. 조금 있다가 나를 위생반장 해 달래서 나는 위생반장 해 봤어요. 위생반장이 인민반장을 도와주고... 뭐 어쨌든 위생을 관리하는 거죠. 인민반 위생 지키고, 청소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민반장 말고도 위생반장이라고 또 있어요. 인민반장 있고, 위생반장 있고, 세대주 반장 있고... 한 인민반에는... 그게 끝이에요.

세대주 반장도 있고, 세대주 회의도 있어요. 왜? 큰 공사가 제기된다 하면 세대주 반장이 인민반 안에 세대주를 다 모이라고 해서 모아요. “아 우리가 사는 아파트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세대주들 이 정도씩 분담해서 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세대주 반장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63** 독집이라는 용어는 단독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체로 독집은 그 주변의 텃밭을 넓게 가꿀 수 있고 벽체를 공유한 이웃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창고 같은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 2-3-4 | 개별 주민세대-조장-인민반장-지역장-동사무소

### 구조와 비상소집망

일반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인민반장은 아침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괴롭히는 악당이지만” 막상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은 그다지 쉬운 과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전화나 문자, 메일로 약속 일정을 정하는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버거운 만큼 인민반장은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5-6세대 단위로 묶어 인민반 내 세대를 몇 개의 조를 만들어 둔다는 것이었다. 한편 인민반장을 관리하는 임무를 지닌 동사무소에서는 열 개 인민반을 묶어서 한 명의 지역장을 두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조직화한다고 했다. 결국 인민반장은 위로 동사무소와 지역장의 지시를 받아서 아래로 자신이 관리하는 인민반 내 조장과 개별적인 주민세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서 인민반장은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여러 사람이 말해 주었다.

“

인민반장이 한 댕집씩 조로 나눠놨어요. 1조, 2조, 3조 이렇게. 반장이 다니기 싫잖아요. 그러면 조장들한테 말하죠. 너네 조 다 데려오라. 그러면 조장들이 알아서 연락하고 같이 오죠.

동사무소에 또 열 인민반에 하나씩 지역장이 있어요. 지역장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침, 새벽이면 메가폰 들고 나와요. 뭐 몇 인민반, 역

전동 몇 반 도로 청소 안했다고 그렇게 불러대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단  
단히 통제해요. 그러니까 아침이면 무조건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해야 하니까.

시당에서 동사무소에 임무를 떨어지면, 동사무소에서 인민반장들 불러서 포  
치하죠. 그러면 또 인민반장은 종 때리면서 주민세대 모이라고 하는 것이  
죠. 이렇게 사람들 모은 다음에는 인민반 80세대가 다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하고 메가폰을 불러대면서 이걸 이렇게 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생각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돈 내라고 그냥 막 닦달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민반 조직체계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속  
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비상소집망으로서 주민세대  
를 묶어 놓은 인민반의 조직체계는 주민들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상업관리소에서 각종 물품을 분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주민세대를 대상으로 인구통계를 내려고 할 때에도 인민  
반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비상소집망을 동원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상업에서 통계를 내려고 하면 먼저 인민반장한테 말해서 그 비상소집망이  
라는 거 있어요. 일반 반장한테 가서 반장들 몇 시까지 모이게 해 달라 그  
럼 서로 연락을 해요. 일반 반장이 이반 반장한테 이반 반장이 삼반 반장

한테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일 몇 시까지 다 모여 달라 그렇게 하면 또 그 반장들 수고한다고 우리가 공급 좀 더 해 줘요. 그렇게 하니깐 그거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와요. 걷어 와서 인구통계 내고 그 다음에 또 위생반장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혹시 맡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사무소로 인구조사해서 알려주면 상업으로부터 자기가 덕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사무소가 인민반장을 통해서 짜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은 요소요소죠. 그저 죽을 거는 진짜 국민밖에 없죠.

상업관리소는 그 상품이나 가정에다가 그 배정표를 내 보내자면. 그러니까 한 개 동에 인민반이라는 게, 25-30개가 되어요... 그러면 그 인민반장들 우선 다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반장들이, 명단을 가지고 와요... 자기 그 인구 명단을... 그렇게 가지고 오면, 그 명단에 기초해 가지고, 맨 처음에 선택을 해요... 맨 어려운 가정을 말해라 해서 그 집들 우선 가정방문을 해요.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그 인민반에 가서, 지금 살아있어야만 주민등록증이 있거든요. 그거 다 거두어 가지고 오라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작성을 해서 그 공급표를 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 상황을 제일 알기 쉬운 것이 상업이에요.



### 2-3-5 | 인민반장-담당 보안원-담당 보위원

인민반에는 그 이외에도 담당 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보안원과 보위원이 상주하면서<sup>64</sup> 주민들의 실정을 확인하는 일을 늘 하고 있다

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담당 지도원은 일차적으로 인민반장을 통해서 주민세대의 실정을 파악하지만 그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말해 주었다.

“

아파트고 단층이고 다 있어요. 집 건너 그저 그 구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러게 아침에는 안전원들이 돌잖아요. 인민반 한 다섯 개 인민반을 그 한 서너개 아파트를 안전원 한 명이 맡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 지도원이라 해가지고 와서는 뭐 괜찮은가, 앓는 사람 없는가, 중국에서 친척 온 게 없나, 어디 외부에서 친척이 온 게 없나, 왔는데 무슨 뭐 갔다든지 숙박등록은 했나 뭐 어쨌나. 그래서 그 담당지도원이 항상 들지.

안전원이 아파트 몇 개를 담당해 가지고 매일 사업 업무가 그렇게 되지 뭐. 우리 인민반이면 우리 인민반에서 인민반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는 그 집은 어떻게 사나 무슨 뭐 말 잘 하다가 또.

”

**64** 보안원이란 인민보안부 직원이라는 뜻으로 한국사회의 경찰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민보안부는 예전에 사회안전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보안원도 안전원으로 부르기도 했었다. 한편 보위원은 국가안전보위부 직원을 의미한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가장 유사한 형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민반 속에 자신의 밀정을 심어 놓고 주민세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보안원이나 보위원의 수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보안원이나 보위원 중에서는 규정상 자신이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에서도 직접 담당하기 싫거나 귀찮은 업무가 있으면 그런 일을 처리하도록 인민반장에게 떠넘기고 뇌물이나 받아 챙기려고 주민세대 속에서 “꼬리표가 달린 집만 따로 골라서”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밀정이 있거든요. 인민반이에요. 다 인민반에 심어 두죠. 그런 사람이 누구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아서 무마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거든요. 그 대신 잡아넣지는 않죠. 보위원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배급이나 로임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죠.

라디오 검사하는 걸 뭐 경찰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경찰이 다른 업무도 많으니까 대개 저... 인민반장 시키고... 뭐 세포비서...<sup>65</sup> 공장 각 기업소 세포비서, 그런 사람한테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오면 “너 라디오 들어?” 그러면 “라디오 있긴 있어. 근데 뭐 봉인 아직 안 했는데 봉인 할게. 어제 라디오 샀는데 봉인 할게. 등록할게” 뭐 이런 소리하면 “왔던 김에 술이나 한잔 먹어라” 술 한 잔 대접해서 보내면 얼굴이 시뻘겋게 나오면서 그냥 가서는 그 집에 없다고 그러면 끝이고. 다 그렇게, 라디오도 다 그렇게 된

거죠. 뭐 하여튼 뭐든 여기서 설명하라면 내 뇌물 어떻게 찾았는지 다 설명할 거 같아요. 질문만 들어오면.

숙박검열이라는 게 사실상... 고난의 행군 한창 하면서 사라졌죠. 보안원들도 자기가 직접 하기 싫으니까 인민반장보고 하라고 해요. 인민반장이 찾아와 문 두드리면서 “손님 안 왔지? 없지? 느그집에” 그러면 또 “너희 집 친척이 오면 나한테 알려라” 그리고 그게 다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은 대기집이다. 대기방<sup>66</sup> 하는 집이다... 하는 거 알아도 뭐... 신고하는 거는... 별로... 없죠. 보안원도 다 알죠. 그 담당 보안원도 알죠. 담당 보안원도 그리 가끔 와가지고... 술 먹고 싶어지면 그 집에 그냥 오죠. 술 주면... 술만 주냐? 돼지고기, 거긴 북한에 술... 술 먹고 두부 주는 거... 두부 주는 거는 뭐 저 조금 자기 손님 오면 조금 올 손님, 고기, 돼지고기 삶아주는 사람은 뇌물 넣는 거죠.

**65** 북한은 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당원이 비당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목표를 입당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조선노동당에서는 당원 한 명이 사람 몸의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몇 사람의 당원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세포비서를 둔다. 말하자면 세포비서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 체계상 제일 말단을 차지하는 하급직이지만 5명-30명 정도의 당원을 거느리는 간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66**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불법적으로나 탈법적으로 장사를 하러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주로 기차역 주변의 민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돈을 받고 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곳을 가리켜 대기집이나 대기방이라고 부른다.

인민반에도 감시반이 있단 말입니다. 담당 보위원이 이 집을 딱 감시해라. 저 남편이 밤에 어디를 가나 잘 지켜봐라... 이렇게 임무를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감시의 눈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 2-4

### 인민반 내 사회적 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고 심정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은 이들이 북한에서 사는 동안 여성과 장애인,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듣는 일이었다.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사는 동안 소수자와 장애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그런 사람을 향한 사회적인 처우는 어느 정도 심각하거나 부당하지 “잘 모르고” 또 “나는 굳이 그런 일을 알 필요가 없는 위치에서 살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사는 동안 소수자와 장애인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잘 몰랐다는 사실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상 만나 볼 수 없었다. 탈북 이후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도 주변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보는 시선이” 싫어서 왜 차별을 하느냐고 항변을 하던 사람도 막상 자신이 북한에서 살았을 때 이웃에서 생활하던 소수자와 장애인을 향해서 차별적인 언사를 쏟아낸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특정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질문하면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은 “나는 그런 사람들 일을 잘 모른다” 하는 대답을 반복적으로 들려 줄 따름이었다. 간혹 북한에서 사는 동안 자신은 일상적 생활 환경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또 만나야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하고 유난히 강조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별히 이런 내용을 유독 강조하는 면담 대상자는 내심 자신은 북한에서 소수자나 장애인 같은 사람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위치에서 살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심 자신은 그런 “평민/ 평백성/ 하바닥” 사람과 다른 인물이라고 구별짓기<sup>67</sup> 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67** 피에르 부르디외가 제시한 구별짓기 개념을 적용해 보면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고급문화의 소비자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스스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위 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심층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몇몇 유형의 소수자와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지켜 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그런 처지에서 숨죽이고” 살았던 경험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험이나 인식이 북한사회의 보편적 수준을 드러내 준다고 평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민반 생활 경험담이야말로 일반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주는 유일한 창구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북한에서 사는 동안 주변에서 장애인과 소수자의 삶을 지켜 본 일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도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이웃집 형편을 잘 아는 인민반 생활 경험담을 회고하다 보면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일본 귀국자, 중국 연고자, 아이노꼬,<sup>68</sup> 장애인” 생활 형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곱추가 한 명 있었어요. 편의봉사관리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봉제를 해요... 국가에서 급여를 바라지도 않아요. 급여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해요. 재봉일 해서 수익금을 요만큼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활하는 거예요. 사는 형편이 힘들죠. 그래도 곱추나 손발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니까... 구두수리 해도 괜찮은데... 더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힘들죠. 부모 이외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죽을 때 잘 데리고 죽어야 한다고, 형제들도 그렇게 말한대요. 엄마 죽을 때 잘 데리고 죽으라고 우리는 형제라도 형제도 돌봐주지 못하니까... 한국에 와 보니까 복지관도 있고, 꽃동네 이런데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인민반에는 일본 귀국자집이 한 집 있었어요. 40-50세대 중에서... 중국 연고자는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장애인은 두 명이 있었나... 한 명은 언어장애인, 또 한 명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뇌 발육부족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인민반 내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 관련 내용은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들려준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각자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직접 겪은 인민반 생활 경험담을 회

**68** 아이노고는 원래 일본사회에서 아이누 부족의 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용어였다. 아이누 부족은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불가촉천민” 수준의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 따라서 아이노고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매우 부족한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당시 조선에서는 혼혈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의 변질이 나타났던 것 같다. 해방과 분단을 겪으면서 당시 남북한 사회에는 각각 아이노고라는 용어를 혼혈인이나 그 자녀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이 용어가 정치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고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판단 아래 점차 사용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에는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말았다. 반면 북한사회에서는 혼혈인 숫자도 많지 않았던 탓인지 여전히 아이노고라는 용어를 쓰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구자가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갈무리 해 두었다가 유형별로 정리하여 소개한 것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4-1 | “여자는 남자의 반값”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소수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물론 북한사회에 태어나 살아가는 여성 중에서도 도저히 소수자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 예외적 상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서 여성이 개인의 능력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쩌다 사회적으로 인정할만한 지위에 올라선 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모두 고위 간부인 남성과 혈연이나 인척관계로 얽혀 있거나 운이 좋게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행운을 누린 접견자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예외적인 사례인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 사유가 없이 평범하게 태어나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북한사회에서 늘 “남자의 반값” 취급을 받으면서 “평생 세대주인 남편의 식사보장 하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전전긍긍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들은 말해 주었다. 당연히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민반 생활 경험을 정리해 보면 “남자의 반값인 여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게 살아가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여자라고... 어쨌든 조그마할 때부터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이기도, 또 북한에는 남자는 100프로지만 여자는 50프로다. 이런 말을 또 계속 하니까... 그런 말도 해요. 남자는 다 완성됐는데 여자는 50프로 남자의 절반이다. 이렇게 완성됐다고 할 수도 없고 가만 생각해보면 남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서는 좀 인력이라던가 많고 힘이 세고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위주로 좀. 남자를 세게 이렇게... 우상은 아닌데 어쨌든 여자는 힘이 약하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자는 50프로다. 남자는 100프로다 이 말. 지금까지 계속 그 말은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사로청 위원장이 여자다 이러면 남자가 이렇게 좀 깔보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아마 남자를 쓰는 거 같아요. 여자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하다가 안하겠다고 그래요. 남자들 말 잘 안 듣고 좀 놀리잖아요. 여자가 하면 뭐 어떻다고 놀리지는 않아도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좀 장난도, 여자에게 장난도 치고 하니깐 좀 힘이 드니깐.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하죠. 지금도 여자는 50퍼센트라고 하는... 그건 이제 아마 북한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할 거 같아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자는 여자죠. 어디까지나... 북한에서 말하는 거 그래요. 여자들, 너네는 50%짜리인데. 어디 나서냐... 여자들 자체도 그래요. 우리야 50%짜리인데 100%짜리 남자들 너네가 다 해라 이래요.

인민반 가두에서 동원 나갈 때 다 아줌마들이 가죠. 어쨌다 세대주가 동원 간다고 하면 그 도시락이라도...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좀 많이 위니까 세대주 밥

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 옥수수밥 저쪽에 쌀밥 있으면 세대주 도시락만큼은 쌀밥을 싸주려고 하고 그러죠. 놀러갈 때는 조금 신경을 써서...



재미있는 사실은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은 남녀평등 사회인지 질문하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다 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었다. 조금 전까지도 여자는 남자의 반값에 불과한 존재라거나 “아무리 잘났어도 여자는 그저 여자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크게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북한은 남녀평등 사회라고 답변하는 장면을 지켜봐야 하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일 때가 많았다.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적 부조화는 적어도 대답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별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런 대답을 듣고 난 뒤 연구자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북한이 남녀평등 사회라고 주장하는지 다시 질문하면 이들은 소위 북한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sup>69</sup> 이야기를 끄집어내곤 했었다. 일찍이 “김일성 수령님 덕분에 남녀평등권 법령을 만들어 놓았으니” 북한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 나가다 보면 이들의 이야기 속에 남녀 차별의 관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인민반마다 매 맞는 아내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매 맞는 아내가 많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같은 인민반에 거주하는 이웃 사람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어보면 그야말로 여자는 남자의 반값에 불과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공고하게 굳어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민반 내 어느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주변 사람은 “솔직히 제 집 사람 제가 때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하며 묵인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이었다. 북한에 살 때 사회적 통념은 다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아내한테 “손을 댄 일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남편이었다고 자부하는 남성 면담 대상자의 이야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인민반의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안 맞아 본 사람이 얼마 없을 걸요... 그 몇 %가 때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일반 통념화되어 있다니까요... 여자는 반쪽, 절반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것이 일반 통념이니까... 그래서 맞아 야 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도 난 한 번도 손 안댔으니까...



**69** 북한 지도부는 분단 직후인 194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체제에서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당시 사회문화적 풍조를 생각하면 해당 법령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 하겠다. 북한당국은 이 법령을 활용하여 김일성이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인물인지 선전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누구나 “북한은 남녀평등 사회이고 그건 다 김일성이 남녀평등권 법령을 제정해서 여성의 권리를 찾아 준 덕분이라고” 말해 주었다.

## 2-4-2 | “불구는 여자의 반값”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의 반값에 불과하다고 서술하면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들의 사회적 시각은 그보다 더 “값이 없는” 존재로 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서 오랫동안 북한사회를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결이 다른 충격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sup>70</sup> 우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 이탈주민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 인민반에서는 장애인은 별로 보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밖에 나돌아 다니는 장애인이 많은지”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긴 장애... 그것도 사람이라는 거, 인격이 있다는 거 알지 거기 있을 때는 장애인들 인격 자체를 인정 안 해줬죠. 아니 사람처럼 말을 해도 벌써 그 사람 뭐... 대상할 때<sup>71</sup> 무슨 내하고 같은 평민인가 간분가 아니면 정말 답이 안나오죠. 그 가족들은 안타까워서 치료도 해보겠다고 해보고 이러지만은 실지 뭐 우리도 그런 환자들 오게 되면 그 가족이 열심히 막 이렇게 나오면 그 가족을 봐서 조금하는 척 해주고, 그렇지 않고 뭐 그러면 아이 구야 아스피린 줘서 보내고... 그렇죠. 영예군인들은 빼고 그..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애들 그건 사람의 축도 못가죠.

나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장애인이 많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은 어쨌든 여기서처럼 우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이 여기서처럼 많지도 않고... 여기 오니까 왜 그렇게 장애인이 많아요? 우리 있는 데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병신이라 하지. 불구자, 불구, 병신 이러는데 불구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보기 드물어요.

맹인학교하고 농아학교하고 있어요. 함경남도 덕산에 있는 거예요. 맹인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긴 다 듣는데 말 못하는 아 있잖아요. 가 하고, 또 한명은 그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장애인들을 하는 학교는 없어요. 글도 못쓰고 하니까. 지적장애아들... 그런 아이들 다니는 그런 학교는 없어요. 지적장애는 아니라도 형태를 딱 보면 아 자는 장애란 걸 딱 아는 거예요. 걷는 자세랑, 얼굴 모양새랑 이게 있잖아요.



**70** 북한이탈주민과 면담을 진행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이들이 “사람값” 기준에 따라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희소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관행을 언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해냈다. 김석향, “북한 내 ‘사람값’ 담론과 소수자 유형 분류 시도”, 『아세아연구』, 제58권 제1호(2015), p. 7-37. 참조

**71** 사람을 대상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남북한의 언어 관습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글자의 순서를 앞뒤로 바꾸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사례가 간혹 있다. 상대한다/ 대상한다 사례처럼 상호/ 호상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간혹 북한에서 장애인을 많이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당국의 지시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따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면담 대상자는 대부분 자신이 북한에 사는 동안 장애인을 격리하는 조치가 크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탈북 이후 국내에 들어와 살면서 그런 조치가 “나쁜 일이라는” 생각도 갖기 시작한 것이지 북한에 있을 때에는 별로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에서 김일성 지시가 내려가지고... 제 기억에... 어... 그것이 아마 83년도 인가? 제가 인민학교 4학년 때이니까, 무산에 왔을 때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신장이 크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난쟁이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 우리 학급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작아도 여 와서 다시 키를 재보더라고요. 다 와서. 학급별로 모든 사람 다 재보고 그 나이에 요만한 사람 아버지 키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개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 사람들 전부 후창<sup>72</sup> 지역 어딘가에 모아놓은 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난쟁이들은 낳을 때부터 아는 거죠. 그런 아이는 집에서 유치원까지는 부모 품에 있더라고요.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 지나면 내 자식은 난쟁이면 부모 이미지도 나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 주는 거죠. 그런 아이는 소학교도 제바로 못 다녀요. 중학교는 그 난쟁이

학교가 따로 있어요... 난쟁이 촌에 있으니까... 벌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sup>73</sup> 벌치기. 그런 기술을 배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어 찌든 난쟁이 촌 있어요. 제가 있는 동안 한 3명이 갔거든요. 거기로 시집가는 여자들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알던 데는 세 명이 시집을 가는데 다 불 임시켜서 가더라고... 본인도 알죠. 그렇게 다 당부 받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난쟁이만 모르겠죠. 난쟁이도 다 알겠죠? 부부관계를 해도 아가 안 생기니까. 그 때는 아무리 돈에 미쳐도 무슨 여자가 난쟁이 데리고 아이도 못 낳게 되는데 왜 그런 집에 가냐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생각도 못해봤지. 난쟁이한테 시집가는 그 자체가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지.



그 이외에도 고난의 행군 시절 “성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고단한 생활 여건 때문에 “돌봐주는 이 없는” 장애인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밖에 돌아다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의견은 결국 “여자가

**72** 양강도 김형직군의 예전 지명. 1869년에 후주와 무창을 병합하여 평안도에 설치한 군 단위 지명으로 후주의 ‘후’자와 무창의 ‘창’자를 따서 후창군이라 하였다. 1895년에 강계부 후창군으로, 1896년에 평안북도 후창군으로 변했다가 남북분단 이후 북한당국이 1949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자강도 후창군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이후 1954년에 양강도 후창군으로 행정구역을 바꿨다가 1988년에 이르러 양강도 김형직군으로 개칭하였다.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73** 벌치기를 한다는 말은 벌을 키워 꿀을 생산해 내는 양봉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당국의 통제도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양봉업을 하거나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남자의 반값이라면 불구는 여자의 반값” 대접을 받으면서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북한 장애인의 처지로 고난의 행군 시절의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

장애인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은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집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별만한 능력도 없고, 보면 나이 어리고 성성한 사람도 얼어 죽는 판에 그런 장애인은 고난의 행군 때 다 죽었을 거예요.

어쨌든 매일 아침은 아니라고 해도 며칠에 한 번씩은 길가다 보면 시신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시신이 발견되니까 무서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다 한 번 그러면 무섭다 생각하겠는데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데 성한 사람도 죽어나가던 때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때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장애인 없어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

그런가 하면 남북한의 장애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르다고 강조하는 면담 대상자도 있었다. 자신이 두고 온 고향인 북한 지역에서는 “선천적인 불구로 태어나는”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간혹 탄광이 무너지거나 차가 굴러서 다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

의 장애인은 대부분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사례가 많다고 했다. 반면 북한과 달리 “여기 오니까 몸이 뒤틀리는” 선천성 장애인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그런 유형의 선천적 장애인은 북한에서 보기 힘들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공기도 맑고 깨끗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자연산 식품만 먹고 살다 보니 늘 공해에 시달리는 한국과 달리” 선천적인 장애인이 태어나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었다.



손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안면이 이상한 사람, 걸지 못하는 사람, 무릎부터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북한은, 자연재해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데... 차 사고라던가, 탄광에서 무너져서 나는 사고, 그런 사고 나면 어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고 나면 집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있는 데는 여기서처럼 낱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 장애인, 뭐 이렇게 몸이 꼬이고...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낱을 때부터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보기 힘들 정도고... 장애인이라 하면 군대 갔다 다리 잘라진 거, 일하다가 골이 깨진 거, 머리 들고, 팔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이 더 많거든요.

가는 진짜 장애인이에요. 낱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거죠. 세계관이 안 트는, 말도 안 트는. 어, 어, 어, 하는. 가는 지적 장애인이에요. 키도 우리만

해요. 키도 크고 했는데. 말을 못하니깐 이 생각하는... 수준이... 사람의 사고 수준을 못 하는 거지... 그 아이는 집에 있는거죠. 교육은 안 시키고 집에 있는 거죠. 교육도 학교 자체에 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인민반에 소아마비로 태어나 가지고 38살에 죽었어요. 근데 한 번 밖에 못 나가보고 살았지. 뭐, 휠체어라는게 그런 게 없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려면 구루마 집에서 딸딸이라는거 이렇게 짐 싣고 다니는 거... 그런 거 타고 다니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장애인의 처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로 그려진다. 이들이 들려주는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은 그저 부모가 “밥이나 먹이면서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주는” 수준일 따름이라고 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장애인이 있으면 창피하게 여기면서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마치 집안에 장애를 가진 아동이 태어나면 수치로 여기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감추려 하는 일이 많았던 1960년대 당시 한국사회의 상황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곳이 북한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다만 각 도에 농아학교와 맹아학교가 한두 군데 있고 그 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재간을 배워줘서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왔다.



이런 사람들... 거의나 밖에 안 다니죠. 여기는 장애인이라 하면 부모가 더 학교도 보내고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저 부모들이 부양하는 거지 배워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고, 여기 오니까 진짜 장애인은 많아요.

장애인들이? 난 그런 아들이 학교 다니는 건 못 봤어요. 본래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다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부모들이 안 보내지. 애가 장애가 있으면 그냥 집에서 놀려요. 학교를 안 보내요.

여기 오니까 장애인들 학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있는 데는 장애인들만 따로 가는 학교도 없어요. 그냥 약간 학교 다닐 만 하다면 일반 학교에 섞여서 다니고, 학교를 거의나 안 다니죠.

그게 사회적으로 우선 부모님들 자체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교에 안 붙이려고 하거든요. 놀림당한다고 안 붙입니다. 장애 애들을 위한 따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갈 곳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집 안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놀고, 그냥... 그러다 부모님들 자녀가 죽기를 바란다는... 그러니까 죽기를 바란다고보다는 어떤 때는 한탄할 때가 있죠. 차라리 내가 낳았을 때 이런 장애가 있는 걸 알았으면 그냥 얹어놓고 그냥 젓 먹이지 말았던 거... 이런 생각하죠.

종성에 농아학교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고,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고, 말만 일단 못 한다 뿐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기 가서 교육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발사도 시키고, 재봉도 미싱도 배워주고, 재간을 배워줘서 나와서 써 먹을 수 있게 해요. 농아들은 처음에 거길 가서, 종성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예요. 농아 초등학교 되는 거 같아요. 중학교 같은 게 어디에 청진에 어디에 또 있겠죠. 도에 또 있을 거예요.

뇌성마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거죠. 학교도 못가니까... 못 가더라도. 가서 뭐 어차피 학교 가서 배운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해서 애가. 이러니까 우리 이웃에도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었어요. 다리가 이렇게 못 쓰더라고요. 두 다리가 다 그래가지고 쌍지팡이를 잡고 다녔는데. 머리는, 정신은 멀쩡한데 다리가 완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한동안 다니다가 자기도 내가 여기 다녀서 아득바득 다녀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 후에 크게 별일이... 여기 남한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먹고 못사는 세상이다 그런 인식이 좀 들어 뭔가 하겠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 시집에서도 시누이가 소아마비 하나 있었어요. 응 소아마비 앓았어. 그런데 우선 형제들 속에서도 따돌림 받잖아. 그거는. 자기 집에서도 따돌림 받는데 어느 사회도 접촉 안하죠. 형제도 자기 누이, 자기 동생 병신이면 어디 데려 다니기 싫잖아요. 창피해 하죠. 집안에서 자체가 그러니깐 사회가 더하죠. 재봉하고 그런 기술 자격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문학교까지 갔지.



북한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대체로 그 부모가 제대로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집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일도 많지 않아서 그저 사는 날까지 외출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배우자를 찾으려 할 때에도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짝을 지어주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장애인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간질병 앓는 사람도” 학교에는 보내지 못하고 그저 집안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집안에서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니 같은 인민반에서 가깝게 사는 이웃주민이 아니면 장애인의 생활 현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걸지를 못해 기어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학교에 못가요. 집안에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게 참... 왜 거기는 휠체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을 때에는 휠체어라는 게 영예군인<sup>74</sup> 정도나 되어야 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휠체어 나오는 걸 볼 때 좋은 차 있네 했지

**74** 북한당국은 군대에 나가서 몸을 다친 사람을 영예군인으로 구분하고 등급을 부여해 놓는다. 그중에서도 특류영예군인은 평생을 돌보아 줄 간호사를 한 사람 배치해서 일상생활을 보살펴 주도록 규정해 놓았다. 현실적으로는 간호사 한 사람을 배치하는 대신 적절한 상대를 선정하여 아예 결혼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의무교육이라서 장애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공부를 시켜요. 교육의 질이 어떻든지간에 개네들은 학교 그냥 다녀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심한 장애를 가지면 학교를 못 다니죠. 부모들 자체도 안 보내죠. 걷지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헤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못 다니죠.

중학교 못 졸업했을 거예요. 내가 듣건대는 중학교 못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넛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교육은 뭐... 못 받는 거고 안 받고... 치료대책?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 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병원에 특별히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리 생겨났으니까 이거는 고치지 못 하는 병이구나.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집 엄마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 하고 손 갖고 하는데 나는 보고도 모르겠는데... 그 집 아이들은 알았다고 손 갖고 뭐라뭐라 하는데... 내 친구 엄마가 그러는 거 한 번 본 일 있어요. 또 저희 동네에 아이 때 소아마비고 언어장애 앓고 말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개는 시집갔거든요. 이쁘게 생겼는데 아이가. 같은 병어리끼리 또 시집장가 갔는데 잘 사는데 갔어요. 병어리지만 병어리 남자 집은 잘 살았어요.

결혼이요? 병어리들은 병어리들끼리 하겠죠. 같은 동네나 학교에서 만나면 뭐...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병어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다니면서 만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시집도 제대로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병어리라는지, 맹인이라는지, 딸은 눈도 다 보고 정상사람인데 병어리한테 시집가더라고요. 변이성 유전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갔는데 그렇게 가도 엄청 천대받더라고요.

8.3제품으로 아예 그 사람들에게서 뭘 걸지는 않고 팔 끊어진 여자는 인민반장도 했었고 장애인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겨서 화교랑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심층면담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직업, 결혼 등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거쳐 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로 보인다. 다만 영예군인의 경우에는 그 처지가 훨씬 낫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주변에 영예군인이 살고 있으면 인민반에서도 지원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좋은 일 하기 운동” 일환으로 물을 길어다 주거나 빨감이나 식량을 전달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가 손이 이렇게 되고, 귀가 귓방울 밖에 없었어요. 귓방울 밖에 없고, 귓구멍이랑... 그런 애였는데... 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인민학교는 졸업

을 한 것 같은데... 중학교는 다니다 못 다니겠다 이러면 그냥 선생님이 중학교 졸업을 안 시키는... 아마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개가, 또 사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딱 보면 남보다 못 하니까 위축받죠. 학교에서 위축받으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뭐... 집에만 두고 밥이나 주면서 뭐 그렇게 하겠죠.

우리한테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막말하면 병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장애인이란 소리 별로 안하고 나도 장애인이란 소리 여기 와서 들어보고... 그냥 불구다 하거나 놀린다 하면 병신이라고. 그런데 장애인하고 대화라는 건 별로 없어요. 장애인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모르고.

어떤 유형의 불구자도 교사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연단에 서면 눈이 어떻다, 입이 어떻다 말을 하는데 하물며 불구가 나서면 그 별명이 대단하지. 그니깐 교권이 서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그거 가지고 차별이라고 생각도 못해봤어

영예군인은 국가에서 달마다 무슨 상품 같은 거 병원에서 기름도 주고 그런 거는... 하죠. 그 정도는 해요. 영예군인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나무도 해다 주고, 쌀도 뭐... 좋은 일 하기로. 영예군인 지원하는 건 아이들 조그마할 때부터 세게 하라고 시켜요...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사항은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과 관련한 의학적 상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곧 면담할 때 이들이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같이 장애의 유형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 병명을 정확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뜻이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단순히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장애인의 병명을 자의적으로 서술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 장애인의 증상은 무조건 유전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아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희 인민반에서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그 무슨 막 피부에 이런 트러블이 뭔가 이렇게 막 생기고 이래서 임신기간에 약을 많이 먹었대요. 그랬더니 애가 다운증후군처럼...

제가 아는 애 할머니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 쪽에 말하면 벵어리. 벵어리인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얘기할 때. 말이 아니고. ‘음...’ 외치는 할머니가 그랬는데, 가네 언니가 또 그렇더라고. 개네 언니가. 유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언니 학교 안다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걸 했어요. 미싱. 재봉. 재봉을 잘 했어요. 집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런 분들을 봤고...

20년 같이 살았는데 큰아들은 농아학교를 안보내고 어쩔든 그 아들이 장  
가까지 갔어요. 근데 같은 농아를 만나서... 골라왔는지는 모르겠고 결혼  
식을 했는데 여자도 농아예요. 그런데 그 집 애들은 농아는 아니더라고요



### 2-4-3 | 노동자와 농민 =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

분단 초기부터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기치를 내세우며 이른바 “노  
동자-농민의 나라” 만들기 작업에 골몰했다고 선전해 왔다. 그렇지만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동자와 농민은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 위치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간부층과 완전히 다른 생활상을 겪는 것으로 드러난다.<sup>75</sup> 심지  
어 간부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간부와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하  
바닥에 사는 일반 평민은 감히 나를 올려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회상하는 면담자도 있었다.

**75** 면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이라는 용어를 자연스  
럽게 사용하는지 내심 놀라움 지경이었다. 연구자로서 최대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랜 세  
월 동안 “이른바 “노동자-농민의 나라” 기치를 내세웠던 북한사회 내부에서 “하바닥 사람과 간부”  
사이에 차이를 두고 그 차이를 당연하게 인식하는 현상이 팽배했다는 점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어쩌다 참지 못하고 한 마디 내뱉는 나의 분노를 마주  
할 때마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간부가 하바닥 사람보다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  
니냐, 그 정도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면 뭣하러 간부를 하겠느냐” 하는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예외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민들 사람 취급을 하게 잘 안돼요. 나는 큰 사람들하고만 노니깐, 그 사람한테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깐, 너네 인민군 누구 있지 또 신소 들어온 거야. 그런 일 생겨도 제가 직접 안 나서요. 사람들 시키는 거지. 가가 돈도 못 벌고 아야 그렇게 망하는 거죠. 벌써 다 아니깐 사람들이... 건드리면 괜히 그 언니하고 언니 나도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안하면 자기가 죽으니깐... 북한은 그렇게 안하면 못 산다니까요. 다 그렇게 해야 살아요. 지금 와서 왜 그렇게 살았는지. 사람으로서 나쁜 사람 만드는 데다. 여기 와서는 제 일만 딱 하고 사니까 그게 좋아요.



재미있는 사실은 똑같이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 처지라고 하더라도 농민은 감히 노동자와 맞서지 못할 만큼 뚜렷하게 신분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였다.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성분이 낮은 계층에 속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도 협동농장 농민보다는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 주민들 의견이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탄광집 아이는 탄광에서 일하고 농장집 아이는 농장에서 일하게 배치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농장집 아이가 친구들과 속에서 놀 기가 죽은 채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 인민반이 20-27세대...? 이 정도 되는데... 같은 인민반에서도 탄광 사람들하고 농장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탄광이 훨씬 낫죠. 북한에서 제일 못한 게 농장 사람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탄광 다녔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민반 안에서 협동농장 농민 자녀하고 나하고 어울리다 보면 내가 완전 우세하죠.

부모가 농장원이면 농장자식이면 학교 같이 가잖아요. 벌써. 농장자식과 공장자식하고 자식 볼 때 그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사는 것 자체 방식이 조금 틀려요. 공장은 배급제로 살고 농장은 분배제로 사니까. 농장은 분배제라고 일 년에 한 번 타갔고서리. 그걸 자기가 알아서 쪼개 먹고 있는데. 또 공장은 배급제니까 쪼개먹고 살거든요. 하루에 얼마 먹어야하고 우리가 몇일 살 수 있다. 보름에 한번씩 배급 주는데 농장세대는 여분을 모았다가 아껴 먹고. 농장에서 또 꾸러 와요. 와가지고 식량을 좀 얼마 꾸달라고 가을에 가서 어떻게 몇 프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갔고.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농장세대가 한 800에서 한 1000세대 있었거든요, 공장세대는 글썄. 100가구도 되나마다... 한 50-60가구 되려나?



그러다 보니 주변이 모두 농장세대인 환경에서 아버지 덕분에 혼자 공장세대의 우월한 지위를 즐겼던 사람은 그 시절을 즐거운 기억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시절 자신과 어울리던 친구들 모

습을 떠올려 보면 공장세대 아이들과 농장세대 아이들 처지가 완전히 차이가 나서 서로 “때깔부터” 다르다고 말해 주었다. 교복이나 차림새도 그렇고 점심으로 쌀밥이나 쌀과 강냉이 비율을 5:5 정도로 싸오는 공장세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면 농장세대 아이들은 늘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농장세대 자녀로 살다가 공장세대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내가 막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토로하는 면담 대상자도 있었다.



어쨌든 애들 때깔을 보면 공장세대랑 농장세대가 입는 거부터 틀리고, 노는 방식도 틀리고 서로 아이들끼리 패가 갈라져요. 공장은 공장세대끼리, 농장은 농장끼리 놀고. 공장세대가 더 수가 적지만 대신 애들이 단합이 세 거거든요. 농장애들은 다 제뿔뿔이고. 뿔뿔이라는게 여기서 한 명, 여기서 두 명. 다 널려있으니까. 공장세대는 아침에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출퇴근 같이 하니까... 입는 것도 공장세대 애들이 더 잘 입고 교복을 학교에서 주지만 그래도 뭐 교복위주로 안 입을 때는 공장세대 애들이 입는게 좀 틀리고. 학교가 좀 멀거든요. 한 30분거리 점심시간이 2시간인데 왔다갔다 안되니까 도시락을 싸오거든요. 도시락 싸오는 수평을 봐도 공장세대 애들이랑 농장세대 애들이 서로 틀리거든요. 공장세대 애들이 잘 싸온다고 봐야죠. 도시락도. 쌀밥을 싸오든가 이렇게 말하면 오대오 싸오든가 강냉이 쌀밥 싸오든가 밥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공장세대 애들은 쌀밥에다가 조금 안되면 강냉이로 5:5라던가 7:3 정도로...

우리 인민반은 거의 다 농장 자녀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농장원이 아니고 도로 관리원이었어요. 그러니깐 노동자 자녀니깐 그 지방에는 직장이 노동자가 많은 직장이 별로 없고 하니깐 시내 공장에...

시집가서 한 3년 있다가, 직장 나갔어요. 시멘트 공장 생필직장...<sup>76</sup> 그런 게 있는데, 들어가서 일 했어요. 거기서 손 구루마도 만들고, 바게뜨도 만들고 초롱도 만들고 이러는데... 협동농장 농장원 하다가 노동자가 되면 내가 막 높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요.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을 했겠지



#### 2-4-4 | 북송재일동포와 화교의 뒤바뀐 처지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20-30년을 돌아볼 때 고향 마을 인민반에서 북송재일동포와 화교는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집단이라고 서술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북송재일동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일본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조선인 중에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가 추진했던 북송사업의 결과로 북한으로 넘어갔던 사람을 집단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앞날을 전혀 모르는 채 그동안 일본 땅에 살면서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북송의 길에 나섰던 사람은 1959년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이르도록 무려 10만 명 가까운 규모에 이른다.<sup>77</sup> 북송의 길에 오르기 전에 “일단 갔다가도 원하면 언제든지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회유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일단 북한에

들어간 북송재일동포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떠날 수 없었다. 한 번 북한에 발을 들여놓은 북송재일동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북한사회에서 아주 독특한 집단으로 취급을 당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북한당국이 끊임 없는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가운데 감혀 지내면서 최하층의 성분으로 이른바 간첩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짜포”라고 비하하는 말도 들으면서 사회적인 천대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남은 가족과 친척이 보내주는 돈과 물품 덕분에 경제적으로 주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누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북일관계의 악화로 일본에서 오는 돈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면서 북한 전역에서 북송재일동포의 생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을 고스란히 겪기도 하였다.<sup>78</sup>

**76** 이 부분에서는 시멘트 공장 안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직장을 따로 설치해 둔 것을 의미한다. 생필직장은 비단 시멘트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큰 기업소나 공장에서 생산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일부 시설을 활용하며 소소한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런 소규모 직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77** Tessa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London: Rowman&Littlefield, 2007 참조.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이 책에서 국제적십자사의 기밀 해제 문서를 분석하여 1959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10만 명이 가까운 재일조선인 '북송' 및 '귀국'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분석해 냈다. 특히 재일조선인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북한적십자사와 함께 일본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뒤에서 일본정부와 북한당국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분석하는 한편 당시 "귀국선" 승선자로 북한에 갔던 북송재일동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서술해 주었다.

**78** 2000년대 초반,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났다. 고이즈미를 만난 김정일은 북한당국이 일본인을 납치했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물론 이렇게 인정했던 것은 김정일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 북일관계는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일본과 북한을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왕래하던 만경봉호 배길이 끊어지고 말았다. 만경봉호는 일본에 남은 가족과 친척이 북송재일동포에게 각종 생필품과 돈을 보내던 통로 역할을 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그 이후 북한 전역에서 북송재일동포의 생활 형편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로 참가한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

워낙에 짜포... 귀국자들은 일본에서 짐이 오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헤어진지도 오래돼서 만약에 이제 뭐 북한에 친언니라던지 어머니라던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그나마 뜬하지만 정기적으로 왔어요. 어머니나 형제들이 그거를 다 나눠 가지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된 데다가 일단 뭐 다 끊어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다 서서히 끊키더라구요. 그렇게 물건이나 돈이 오던 것도 한 대를 건너서는 안오더라구요. 그럼 이제 다 굉장히 한심해지는 거죠. 오히려 저 일반 사람들은 제가 일 해서 제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편한데...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짜포 같은 사람들은 늘 돈이 오다가 갑자기 이제 끊키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신 이제 화교들은 계속 중국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계속 부를 쌓아가는거고, 그래서 요즘은 화교가 돈이 많죠.

”

북송재일동포와 달리 화교는 북한에서 “예전의 처지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계층으로 변모한 집단이라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었다. 북송재일동포는 예전에 잘 살았지만 지금은 “형편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졌는데” 화교는 “힘들고 어렵게 똥지게나 지고 다니며 남새농사나 지으면서 천대를 받고 살다가” 북한과 중국이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 덕분에 생활수준이 전 없이 높아진 집단이라고 했다. 이제 북한에서 살아가는 화교와 북송재일동포의 뒤바뀐 처지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자 한다.

#### 2-4-4-1 | 인민반 내 북송재일동포의 생활수준 하락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예전에 북송재일동포들 생활형편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보내주는 돈과 물품으로 북한에서는 “남들이 먹지 못하는 거 먹고 입지 못하는 거 입고” 살아가는 북송재일동포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북송재일동포는 북한에서 사는 동안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외로운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서 별로 부럽지는 않다고 했다. 먹고 사는 형편이 넉넉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이웃은 없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감시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만큼 북한에서 북송재일동포는 정신적으로 외롭고 고단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다.



재일동포는 내가 우리 인민반에 한 두어 명 살고 우리 공장에 한 명 사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잘 살더구먼. 한 아이는 60년도 9차로 온 아고, 9차로 애가 귀국한 아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이사 온 집은 제1차로 온 집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짜포였거든요.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짜포들 생활은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외롭잖아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이웃도 없잖아요. 근데 개네들에게는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항상 저 사람들은 내한테서 돈을 보고 나를 친구로 삼으려한다. 돈 때문에 내하고 친구한다는 이런 의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친척

이란 게 없잖아요. 외롭잖아요. 항상 외롭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힘 들어 했거든요.



북송재일동포가 차별과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지 질문했을 때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완전히 상반이 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북송재일동포와 그 자녀인 북한이탈주민은 차별과 감시가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후과가 뺏속까지 스며들” 정도였다고 치를 떨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보위부에 불려가서 생활 정형 평가를 받으면서 혹시 어디론가 끌려가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배우자나 연애 상대를 만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만나는 것처럼” 북송재일동포 자녀는 비슷한 처지의 상대자를 만나는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북송재일동포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은 차별도 옛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하는 반응을 드러냈다.



쪽바리라고. 일본에서 왔다는 소리잖아요.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정말 안 좋은 말이죠. 일본에 대한 반발심, 증오감 많으니깐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대등하게 치고 하니깐 그게 싫은 거죠. 길에서 대놓고 놀리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세계 울

고 다니고 그랬어요. 어릴 때. 힘이 세면 같이 때리고 싸움이라도 하겠는데. 동생들이 순했어요. 그러니깐 좀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 왜 저렇게 무능력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인민학교 3학년. 좀 일찍 철이 들게 되더라고요. 동생들보다. ‘아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간첩이다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3학년 말기인가, 그 때 “재네 간첩이야”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한테 들은 거예요. 검사네 아이가 그랬어요. 제가 가한테 가서... 남자앤데 알고 보니깐 아버지가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가 간첩인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건가하고. 우리야 모르잖아요. 원래 낳았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을 답변을 안하시더라구요.

엄마, 아빠는 복송 된 상태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일본에서는 학교 때 같은 학교 다녔대요. 얼굴은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각자 복송된 상황에서 만나서.

알고 보니 아빠는 매주 금요일마다 보위부에 불려간 거예요. 그니깐 엄마가 지켰었다고 해요. 그 앞에 가서. 지프차 있잖아요. 소련 지프차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을 실어가는 거죠. 어디론가. 아버지를 항상 거기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 지프차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 지프차가 없으면 그 날은 끌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엄마 보고 집에 가라 하고. 그니깐 엄마와 할머니가 늘 안절부절하는데... 우리는 어릴 때니깐 아버지가 그저

늦게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깐 엄마랑 할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에서 반 머저리처럼 바보처럼 말도 크게 안 하고. 그렇게 하며 살은 거예요. 그니깐 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조금 시내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크게 못 느껴 봤겠죠. 자기 정치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일 못 봤으면 느끼지 못하겠는데...

내 또 일할 때도 짜포 같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다 같이 어울리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짜포지, 자식들이 짜포예요? 상관없어요. 성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도 그때 당시는 나라에다 신소를 하면 평양 가 산다. 그랬거든요.



북송재일동포 중에서는 잘 살다가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리소로 쫓겨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sup>79</sup> 그런데 이렇게 관리소에서 살다가도 일본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찾아와서 북한당국에 돈을 많이 헌납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민반 전체가 나서서 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주변의 다른 집을 모두 새로 칠을 하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근데 관리소 같은데 간 사람 많거든요. 나중에 해명이 되서 풀려나기도 하고... 그 때 당시 우리 집이 그 마을에 갔을 때 관리소에 갔다가 해명이 되어 풀려났는데...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에는 안보내고 우리 마을로 왔더라

구요. 소개민으로...<sup>80</sup> 우리 마을에는 그런 제일 북송민 세대가 한 열 집 남아있었어요.

그 집 아빠가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나온 거예요. 수용소에서 10년을 살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소에서 빼내오려고 형님이 일본에서 평양에 돈을 진짜 많이 냈대요. 십만 불인가 냈다고...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나올 때 인민반을 전부 다 미화했어요. 집들을 다 보수하고 다 칠을 해주고. 심지어 그 옆집은 창문도 달아줬어요. 저희 집도 곁에 칠을 다해주고... 저희 집이 단층집이거든요. 어느 날 방문단이 온 거예요. 일본에서...



#### 2-4-4-2 | 인민반 내 화교의 생활수준 향상

북송재일동포들 생활 형편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북한 내 화교는 점점 더 부유한 집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 속에서 계속 나왔다. “짜포들 발밑에도 따라가지 못하던” 화교 집단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 시작했던 시

**79** 관리소라는 용어는 북한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를 의미한다.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치범수용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은 사실상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들은 주로 18호 관리소/ 22호 관리소 같은 용어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80**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방으로 나가야 살아야 하는 사람을 소개민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었다. 소개민 중에서도 평양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다. 면담 대상자 중에서 자신이 살던 마을이나 근방에 평양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점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무렵이었다고 했다. 그 당시 북한당국이 화교와 중국 연고자에게 사사여행을 허용하면서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했다.<sup>81</sup> 이들이 한 번씩 중국을 다녀올 때마다 각종 생필품을 들고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이른바 “부족의 경제”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사회의 특성상 화교나 중국 연고자가 생필품을 들여오면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

화교가 잘 살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초부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화교 친구랑 같이 이제 유치원이랑 다녔는데 것도 80년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때도 오토바이랑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시고 어릴 때 기억이 아 중국사람 잘 사는구나... 하는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부를 좀 모아서 장사를 해도 어머마하게 하죠.

”

1990년 이전에는 북한에서 화교들 생활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당시에는 화교들 모두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하층민 집단으로” 살았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화교들이 전에는 힘들게 살았다. 옛날엔 힘들게 살았다 그런 소리 많고 학교도 못 갔어요. 대학도 못 갔잖아요. 전문학교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학은 못가더라고요. 학교도 크게 잘 다니지도 않잖아요. 옛날엔 화교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화교 자체가 다 마주쳐서 살잖아요. 북한 사람들 하고. 아이들도 다 일반 학교 다니는 거죠.

화교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화교들은 80년대까지도 진짜 차별을 받아가지고 대학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문학교도 가기 힘들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그 때 화교들 다니는 초등학교만 따루 있었어요. 화교 중학교는 청진에 있었어요. 중학교 다니자면 화교 아들은 청진까지 내보내야 되거든요. 도적으로 모이니까, 근데 훗날에 보니까 이젠 점점 그게 화교들도 더구나 중국에 건너간 사람들, 개방... 그 북한이 이렇게 되니까 건너간 사람들, 화교들은 자기가 조국에 가겠다면 다 보내주거든요 합법적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고 불법으로 우리처럼 막 강을 넘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그... 불법 이런 걸 해갖고 체포되게 되니까 갑자기 뭐 강을 도망친 사람들두 있구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나니까 그 학교가 인원이 적어지니까, 그 학교를 없앴어요. 우리 댐 있다가 중학교만... 내가 탈북 할 당시

**81** 공무역과 달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여행이라는 의미에서 사사여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았다. 북한사회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사사여행이라는 용어는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집을 방문하여 장사물건을 얻어오거나 “경제적인 방조를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에는 그게 다 없어진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화교들두 북한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보내더라구요. 추세가....

화교 여자가 하나 옛날에 뭐 그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 일반 북한 사람 다니는 학교를... 그런데 어울리지를 못해서 결국 왕따 당하는 것처럼. 화교 애들은 따로 학교 다니고, 따로 살고. 그러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는 도대체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화교들이 “그다지 매력적인 구석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었다.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스스로 “교통수단도 불비하고” 사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다지 살기 편한 지역도 아닌데 화교들 스스로 북한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생활의 기반을 “더 잘사는 자기네 나라”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일까?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보았을 때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대답은 “그게 다 돈벌이” 때문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사람들 안 떠나는 이유는 돈벌이 때문에 그렇죠. 화교가 북한에서 사는데 크게 제약을 받는 게 없잖아요? 뭐... 화교라고 핑장히 이제 봐주는 것도 많고, 북한사람처럼 그렇게 달구지는 못 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돈 많고 하니까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북

한도. 공기 좋고,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동안에는 계속 있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중국으로 가고 아들은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화교가 돈벌이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중국에 왕래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 북한 내 상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었다. 생필품이나 사치품을 막론하고 화교가 중국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가져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한” 북한사회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윤을 붙여 다른 상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벌어서 이른바 돈주의 반열에 오른 화교는 아예 지역 상권을 장악한 다음 북한주민을 “머슴이나 하녀처럼 부리는” 일도 있고 중국 전화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으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인다고 했다. 한 마디로 요즘 북한에서 화교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이 아주 많은” 특수 집단이라는 것이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이제 어느 집 화교가 중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싼 값으로 물건을 넘겨받아 온단 말이야. 넘겨받아 와가지고 시장 나와서 비싸게 팔아 먹지. 그 재미로 그러니까, 화교들은 또 톡 앉아서. 야, 내 언제 중국 갔다 온다. 어느 날 다 우리 집으로 오라. 이렇게 해 놓고는 앉은 자리에서 나를 보내는 거지.

신의주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중국인 화교들이, 그 중국 물품을 들여와 가지고 하면서 상권을 다 가져요... 애네들이... 비밀 도박장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머슴으로 북한 사람들을 쓰고, 막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있잖아요... 데려다가...

화교들은 다 중국 전화기 쓰지. 잘 걸려. 전화 푹 치면 쩌까닥 받는데 뭐야, 전화가 좋긴 좋지. 화교들은 일전이라도 이득을 보면 장사를 하니까. 내 전화기로 말만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돈이 30만원이 생기면 그게 어디에요... 한국 돈 30만원이면 중국 돈도 알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심부름 참 잘 해주는 데. 나는 전화 보내고, 나는 은행가서 돈 보내거든. 그래 돈 보내면, 지금 돈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받았습니다. 이러거든. 그러면 내가 집에 오면 한 십분 걸려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번에는 아들 거기다 전화하지. 아들, 돈 받았어? 하면, 네, 방금 받았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아들 바뀌줘요, 하면 바뀌줘요. 진짜 돈이 왔니 하면, 빨리 산에서 내려가! 이라고 내가 떨구지. 그럼 그만 끝이지. 빨리 내려가라 그러지.



그렇지만 화교도 북한당국의 감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아무래도 화교는 중국에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남조선이나 미제국주의자의 간첩 임무를 받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북한당국의 판단이라고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주장했다. 이들이 간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한당국은 이런 명분을 내세워 화교를 감시하는 눈길을 늦추려 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주민도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화교를 잘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연히 별다른 실익이 없을 때 당국의 눈길을 끌어서 감시를 받는 것을 자초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북한사회에서 무사히 살아가지 못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결국 북한주민이 화교를 상대로 순전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

화교도 와서 워낙에 간첩임무를 하는 실지로 그런 사례로 있어서 그런 일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일단 제가 있었을 때니까 그냥 안기부 선이다. 그래서 뭐 이제 사형까지 갔는데, 나중에 막상 사형은 안 되고 형을 굉장히 길게 먹고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교랑은 워낙에 해외에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감시를 해요.

화교하고는 순전히 목적자체가 돈, 그 장사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하고 뭐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없죠. 그냥 돈 관계에서 친하게 지내는 거다.

”

면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화교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북한 전역에 퍼져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진이나 평양에도 화교촌이 있고 또 지역별로 화교 학교도 운영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화교 학교의 수는 줄어들었고 대체로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최근에 들어 화교네 집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 “자기네 나라 중국에 들여보내” 대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화교가 제일 많은 건 청진이 제일 많구요. 청진에 화교가 집중돼 있구요. 포항구역에... 회령에는 그 화교 소학교가 있어요. 그 보위부하고 강습대 그 사이에 있어요.

평양에는 대성구역에 화교촌이 있고 서성구역에도 화교촌이 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2월 16일이나, 4월 15일일 때, 무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화교협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이런 소리는 자주 나옵니다.

화교들은 일단 자식들이 크면 중국에 들여보내서 공부시키더라. 그렇지 않고 조선에서 일정한 기술 같은 거 시켜서 도에 내보내서. 자식들 장사를 시키기도 하고. 화교들은 무슨... 잘 살아요.



## 2-4-5 | 추방을 당해 “뿔겨온” 평양집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던 동네에 있던 평양집 이야기를 불쑥불쑥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면담 대상자가 연령이나 거주했던 지역, 탈북연도 등 주요 독립변수에서 일정한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른바 평양집으로 부르는 주민세대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다.

평양집이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양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방으로 내려 온” 주민세대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이들은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평양집 이야기를 꺼낼 때 몇 가지 특정한 유형의 서술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드러났다. 주로 “추방을 당했다, 풀려 왔다” 같은 유형의 표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간혹 소개민이나 평양 소개민이라는 용어로 평양집을 표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소개민도 많죠, 평양에서 온 애들도. 내가 농촌학교에 갔잖아요. 그런 소개민이 많았어요. 평양에서 온 사람들 다 시골에 보냈거든요. 추방돼 온 거. 읍에도 더러 두긴 됐는데 거의나 이렇게 에 됐다가 다시 재검출해서 또 시골에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오니까 뭐 떠난다고 하더라구요. 집 다 싸더라구요. 그날이 짐 싣 다음날에, 다음다음날인가 2,3일 있다가 떠났나? 나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인민학교 때라 크게 신경을 안 썼죠.



어쨌거나 평양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네 인민반 주민들이 평양에서 쫓겨 내려 온 사람을 차별한 일이 있었는지 질문해 보았다. 먼

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 반응은 차별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나왔다. 굳이 이런 걸 차별이라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쫓겨 갔던 지역에서 말투가 다르니까 그걸 놀리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회고하는 면담 대상자도 있었다. 그래도 평양집 아이를 놀릴 때에는 “완전 하바닥 사람인 국군 포로나 탈북자” 집 아이를 놀리는 행위와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평양 말투가 간사하고 알밋다고 놀리기는 하면서도” 그 시선에 부러움과 시샘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일정한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평양집 아이 스스로 주변 친구들 놀림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평양내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를 때는 평양집이라고... 그런 집 아이들은 말투를 버리지 못 하니까. 웬지 간사해 보이고...

근데는 왜 그냐. 평양에서는 말씨가 다르거든요. 평양에서는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유순하게 하는데 함북도에 가게 되면 함북도는 말이 억양이 악센트가 이렇게 높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집하고는 그 동네에서 평양집, 평양집 했죠. 말투가 다르니까 딱 들어보고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 평양에서 쫓겨왔어요? 다 이렇게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밖에서 말 듣고 와서는 기분이 없어서 우리도 역시 말

을 갑자기 고치지 못 하게 되니까 왜 그렇게 쫓겨왔어요 하는 말을 들으면  
서 살았죠.

어린 아이들은 말투도 이상하고 하니까. 놀리기는 하는데... 소개민 놀리  
는 건 아무래도 국군포로나 탈북자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들 당당하게 어  
깨 내밀고... 추방되어서 왔다고 해도 그것도 잠깐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는... 함북도 사람들은 평양 집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안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간사하다고 알립다고 그러죠. 제가 태어날 때 받아  
준 할머니가...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평양 집. 약간 경멸해서... 노친이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는 의사했고, 의사하셨고, 아버님도 일정하게  
직위가 있으니까 얽잡아본다 뭐 이런 감은 안들었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  
죠. 일반적으로 쫓겨 내려온 사람들. 평양에 살다가 농촌에 쫓겨 내려왔으  
니까 좋을 게 없었어요. 그 때 일단 OO 지역에 온 거는 우리 가족 하나만  
왔지만은 주변에 알아보니까 꽤 되더라구요.



평양집이 지방으로 쫓겨 내려오는 사연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  
우자를 두고 혼외정사를 자행한 부화 사건으로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  
에 내려오기도 하고 “국가재산을 탈취한” 부정부패 혐의나 자녀의 폭  
력행위 문제로 산골에 쫓겨나 살게 된 집도 있었다고 했다. 가족 구성  
원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집안 식구가 모두 평양에서 쫓겨나는 추

방 대상으로 선정이 되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2년 당시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에 내려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던 북한이탈주민 한 분은 그 당시 모두 “여섯 집이 같이” 기차를 타고 추방을 당했다고 말해 주었다. 게다가 자신이 쫓겨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평양주민을 선별해 낸 뒤 몇몇 사람을 추방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를 모시고 사는 평양을 깨끗하게 정화하려 하는” 북한당국의 시도가 1960년대 중반 이후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하고 같이 추방을 당해서 내려온 집이 우리하고 한 기차에 온 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여섯 집이 같이 왔시오. 평양에서 82년도에 나왔을 때는 학교 학생이 싸움을 하거나, 학교를 안 가거나,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남의 뉘를 훔치거나 이런 집은 다 내보냈시오. 65년도, 70년도, 76년도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지. 그쪽에는 뭐이나, 토대...<sup>82</sup> 토대라고. 그런다 말이야. 50년도 전쟁 때 치안대에 가담하든가 논란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쪽에 많지. 또, 보내고 82년도에 오는 거는 본인 부주의로 잘못했던 것들 보냈다 말이야. 아이가 학교에 3일만 안 가도 다 내보냈어. 장애인도 다 내보내고 82년 그 때도 앞 못 보는 이, 귀머거리, 병어리, 참봉이, 이런 것들 평양시에서 싹 내보내서 지방에... 기차타고 내려갈 때, 그 때도 장애인들이 많았지. 우리 동네 병원 뒷집 그 집도 남편이 다리 잘라져서. 일하다가 다리 잘렸는데 추방당했잖아요.

저희 옆집도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쫓겨 왔으니까... 자재에 손을 댔다가 쫓겨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뭐... 술 먹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우리 동네에는 부화 건으로<sup>83</sup> 내려 온 사람은 없었어요. 평양에서 쫓겨 내려오는 사람 중에는 부화 건으로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패싸움했다가 걸려서 내려왔다는 집도 있었고... 아... 세계청년학생축전<sup>84</sup> 그거 할 때도 내려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까.... 평양을 정화한다고 하면서... 뭐... 어쨌거나 문란하다고 하면 다 평양에서 농촌으로 내려 보냈어요. 저희 누나네 동네에는 수십 가구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82** 북한사회에서는 성분/ 토대라고 하는 출신배경이 모든 주민의 생애 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해 놓은 성분/ 토대 배경이 좋은 사람은 대학진학은 물론이고 직장 배치, 승진 같은 공적 생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연애 상대나 배우자를 만나는 범주도 달라질 만큼 특혜를 받는다. 반면 성분/ 토대가 나쁜 사람은 “발 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83** 부화: [명] ① 실속이 없어 들뜨고 걸치레만 화려한 것. || 허영과 ~에 눈이 어두워지다. ② 《남녀간에 비도덕적인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예들려 이르는 말. || ~와 안일. ~타락.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322.

**84** 북한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민주청년연맹과 국제학생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적 반제투쟁 행사로, 이 축전의 목적은 사회주의 나라 청년학생들과 평화의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역량을 시위하며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로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제13회 축전은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렸다. 당시 그 행사에 한국 대표의 자격으로 임수경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가했던 일이 있었다. 통일부 통일연수원편,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 그 성격과 내용』 (서울: 국토통일원, 1989)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도 자신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없었는데 평양에서 쫓겨난 사연을 지닌 사례자도 만날 수 있었다. 문제는 한 번 평양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점을 다 밝히고 전후 사연을 다 해명한 뒤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해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들의 사연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냥 추방을 당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산골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다면 나중에 해명이 된 경우에 근처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옮겨가는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다.



그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전쟁 때, 그 치안대<sup>85</sup> 가입 안 했는데 가입 한 것으로 되가지고 한마디로 추방당했죠.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게 1년 있다가 다시 거기서 해명이 됐어요. 실제 경력이 없었으니까 그래 보증인을 일곱 명이나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다니면서 리 아버지 경력을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평양까지 힘들게 가서서 그 전쟁 때 아버님이랑 같이 아버지랑 일했던 분들을 찾았나봐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실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런데 가입하지 않았다... 일곱 명을 찾아 그 사람들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해명했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때 그 평양이라는 건 한참 거기 있는 주민들을 지금 다 내 보내고 있는데, 재등록해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으니까 아무리 해명이 됐다고 그래도 못 갔죠. 그

래도 처음에 평양에서 내려올 때에는 그냥 산골에... 가니까 집이 열다섯  
집밖에 없어요. 그런 산골에 그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해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시내로 나왔어요. 읍으로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거기서  
그 읍에 나와서 공부하면서리 그렇게 살았어요. 억울했죠. 억울했는데...



#### 2-4-6 | 외모로 구분이 되는 소련집/ 아이노꼬

그동안 직접 만나 본 북한주민도 다 그랬지만 면담에 참여했던 북  
한이탈주민도 혼혈인을 평가하는 자세는 매우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는 사실상 예외를 찾을 수 없어 놀라울 정도였다. 이들의 논리는 기본  
적으로 “조선 사람이” 어떻게 인종이 다른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느냐고 지적하면서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  
였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행위 자체가 “반동이고 반역이며 조국의 명  
예를 더럽힌”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근데 아이노꼬예요. 아이노꼬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니까 조선 전쟁에 왔  
다가 그 러시아 여자가 조선 남자하고 만나서 낳은 자녀 후손이에요. 네네  
그래요.

**85** 치안대: [명] ①치안을 목적으로 조직한 대오. ②우리나라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침략  
자들이 일시적 강점지역에 조직하였던 반동주구단체의 하나.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 3권, 평  
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209

코도 좀 나오고... 원래 사람 눈알이 다 까매야 되는데 노랑짱아요. 머리도 좀 노랑고... 생김새가 딱 다르잖아. 소련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북한에서 아이노꼬를 일러주는 거는 백인들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아이노꼬들은 절대 인정 안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차별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반동자,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말하자면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거니까...

하여튼 북한은 다른 나라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우리로써는 유학 갔을 때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국여자 다치는 건 허용 안 한다. 여자 데리고 오는 것도 허용 안 한다. 그게 김국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국태라고 중앙당비서한... 김국태라고 김책 아들입니다. 김책 아들인데... 그 사람이 러시아 유학 갔다가 그 러시아 유학생 여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때 김일성이 비행장에 유학까지 나왔었습니다. 김국태가 온다고. 그런데 러시아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 자리에서 돌아서 안 만나고 갔다는... 그 때부터 러시아 여자는 절대 데려오지 말라 하면서... 그 사람은 김책의 아들이니까 뭐 사는데 지장은 없었죠. 그런데 러시아여자하고 결혼은 못 했습니다.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러시아 여자는 풀가 보내고 북한여자랑 살았거든요.



북한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는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로 삼는 사례는 외모가 뚜렷

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 이웃주민이 쏘아내는 힐난의 눈길은 아주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는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결혼한 부부의 자녀보다 이른바 소련집이나 아이노꼬로 부르는 러시아 혼혈인의 경우에는 “척 보면 알리는” 그 외모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더 심각한 차별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전체적으로 러시아 혼혈인처럼 외모 상 주변 사람과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는 혼혈인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북한 전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이... 북한에는 거의나 없어요. 러시아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있었지만은 대부분 그 여자들도 자식들도 다 출국시켰어요. 60년대 초. 남아있는 혼혈아는 몇 명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족이 있는데 아무 차별받지 않고 살다가 식구들 다 러시아로 돌려보냈다가 80년대 그때쯤 김정일 개인 지시에 따라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때 1고등중학 시험 보러 갈 때 우리 군에서는 네 명이 같이 갔는데 다른 집 아이는 다 간부 자식이고 한 명은 광산 아이예요. 가는 정말 수재예요. 저는 정말 인정해요. 광산이라는 게 금 캐는 광산이 있어요. 가는 아버지가 금광 노동자였는데 정말 수재였어요. 근데 가도 떨어졌어요. 시험 쳤는데 가도 떨어진 거예요. 그 수재아이가. 진짜 수재예요. 남자아이인데. 가는 정말 수재예요. 아빠가 자기 아들이 수재라는 걸 아빠도 아는 거예요.

요. 안되니깐 책임비서를 찾아간 거예요. ‘만나자’ 한 거예요. 근데 책임비서를 만나기 힘들잖아요. 도 당 정문에 가서 이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수재라는 거 인정하라는 거. 진짜 수재예요 그랬는데 가는 어쩔든 평양에 갔어요. 나중에 국방 영변 핵 물리대학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수재만 가는 데죠. 근데 거기 갔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안 가는 게 더 나를 뺐었는데 먹고사는 건 팬찮잖아요. 국가에서 다 공급해주시깐... 그걸로 나라에 바쳐진 몸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외모를 기준으로 식별 가능성이 높았던 이들은 일상적으로 놀림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반면 이들의 외모를 놀림거리로 삼았던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친구와 이웃사람을 “소련놈의 새끼”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놀기는 했어도 막상 자신의 행위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그 속 내를 털어놓았다.



소아마비로. 예. 그렇게 하고 내 남포에서 살 때, 남포서 살 때 두 집을 그, 소련집하고, 그 두 집을 안거고. 그래도 다 집에서 그래도 다 간호해주고 집에서 그저 부모들이 애쓰지. 국가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보통 소련집, 소련집하는데... 옛날에 소련에서 왔다는데... 그 집은 소련집이라고 옛날에 소련에서... 그 자식들이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소련집. 소련집 이렇게. 그냥 같이 어울려 사는데 별로 차별하는 건 없어요. 그냥 중학교때..할머니 밑에. 소련... 그러니까... 눈알이 셋노랑고. 자식들이 그 할머니는 사망되고 손녀, 손자. 머리로 셋노랑고 눈도 노랑고 그리고 우리 학급에 있었는데... 소련집, 소련집 이렇게 놀려댔어요. 친구들이 소련말 해보라고 계속 놀렸어요.

그 때 뭐 특별히 차별한 건 없는데... 그냥 좀 놀려 줄 땐 소련놈의 새끼 하면서... 그래도 차별은... 차별이라곤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기 부모가 못 살고. 자기 가정이 못 사는 거니깐 대학을 안가는 거구나. 소련집은 뭐 다 못 살았고... 농장원이니깐. 아버지, 엄마가 다... 네. 그런가 보다. 법이 그런 가보다. 이게 차별해서 사람들을 차별 하는구나. 이렇게는 생각 못 하고... 우리집은 토대 나쁘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냥 왜왜 토대 나쁠까. 그렇게 자기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지. 이게 뭐 죄다 뭣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소련집, 소련집할 때부터 사망했고 잘 몰라요. 소련집이란 것만 알고 그 집 딸들이 죽은 것만 알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우리 동네에도 그 러시아 사람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 이름은 00인데, 되게 똑똑해요.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 아이는 아이노꼬가 낳은 자식이죠. 그저 생긴 것도 딱 아이노꼬 같애. 코 뾰족하고 눈 쪽 들어간 게. 우리 만날 가 별명으로 불렀어요. 아이노꼬라고... 가 별명이야... 그래도 싫어

하지 않아요. 예...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노꼬처럼 생겼으니까 아야 아이노꼬야 이러면 “어째 그러니...” 이려고 그냥 평소처럼 대하지요.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국 사람한테 팔려가서 아이 낳고 사는 인간 별종이 많다고 힐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말해 주기도 했다. 이 의견은 “결국 같은 민족 피를 더럽히고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짜그배 아들이 많은” 한국에는 장애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국에 장애인이 많은 이유가 바로 “피를 더럽히는” 혼혈인 때문이라는 설명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논리인 것이다. 혼혈인 당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시라소니를 낳고” 만다는 결론을 과감하고 단순하게 이끌어내는 이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없을 정도였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인간 별종이 많다. 미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아이 낳고 그러는 걸 인간 별종이라고, 말하자면 조국의... 여기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짜그배 아들이 많단 말이에요. 같은 민족 피가 아니고... 그럼 그 짜그배끼리 살면 그 대는 좋지만 부담돼, 그거 다 부실한 아이가 나와요. 그건 역사적으로 그건 판명된 거예요. 한국에 와보고 장애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북에서 온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그니까 여기는 짜

그배가 많아서.. 그리고 여자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중단 건 다 먹다가 임신 때 애가 잘못 되서 또 저렇게도 나오겠다. 이렇게도 말해요.

근데 개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애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애가 이 공부도 진짜 못 해요. 그래 우리가 야, 아이노꼬 첫대는 좋지만 두 번째 대는 그 시라소니<sup>86</sup> 놓는다더라 우리 그러지. 시라소니 범이 역할을 해도 머저리 범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대구요. 그러니 이 남한에는 짜그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혼혈하는 거는 그런 거는... 둘이 관계해서 낳은 아는 좋지만 그 다음 대에 가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뭐 지네끼리 살면 사는 기지만 안 된다는 기종보다, 자기 대는 좋지만 그 다음 대는 좋지 않다 이러죠. 어쨌든 그 대에는 시라소니는 꼭 나 온다, 이런단 말이야요.



#### 2-4-7 | 간질환자와 정신질환 환자들

북한에서는 간질을 앓거나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환자는 사회적 소수자 범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증증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해 놓고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 현상을 북한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

**86** 시라소니처럼: 작은 짐승들과 시라소니가 범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제구실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 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921.

는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증증환자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시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문제는 북한사회에서 증증환자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북한에서 증증환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환자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의 처지는 더욱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다.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 이들을 치료할 방도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었다. 부모가 돌보려 하지만 실제로 치료할 방법은 없으니 오히려 간질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자녀가 죽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 학교도 못다니고 뭐... 그냥 집에서 지내죠. 그냥 뭐...부모가 보호자니까 부모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북한에서는 전간환자라고 하게 되면 달기질 한다고 하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거품 물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럼 달기질 환자네. 이러거든요. 그 때 당시 뭐 어떻게 해도 방법이 있겠어요. 사람들 다 바쁘고 시간 없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경과해야지만 그게 멈추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죠. 자기 갈 길 가는... 내버려두고 가다가 정 뭐 하면, 부모한

테 알린다던가. 부모들도 속상해 해요. 저게 죽지 않고, 막 뛰어가서 알려 주면... 부모들이 오히려 속상해 해요. 어머니 저 있잖아, 넘어졌어. 빨리 가 봐 하면 엄마가 뛰어나는 게 아니고. 아이쿠... 어떻게 해요 합니다. 안쓰러운 거죠. 더 뭐 치료할 방법도 없지. 그렇다고 나와서 장사를 하겠어. 자기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더 속상한거지. 자기 입찰이라도 하면 되겠는데 그것도 안되는 거지.

정신병 환자들을 옆에 주변에서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중학교 동창에도 그런 아가 있거든요. 가는 학교에 못 가서 돌아왔어요. 대학에 못 가서. 노력형이지. 머리가 따라 못 가지만 열심히 하는 형이지. 자기가 대학에 안돼서 다시 공부하고 했는데.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에 전문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그 대학은 또 전문대학이지만 북한에서 많이 가려고 하는 경쟁력 제일 높은 데 양정. 식량 사정이 안 좋고 하나까 양정학교가 시세가 많이 높아진 거지. 그래서 그 학교를 두 번째로 했는데, 그 학교까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신경이 돌아버린 거야. 안됐지. 조금씩...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조금씩 잘 해주면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정신 돌아와서 치료 받아서 더 잘해주게 되면 정신도 바로 오고,



#### 2-4-8 | 성분 낮은 사람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북한사회에서 성분이 낮은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지난하고 힘든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발행하

는 공식문서에서 기술하는 자료에서 일방적으로 최고지도자의 행적을 칭송하면서 이들의 업적에는 한 치의 오류도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문서자료는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문서 이외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성분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술하는 것은 그 편파적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성분이 낮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모양새로 삶을 유지해야 했는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도 의미를 지니지만 이들과 함께 같은 인민반에 살며 그 어렵고 고단한 사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이웃 주민의 증언은 다른 유형의 자료로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른바 “반동집안” 딸이나 “포로 귀환병” 아들, “지주 집안” 자손과 증손녀처럼 성분이 나쁜 사람은 차별을 받아도 동정을 받을 수 없고 공부를 잘해도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해외유학 대상자 선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북한사회의 현실이라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주장했다.



애들이 나를 반동집안 딸이야 이렇게 하면서 획 돌아가고 그러면 주변에서 친구끼리 그러지 말라 그렇게는 말 못하죠. 그렇게 차별을 해요. 그런 진짜 의식 자체가 거건 반동집안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항상 계급인식을 심어주니까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재네는 언젠가 조국

을 조국에 죄를 지었다 이런 인식이 많죠. 그게 어쩔 수 없다. 동정을 주면 안되니깐. 자꾸 계급의식을 들게 하니깐.

중학교 졸업을 같이 한 동창이 있었는데 개 아버지가 포로 귀환병이라 항상 걸렸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개가. 그런데 성적은 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인데 아버지 때문에 추천 못 받고 전문학교로 받았거든요. 우수한 애였는데. 그 집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선생한테 한풀이 했어요. 왜 우리애가 대학 추천을 못 받느냐. 엄연하게 성적이 되니깐. 그 때 막 울면서 그런 걸 제가 본 생각이 나요. 그 애도 교실에 와서 막 울더라고요. 억울하죠. 성적이 되는데 야는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재네가 좀 그렇게 걸리는 집인가 보다. 이렇게 하죠.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제가 어린 마음에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죄를 짓지 말아야 겠다. 다행이다. 내 부모들은 저렇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때 마음이.

국군포로들은 한 곳에 탄광에 보냈거든요. 제일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통제하기 쉽게, 한데 몰아넣어야 통제하잖아요. 감시하고. 그러니까 우리 있는 데는 탄광에다가 많이 보냈어요. 나는 국군포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접견해 본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봤냐면, 어떤 사람을 성분 나쁘다고 하냐면, 조선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남한까지 와서 포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거제도 수용소까지 갔던 사람. 다시 포로교환에 의해서 북한에 왔죠. 그런데 거제도에서 몽땅 임무 줘서 보냈다잖아요.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그게 증손녀가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네 엄마가 지주 손녀인지 그랬었어요 딱 위장하고 안 밝혀져 있다가 애네들이 여자만 딱 둘이었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 큰언니가... 근데 안됐어요 그래 안돼가지고 군대를 나갔어요 키가 크고 너무 예쁜데 둘째가 있는데 애는 정말 김태희도 저리 갈 정도로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애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말이 많다가 데리고 가기는 데려갔어요 애를 그래서 엄마가 막 첫 번째 딸도 안 되었고 두 번째 딸도 이게 또 안됐었어. 보내고 싶은데 첫 번째 딸에서 걸렸잖아요. 그때는 좀 괜찬는데 두 번째 딸한테서 또 걸렸어요. 그 때 완전히 팍 폭로된거지요 그래서 소문났어요 저 집이 지주네 그거라더라 숨겼다 이렇게...

명망 있고 원래 대학 다닐 때요. 머리가 좋아서 학교 교무 국장이 000에 왔어요. 신원 때문에. 유학대상에 넣자고. 그런데 신원조회 따지니까 뭐 지주 출신이지 되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유학생명단에서 제외되고 하니깐 심리적 고충이 많았어요. 시험 때도 고져 다른 아이들은 머리 싸들고 공부를 하는데 야는 공부도 안하고 그래도 너무 성적이 좋고 하니깐...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서 살 때에는 성분이 나쁜 친구가 억울하겠다고 생각하는 대신 자신은 “토대가 걸리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했을 따름이라고 토로하는 사람이 많았다. 성분이 나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북한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을 뿐이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

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훗날 한국에 입국하고 난 이후에 그런 태도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소회를 털어놓는 면담 대상자도 있었다.

#### 2-4-9 | 수용소 사람들

북한사회에서 성분이 낮은 사람은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곳에 갇혀서 생활해야 하는 집단이야말로 북한사회 내부에서도 가장 성분이 낮은 집단이라고 하겠다.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른바 “사람마다 그 값을 뚜렷하게 나누어 놓을” 뿐 아니라 한 번 간부를 하면 그 집 자녀도 영원히 간부를 하는 방식으로 “줄기를 딱 규정해 둔” 북한사회에서 오점이 있는 사람은 성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간부집 자식은 영원한 간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는 딱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집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군당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이 클 수 있는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치범은 아니어도 교도소 출신이다. 뭐 이렇다면 우리 자식이 형제 중에 한 명만 입당시켜야 그 가족이 또 당에 따라오니까. 한 명 입당 시켜요. 형제 중에서 이렇게 딱 규정해놨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안돼요. 한 명만 입당시키고 형제 중에 다른 사람들

은 안 시키죠. 대체로 보면 만아들을 한 명 입당시켜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도 입당 안 하면은 그 집 식구들 다 반대파로 나가니까. 정치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막상 수용소에 갇혀 사는 수용자가 왜 끌려갔고 그 곳에 살게 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사실상 찾을 수 없었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자신이 살던 동네 가까운 곳에 정치범수용소가 있었고 그 곳에 수많은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저기 함북도, 그 뭐야... 주에서 한 해밭고도 몇 메타 높은 지대로 그 뭐야 한 몇 시간 가는데요. 거기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13호 농장이라고. 거기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잡힌 사람은 우리 심, 심 뭐이던가. 우리 심 아저씨, 심 아저씨 하던 사람 있었는데, 중국에 무법 도강. 왔다 갔다 장사 질하다 붙잡혀서 정치범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 사람 13년을, 13년 동안 수성 교화소 있죠? 그게 13호 수용소일거야 지금.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간혹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던 사유가 “해명이 되어서” 그 곳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웃에 살았다고 말하는 면담 대상자도 있었다. 이렇게 해명이 되어 나온 이후에도 수용소에 살았던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주변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 것 같다. 태어난 이후 줄곧 수용소에 살다가 나온 친구를 통해서 토막토막 그곳 생활을 전해 들었다고 전달해 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우상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노동신문을 읽을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북한주민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회화” 과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는 것이 수용소에 사는 사람들 처지라는 뜻이다. 심층면담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은 정치범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인민학교 교사를 할 후보자로 선발이 되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가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무섭기보다는. 특수한 지역에서 사는 애니까. 애네가 야금야금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데도 있구나. 애는 거기서 태어난 애니까. 회령에 22호 수용소가 8만을 수용하고 있어요. 8만을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 친일파, 민족 반역자 해가지고, 주로 아주 전통라인 반동이에요. 그 3대까지 거기 사는 것이지. 씨를 말리느라고 부부를 교대로. 만날 새가 없이 만드는 거지. 그 애가 하는 말이 세상이 그런 데도 있구나 처음 안거죠. 근데 애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이 교육을 안 주잖아요. 노동신문 이런 거 볼 수도 없어요. 밖에 정보를 알 수 없어요. 인쇄물이 생기면 그렇게 돌려본대요.

통제구역, 정치범수용소로 가서 교사 하겠는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거기는 초등학교만 배워 준다니요. 중학교는 안 배워준다는데 우리 집 근처 높은 간부네 딸하고 내가 뽑혔어요. 그거 담아가더라고요 그거 안가겠다 말하면 안되잖아요. 우린 반면에 어떤 생각하냐 하면 거기 근심 걱정없이 잘 먹고 잘산다. 수용소만 들어가면은. 나 혼자. 내가 무슨 범인이 아니니까. 가네 가르치고 국가에서 다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살았어요. 22호 안에서는. 그런데 어머니가 절대로 안된다고 반대해서 그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을 “공민으로 대접하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생산도구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심층면담 대상자 중에 자신이 직접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다만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역에 12호 수용소나 13호 수용소, 15호 수용소, 18호 수용소, 22호 수용소 등이 있었고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사연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 해 주는 면담 대상자가 몇 사람 나타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품질이 좋고 그 생산량도 많다고 주장한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수용소를 골짜기에 짓는 거는 물을 터뜨려서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옛날에 어려서 했던 애긴지는 모르겠지만 국군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가장 먼저 쳐들어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

게 들었냐면 저희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줌마가 거기 교장이었어요. 수용소 내에 있는 인민학교 교장... 아줌마들은 이야기를 잘하잖아요. 누구보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들한테도 공부는 안 시키고 일도 시키고 학교 뒤에는 가방이 있는 게 아니라 호미 같은 농기구만 있고 선생도 총차고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자전거 중에서는 갈매기가 제일 좋은 건데 수송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산됩니다. 정치범수용소도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요덕수용소는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10년 되면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지주자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대판 정치범들 유학을 갔다 와서 외국물 먹은 애들을 싹 넣었어요. 그런데 수송 같은 데는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북한에서 수송에서 나오는 갈매기자전거가 최고였어요. 일본 것이 들어오면서 밀리게 됐고 청진과 회령에 가격차이가 있으니 TV, 미싱을 넘겨주고 자전거를 들여옵니다. 청진 시장에서 앉은 자리에서도 해봤는데 장사는 청진이 훨씬 잘 됩니다. 회령 같은 데는 범위가 작다보니 열흘 보름을 끌고 다녀도 안 팔릴 때가 있었는데 청진은 이틀이면 하루에 두 대도 팔리고 합니다. 유동인원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됩니다.

저희 회령시에 20호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정치범수용소에서 옥수수 진짜 막 그 정말 좋은 옥수수 그다음에 고춧가루. 죄인들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다른 이런 것보다 좀 질이 좋은 이런 농산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나온 고춧가루를 나오는 거...



## 2-5

### 인민반 내 탈북 양상

1990년대 중후반에 걸쳐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북한사회에서 대규모 탈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북한주민 중에서 “탈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의 견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을 떠나 탈북을 했는지 그 누구도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또 지금의 현실이다. 북한당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북한주민 중에서 몇 사람이 탈북을 했는지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거나 공개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의 통일부는 연도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를 발표한다. 이 자료가 탈북 현상과 관련한 통계자료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정보라 하겠다. 통일부가 발표하는 도표를 관찰해 보면 2000년 이후 매해 급격하게 늘어났었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짧은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던 2012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통일부가 발표하는 연도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도 막상 몇 사람이 북한을 떠났는지, 이들이 언제 떠났는지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자료

는 탈북의 길에 나선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매년 한국 국내로 입국하는 지 알려주는 기능을 할 따름이다.

도대체 북중 국경지역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했던 것일까? 북한주민이 탈북을 가장 많이 감행하는 계절은 언제인가?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을과 국경에 인접한 지역을 비교하면 탈북민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자료를 확보해 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살던 인민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북했었는지 서술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공식적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일부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중국경지역에서는 어느 마을에서나 탈북이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지 오래된 것 같다. 자신이 살던 인민반에서는 적어도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탈북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집집마다 젊은 여자는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40세 이하 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인민반에서 한 4-5세대 정도씩은 다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니까 대략 한 10% 이상 정도는... 넘어간 것이죠. 근데 그것은 또 가족 채 넘어간

거는 아예 뺀 거예요. 가족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세대가 그렇다는 말이고... 가족이 통째로 탈북하면 그런 집에는 이제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거든요.

계속 연달아 이 인구 통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인구 통계를 해보면, 평균 한 개 인민반이라는 게 25세대 내지 35세대까지 되는데, 한 달에 10세대, 5세대까지 막 빠져나가는데... 온 가족이 다 굶어죽어서 아예 그 세대가 없어지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10세대까지 빠져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잡혀 나오면 인민반 안에 그 가정이 다시 형성되고. 중국에 갔다가. 그리고 어떤 거는 자기 친척이라고 저쪽 사는 거 있으면 싹 가버리고.

2003년도...? 그 때 한 개 인민반의 인구가 한 28세대나 3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5세대만 중국에 넘어간 가족이 없는 집이고 나머진 몽땅 그 집 식구 중에서 하나씩은 중국에 다 갔어요. 그니까 아들만 있는 집은 아주 그저 막 불만에 죽죠. 딸이 있는 집은 다 탈북해서 갔단 말이에요.



면담 대상자 중에는 탈북할 당시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집을 새로 꾸미고 난 이후에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 것도 팔지 않고 온 집안 식구가 정말 몸만 빠져 나와서 북한을 떠났다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재산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깝기는 했지만 북한에서 “그 놈의 정치, 그 놈의 김정일이 정말

싫어서” 북한을 떠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북한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집안 식구 중에서 누군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으로 한 명씩 뒤를 따라가다가 결국 특정 세대의 구성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먼저 떠난 엄마를 따라서 자녀들이 탈북을 하거나 언니나 누나가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남은 식구를 다 데려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으로써 이른바 이민형 탈북 현상이 나타나는 사례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집도 그대로 놔두고 텔레비전, 녹화기 이런 거 다 놔두고 일체 그 집 꾸러 놓은 거. 정말 아까워요. 집을 만약 팔려고 했었다면 그 때 아마 북한 돈으로 1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깝긴 하지만 뭐 아, 난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정말 그 놈의 정치, 그 놈의 김정일이가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다는 건 더 말할 수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에는 정말 순진하게... 어쨌든 생각이 좀 삐뚤어지고, 삐뚤어지고 한 게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내 생활제대해서 집에 오면서 핏트가 들었어요. 그래도 말은 해 보신적은 없죠. 말 못 하죠. 아, 집에서는 불만 많이 해요.

그럼 사람 보낼 때 그래도 식구들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학교 가는 길에 전화 왔어요. 그 전에 아버지하고 연락하던 사람이 저한테 말해줘서 그, 거기서 엄마하고 한 번 통화해서 엄마가 뭐 암호라든지 그런 거 대줘서 10월

달에 통화할 때 엄마가 아마 11월 달쯤 사람이 가게 될 거라고 해가지고. 근데 동생은 학교생활이 바쁘고 하니깐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찾아와서 날짜를 약속하고 그리고 동생한테 말하고 엄마 없이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하니깐... 그러니깐 엄마 오란 소리 그냥 응한 거 같아요.



북중국경지역 마을 어디서나 탈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이른바 “어머님의 고향” 회령시 주민의 탈북 현상은 북한당국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난감하고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sup>87</sup> 2018년 현재의 지도자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그 아버지인 김일성의 후계자로 결정이 된 이후에 북한당국은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이 회령에서 출생했다는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면서 이 도시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회령 지역은 김정일이 북한사회 내부에서 “떠오르는 태양” 위치를 차지했던 1970년대 중반을 계기로 도시의 평판은 물론 시내의 각종 시설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회령시내 중심부에 김정숙 동상을 세우고 사적지를 꾸미는가 하면 중국에서 찾아낸 그 친척들이 거주할 7세대 지역을 조성하는 등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북한당국이 이런 혜택을 받은 회령시 주민에게 남다른 충성심을 표현하도록 독려해 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반대급부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회령시 주민은 누구보다 탈북에 앞장섰고 이런 상황에 분노했던 북한당국이 지역을 대상으로 유난히 혹독한 검열을 시행하기도 했다.

“

한 개 인민반에서 다섯 명 이상이 말하자면 달아났다 하면 보위원을 철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령시는... 제가 말하자면 어느 한 아파트를 내가 그때 성천동인가 어느 아파트를 보니까 40세 미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세 미만... 40세 이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진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특히나 회령시가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왜 딱 회령시를 두고 말하냐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어머님의 고향 도시인데 오히려 더... 그때 강력하게 검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처리 결과는... 크게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그 가족들까지 다 처리를 못하는 거고, 가족들은 회령시 당이나 보위부, 보안부에서 맡아서 책임적으로 다시 달아나는 놀가지 현상<sup>88</sup>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

**87** 김석향, 『회령 사람들, 기억 속 이야기를 들려주다』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3

**88** 놀가지: ①→노루. ②《대오에서 떨어져서 달아난자》를 비겨 이르는 말.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제 1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6, p. 876.



## Part. 3

---

인민반의 이중성:  
감시와 관심의 변주곡

---

심층면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들이 각자 탈북 할 때까지 북한 내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평양과 지방에서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 도무지 경험을 공유하는 영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심지어 같은 도시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내와 주변지역 생활 여건의 격차를 아주 심하게 겪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누군가 면담 과정에서 지적해 주었던 것처럼 “평양에서 청진을 갔더니 천국에서 지옥을 간 것 같았고 청진에서 회령으로 갔더니 다시 또 천국에서 지옥을 간 것 같았으며 회령시 읍내에서 그 주변 지역인 세천이나 유선까지 내려갔더니 또 천국에서 지옥으로 간 것처럼” 생활 여건의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주민의 생활방식은 거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자연히 면담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양상도 북한 내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그 때 평양에 있었을 때. 대학교라든가. 평양 시내 젊은 애들은... 내도 그 때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임수경이 스타일을 놓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때 그러고 당시에 돈 있는 자들의 가족이라든가 돈 있는 자들은 다 해외 스타일이라든가 일본에서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면 다 들었고, 한국에서 어떤 게 유행이라고 하면 중국을 통해서 무조건 들여와서 그

당시 임수경 스타일은 많이 따라했던 말예요. 평양시나 함흥시 같이 큰 도시에서는 따라했지만. 그러나 지방에서는 모르지.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한국에 들어와 살면서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며 동원에 나오라고 괴롭히던 인민반장이 없어서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며칠 지나도 개미 한 마리 찾아오지 않는” 생활이 외롭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인민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을 정도로” 이웃과 가깝게 지내던 시절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심지어 인민반장이 매일매일 “뭘 내라” 하면서 쫓아다니며 잔소리 하던 것도 그렇게 괴롭기만 하더니 한국에 와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봐주면서 인정을 베푸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그리워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인민반 모여 있을 때 누구네 내고 누구네 안내고. 평가하니까 그것이 싫죠. 망신스러워서 그래서 다 내요. 안내는 사람은 없어요. 정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안내도 사람들이 내길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저런 집은 내라 소리 하지 말지. 그렇게 다 말해요.

그렇게 감시를 당하는 걸 느껴도 인민반이 다 같은 이웃이니까, 그래도 뭐 화목하게 지내고. 북한이 전기를 자주 안 주다 나니까 제가 좀... 제가 다니던 기업소가 집에서 딱 뒤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제가 아파트를 위해서... 전기를 끌어다가 우리 아파트부터... 전기선 살 때는 같은 아파트에서 돈 좀 모아서 선만 대라. 전기 내가 끌어오겠다. 해서 우리 인민반이 전기를 좀.. 그랬으니까 추억은 좀...



### 3-1

## 사생활 공유 공동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심층면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무렵, 연구자로서 내 관심사는 북한주민이 실제로 먹고 입고 자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는 갈증은 이른바 공식문서에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답답함 때문이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고 난 이후 이 책을 발간하는 2018년 오늘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북한당국이 발간하는 공식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 마디로 주민들 모두 “수령님 덕분에 세상에 부럼 없는” 생활을 즐긴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연구자로서 나는 당연히 북한주민이 모두 “세상에 부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공식문서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공식문서를 아무리 파고 들어도 도저히 “세상에 부럼 없는” 의식주 생활의 실제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갈증이 느껴졌다. 바로 이런 갈증 때문에 심층면담 대상자를 만날 때마다 어떤 유형의 집에서 무슨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옷을 갖추어 입으면서 살았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곤 했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떤 유형의 집에서 살았는지 질문하는 일에는 더 이상 열광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심층면담 대상자가 대부분 북한에서는 이른바 하모니카 주택/ 줄사택/ 한 줄 몇 세대 형태의 집에서 살았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좀 여유가 있는 집은 한 줄에 두 집이나 네 집이 살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한 줄에 7-9 세대가 산다고 했다. 그렇지만 한 줄 20 세대가 붙어 있는 집에 살았다고 하는 면담 대상자도 만나 보았다. 이렇게 한 줄에 몇 세대가 붙어 있는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주택 형태의 공통점은 도무지 사생활 개념을 적용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하모니카 주택에 살다보면 이웃집에서 말하는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정도는 아니지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옆집에 지금 사람이 들어오고 나갔다거나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아파트에 살았다는 면담 대상자 역시 북한에서 사는 동안 사생활을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회피할 도리는 없다고 말해 주었다. 물론 아주 지위가 높은 간부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르겠지만 대다수 주민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해도 공동수도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집 사람들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별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문화가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면담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 의견이었다.

“

우리... 인민반에 한 서른 세대 거진 되요. 서른다섯 세대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다 개개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한은 옛날 구식 아파트니까 공동변소가 있단 말입니다. 네. 공동수도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대소변 누고하는데, 아침에도 그저 바쁘면 막 다다닥 내려가고 그다음에 저녁에도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다 말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외면하고, 말 안하고 새침한 이런 게 없어요. 그 남의 남편이 뭐 이렇게.. 아니 아무개 엄마 뭐 무슨 돈을 또 벌었나... 그런 말 막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수치스러운 거 없어요. 뭐 재는 것도 없고. 서로 말 잘해요.

아주머니들은 인민반 회의 나오니까 80세대 정도 되는데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건 거의 다 압니다. 이 집이 어떻게 살고, 저 집은 또 어떻게 살고. 그런데 그 때 어렸을 때 우리 인민반에 날 때부터 병신인 아가 하나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개가 며칠이나 살겠냐 하면서...

”

## 3-2

###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놀이문화 공동체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떠나온 고향을 못내 그리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린 시절에 인민반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공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놀이문화를 즐기는 경험을 나누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렵게 살림을 하면서도 이웃집에 경사가 생기면 집안에 아껴두고 있던 음식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

누구네 집에 딸이 대학 갔다 왔다 그러면 자기네 집 귀한 복숭아라든가 오래 뒀던 초콜렛이라든가 인민반 동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 집이 정말 한심하고 나 보기에 가슴 아프고 불쌍한 집이었지만, 동네 사람들 오고 인정미 넘쳤어요. 개천에 용 났다고. 탄광 마을에, 그런데서 대학 갔으니깐.

”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은 텔레비전 있는 집이 많이 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는 저녁마다 잘 사는 집에 동네사람들 다 모여서 영화를 보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저녁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텔레비전 있는 집으로 동네사람이

모여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특히 평소와 달리 재미있는 영화라도 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좋은 신발은 잘 감추어 두려고 하지만 그래도 잃어버리는 불상사도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북한주민은 인민반 단위로 야유회를 가거나 이웃사람이 함께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놀이문화가 어색하지 않다고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들 대다수가 주장하였다.



80년대 후에 그것도 한 개 인민반에 한 두어 집 정도는 텔레비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도 텔레비 없었는데, 어찌다가 났으니까. 81년에? 그때 우리는 대동강. 북한에서 생산한 대동강 텔레비. 그거 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한다 하게 되면 우리 집에 빼곡 들어 앉아 봐요. 그러면 신발 도둑질해가고 막 잃어버리고. 좌우간 영화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여가 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우리 집이 이사를 가서 한 제가 중학교 1-2학년때니깐 고개 82년도 같아요. 그때는 텔레비전 있는 집이 없었어요 우리집에 가득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8시 보도 끝나고 영화해요.

놀이문화 야유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인민반 단위 시장상인들끼리 놀러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인민반 가두에서 동원 나갈 때 동원 진짜 공짜 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는.

지금 시내에서도 명절 때면 그 한 집이 음향 기재 다 바깥에 내놔요. 한 집에서 그러면 음향 기재를 딱 노래를 틀어놓고 바깥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인민반이 몽땅 다 내려와서 춤을 춰요. 지금도 그래.



그런데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인민반 단위로 놀이문화를 공유하는 경험이 마약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들어오는 퇴폐적 행위 양식이 빠르게 퍼져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네에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어우려 마약 흡입을 하기도 하고 이웃사람 결혼식에 참석할 때 돈이나 다른 물건 대신 얼음/ 빙두/ 마약 등으로 부르는 필로폰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마약이라 하게 되면 아편을 마약이라 하거든요. 아편은 습관, 도취, 애착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빙두라고, 얼음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함흥에서 주로 생산되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페닐아세톤을 가지고 그걸 화학적인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활성화시켜서 각성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마약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정말 중학교, 인민학교 아이들도 다 콧구멍에 끼고 그걸 맡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도 해봤어요. 저는 왕진을 다니면서 저를 믿고, 저를 존경한다는 게, 그게 음식처럼 권하는 것이 됐거든요. 선생님 한번 와서 잡쉴보시오, 이렇게 하거든

요. 그러면 그걸 담배 은지나 달러나 폐 같은데 놓고 그걸 녹이거든요. 폐나 달러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 넣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단속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무슨 뭐, 아 생일집이라든가, 결혼식집이라든가 이런데 갈 때 부조를 내잖아요. 부조돈 내는 거 돈이 안 통해요. 얼음으로 부조해요. 그런 정도로 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썄 책가방에다 마약을 넣고 가서 쉬는 시간 학교 가서 하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거 부모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훔쳐내지.

연선시대이니만큼 유행은 감출 수 없더라고요. 중국 쪽의 그런 풍이 많이 불어와서 차림새에 있어서나 아이들의 사고 상태, 어른들의 사고 상태를 보게 되면 중국 쪽 그런 물을 많이 먹었어요. 예를 들면 상상도 못하는데 중학교 시절에 벌써 애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거로 생활하는데 부모들은 그걸 보고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

### 3-3

## 악어와 악어새의 공동체: 감시체계의 무력화

북한학 분야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요소는 바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움직이는 감시체계

가 치밀하고 엄격하게 작동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시체계의 효용성을 무력화하는 대응 방안이 난무한다고 강조하는 증언이 쏟아진다는 점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겠다. 면담을 하는 동안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보다가 들키면 노동단련대에서 6개월 동안 무보수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아예 형을 받고 교화소에서 몇 년 동안 복역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져 나왔다.<sup>89</sup>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조선 드라마” 몇 편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예 자신이 거주하던 인민반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원과 같이 모여 앉아서 술판을 벌이며 남조선 드라마를 독파하며” 즐겼다는 사람도 드물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북한사회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파악하는 과정은 연구자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

지금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찾아낸 대답은 북한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인민반 조직을 일종의 “악어와 악어새가 공존하는 공동체” 형태로 파악하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평민-평백성-하바닥 사람들”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지닌 인민반장부터 해당 인민

**89** 북한의 형벌체계에서 노동단련대와 교화소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이른바 경범죄를 위반하는 사람은 노동단련대로 보내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무보수 노동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 반면에 형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형무소에 해당하는 교화소로 보내서 징역살이를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단련대로 가는 것보다 교화소 가는 사람이 더 무거운 죄를 짓고 처벌로 심하게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겠다.

반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원을 “다 삶아놓으면 비법을 적발해도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인민반장을 “삶아놓는가” 하는 점은 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다만 면담에 참여해 준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당국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주민세대는 대책을 내놓는다”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은 일상적인 감시체계가 조밀하게 작동하는 북한사회에서 그 감시체계의 무력화를 도모하는 주민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대책을 세울 때 어떤 방식을 따라 어떻게 움직이려 하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

인민반장부터 시작해서 다 삶아놨다고. 고저 보위원들도 뭐 씩 왔다가 “야 이 새끼, 뭐 공산주의로군” “보위원 동지도 뭐 텔레비 보고 싶으면 오십시오” 이 새끼 또 그러지. “새끼야” “뭐 보위원 동지도 그러지 마시고 뭐 보러 오십시오. 술 한 병만 사가지고 오십시오” 하면서 내가 속닥이지. 그럼 술 차고 온단 말이야. 보위원이 또 술꾼이었어. 그러니까 술 차고 와서 “야, 안주 내라” “안주 뭘 내란 거요?” “고기 내라” “고기 사다 주시오” “야, 고기는 니가 사와! 불고기 하자” “야 사람 들어오지 못 하게 해라” 빈 껍데기 차림을 한 애한테 “누구가 재?” “괜찮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괜찮아요” 그러면서...

”





## Part. 4

---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해야 하는 이야기

---

어쩌다 보니 북한 전문가가 넘쳐 나는 세상이 찾아왔다. 북한당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전문가 집단의 크기가 2의 제곱 속도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역시 가세하여 북한 지도자의 복심을 파헤치는 자신의 능력을 거침없이 쏟아낸다.

다양한 유형의 북한 전문가 집단이 모인 포럼-컨퍼런스-세미나 자리에 가면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이야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은 질문 형태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신념을 확증하는 자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 둔 상태이면서도 가볍게 조약돌 하나 던져보는 것 같은 자세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 순간, 조약돌에 맞은 개구리 신세로 변한 나한테 사람들 눈길이 쏟아진다. 질문을 던진 그 전문가는 위풍당당한 자세로 내 대답을 기다린다는 눈길을 다시 한 번 보낸다. 피하고 싶지만 나한테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어쨌거나 대답은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뇌세포 깊은 곳에 잘 감춰 두었던 말을 한 마디 밀어낸다.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말을 끝내고 고개를 드는 순간, 제대로 폭탄 하나를 던진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인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

민 중에서 누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했고 또 누가 과장과 허위로 점철이 된 이야기로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논쟁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던 이야기에 더하여 지인의 정보까지 총동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마침내 국경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몇 사람 정도 면담했다고 해서 북한 내부가 돌아가는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사람들 평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 듣고 북한 상황을 연구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하면서 나를 향해 장탄식을 쏟아내기도 한다.

대체로 그 정도에서 내가 더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멈추어야 조용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간혹 지고 싶지 않다는 옹고집이 발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드물지만 한 마디 하고 싶은 욕구를 멈출 수 없는 순간이 간혹 찾아오는 것이다. 결국 한 마디 더 하고 만다. “국경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면담할 때 그 동네 이야기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평양 이야기는 평양 출신 북한이탈주민한테 물어 봐야죠. 왜 국경지역 출신한테 평양 이야기를 물어봅니까? 그런 방식으로 질문하고 나서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뭘니까?”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전문가의 뜨악한 표정을 뒤로 한 채 그 어색하고 이상한 자리를 빠져 나오려 한다.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가 턱 밑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공연히 별집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평화롭게 마무리할 방법을 모색해 본다. 두 번 다시 이렇게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북한이탈주민 이야기를 토대로 학문적 글쓰기를 시도해 왔다.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았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연구자로서 내가 논문이나 책을 쓸 때 무엇보다 소중한 자료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쓴 논문과 책은 모두 자신이 살았던 고향 마을과 골목길, 이웃 사람들, 장마당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준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가 여러 겹 쌓여서 단단한 토대를 만들었고 그 토대 위에 조금씩 학문적 건축물을 만들어간 결과물인 것이다.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겨우 인민반 이야기를 글로 옮겼을 따름이다. 북한주민이 성장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처음 조선소년단에 입단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마음에 드는 이성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마음을 표현했는지, 결혼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녀교육은 또 어떻게 하는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한 번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 싶다.

그런가 하면 연구자로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이야기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북한에서 소수자로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기

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성분이 나뉘었던 사람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여성,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앓던 환자들 역시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의 삶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가능하면 자세하게 남겨 놓고 싶다. 이렇게 이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먼 훗날 북한당국의 행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또 바빠진다.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북녘 땅 고향 이야기

발행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발행일 2018년 6월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북한이탈주민이 “태를 묻은” 고향을 두고 떠났다고 말을 하면서 저렇게 깊은 회한을 쏟아 내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신이 겪어 온 삶의 과정을 비교적 평온하게 들려주다가도 고향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저렇게 깊은 감정의 진폭을 드러내는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고향의 산과 들, 골목 앞 풍경을 넘어서 그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마을 뒤 골짜기 안 바람소리에 이르기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는 이들의 표현 능력은 어디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단순히 한 사람이 겪은 경험담으로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도 좋을까?

두고 온 고향을 한 번이라도 다시 밟아 보고 싶다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쏟아내는 이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로 기록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제1부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